



The limits of Israelite control in the time of the Judges (12th century B.C.E.). After Y. Aharoni, *Carta's Atlas of the 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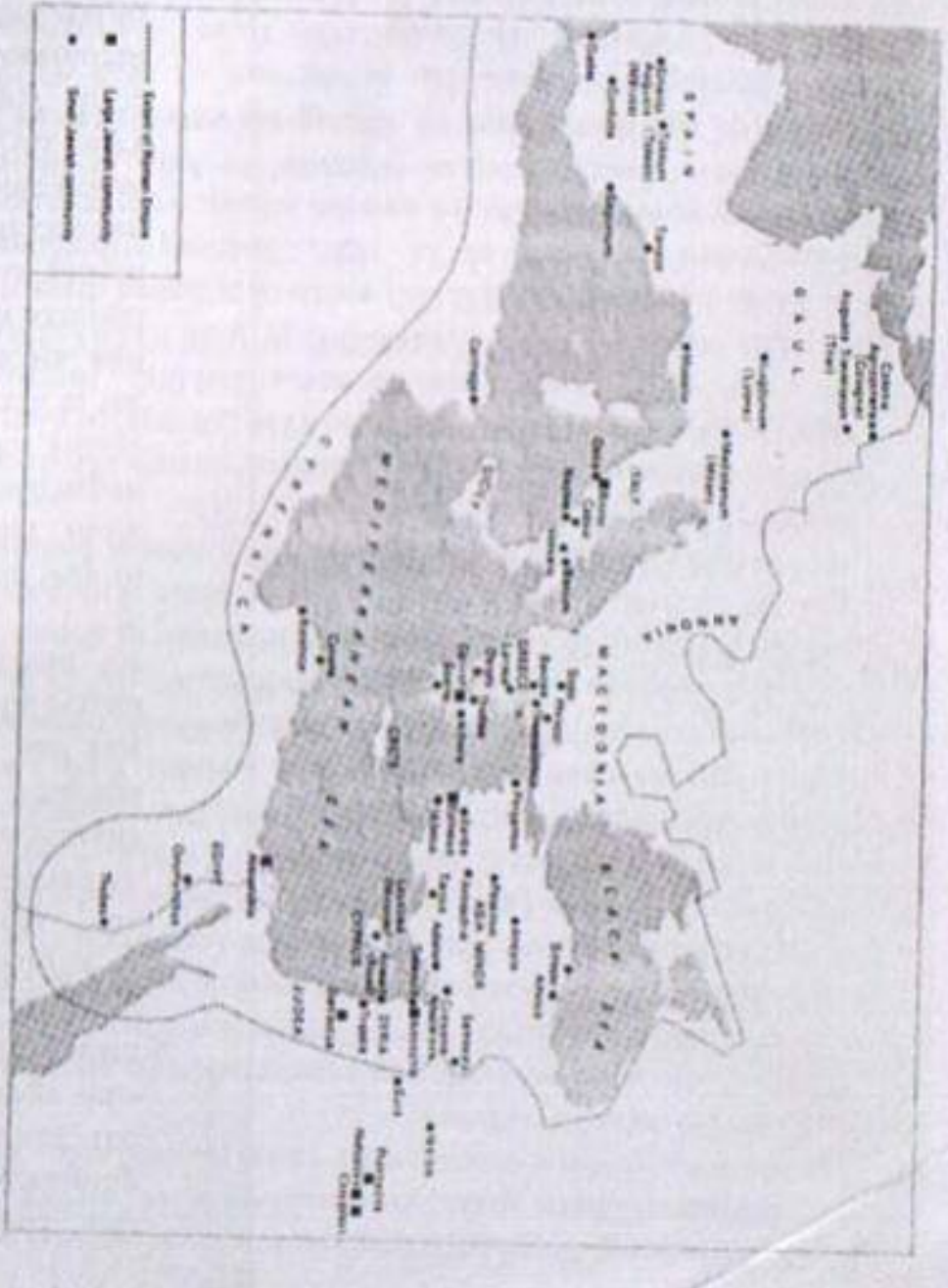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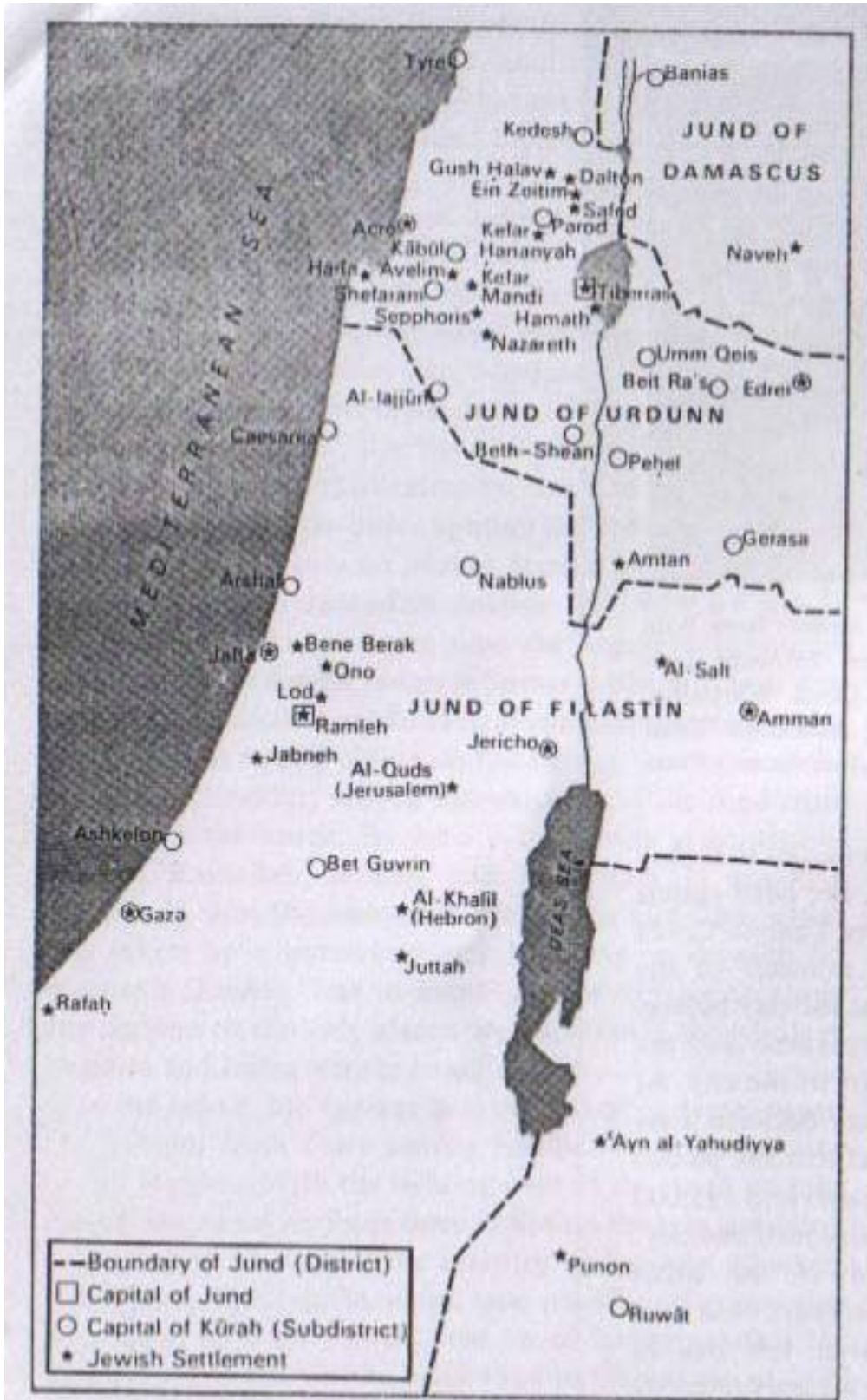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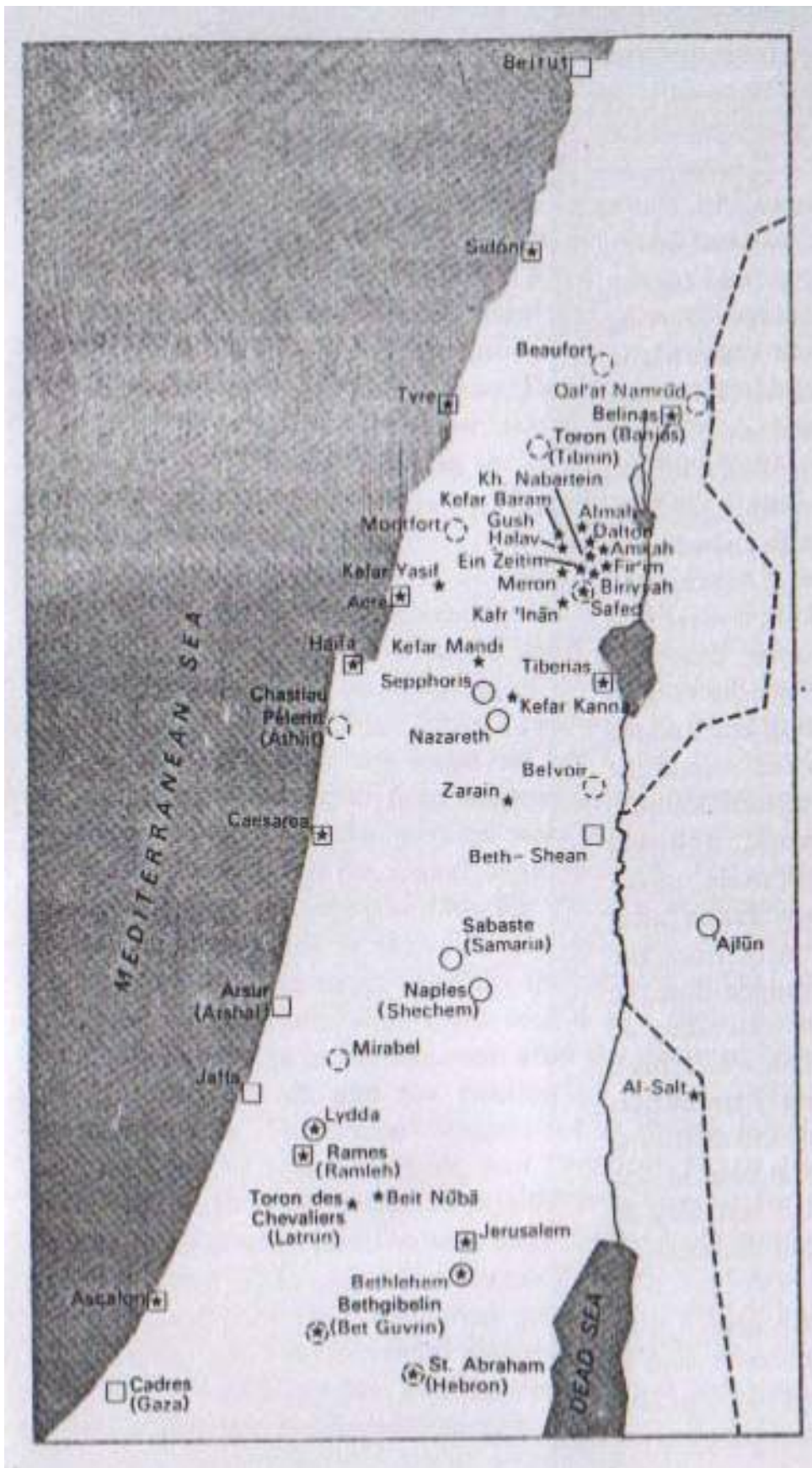
The Diaspora in the Roman Empire in the Mishnaic and Talmudic periods. Based on H. H. Ben-Sasson (ed.), *Toledot Am Yisrael*, vol. 1, Tel Aviv,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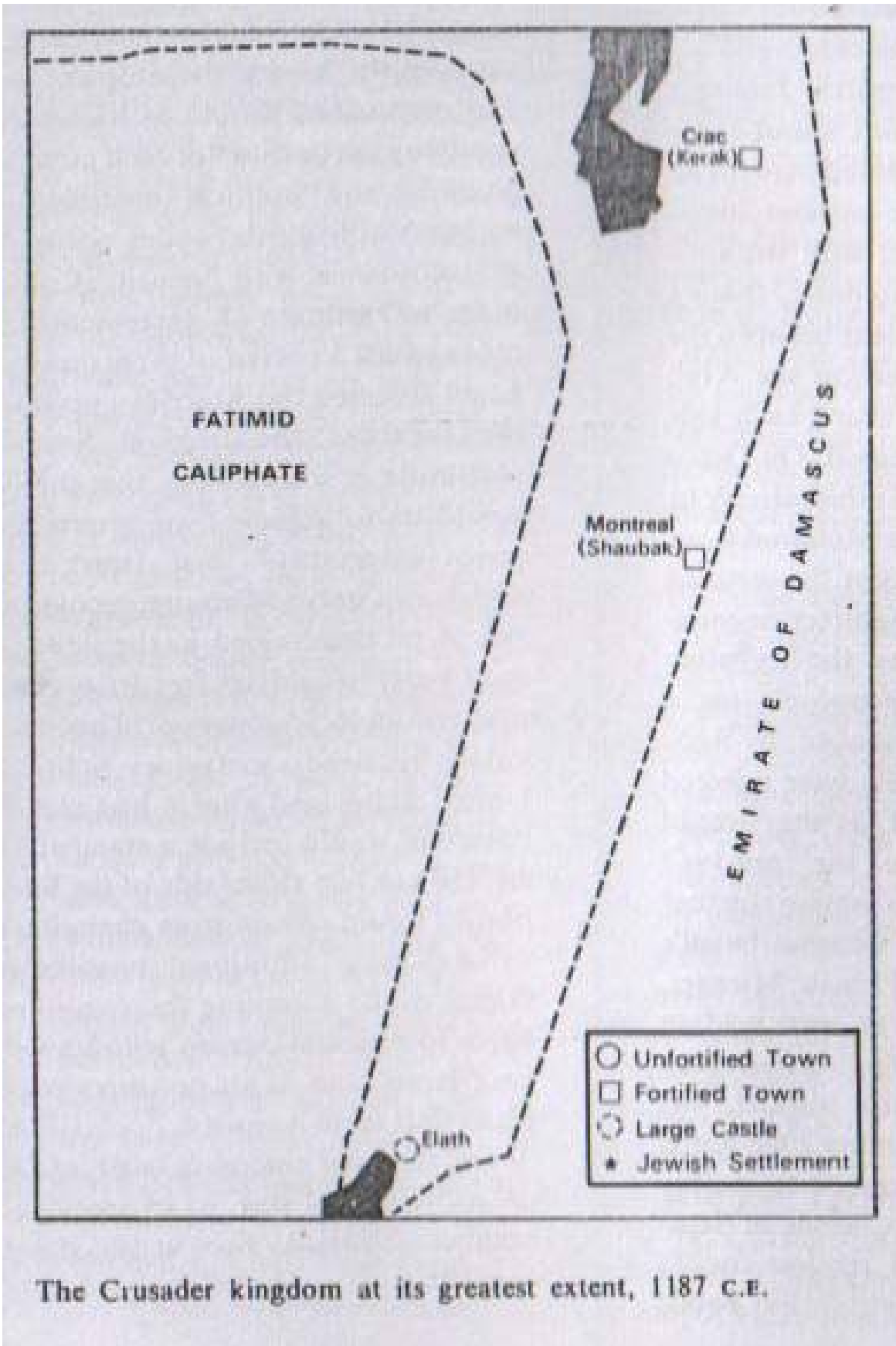






The Land of Israel under Arab rule, 8th century C.E. After *Atlas of Israel*, Survey of Israel,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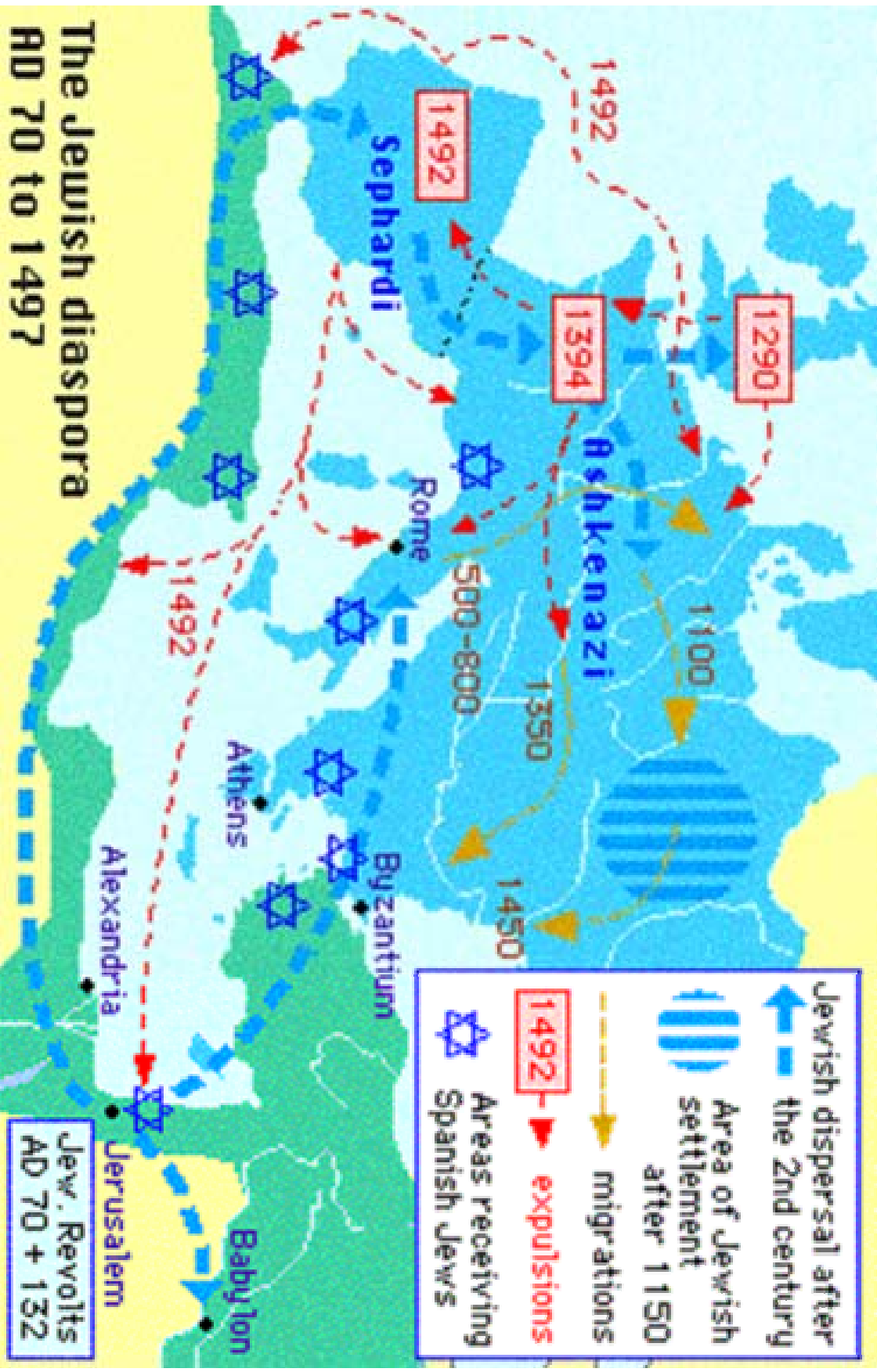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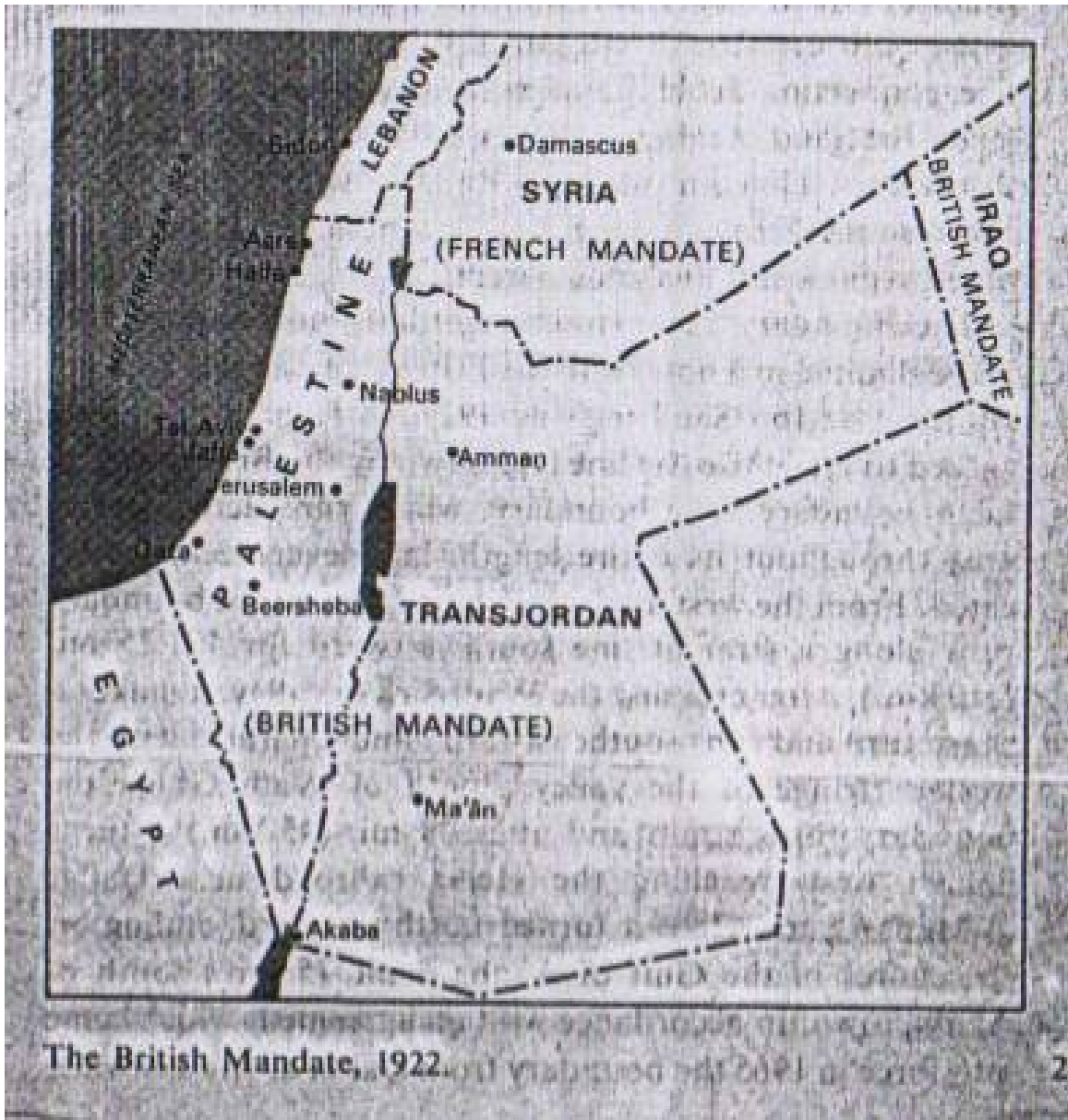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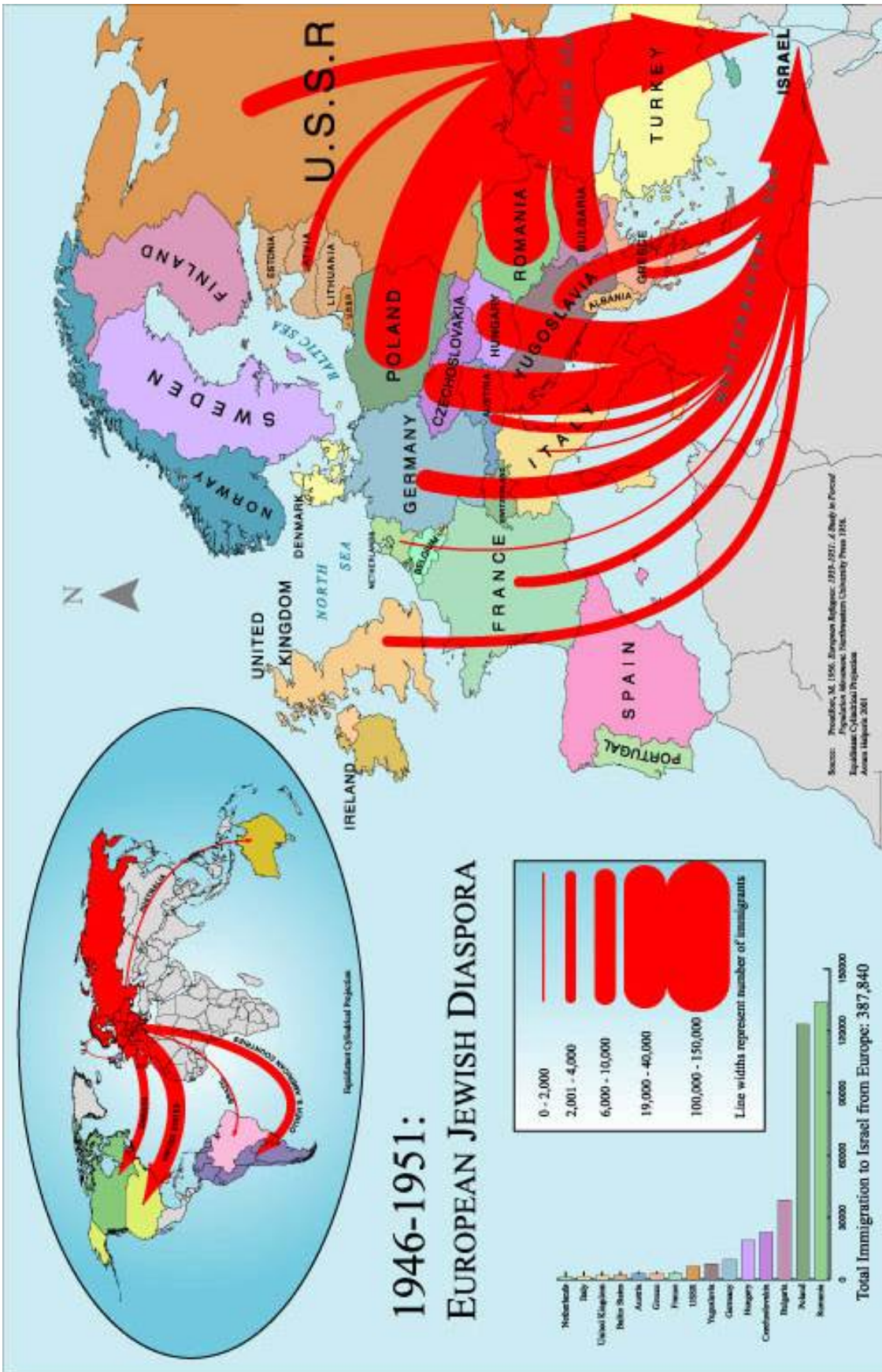
The Land of Israel under the Mamluks, 14th century C.E.  
 After *Atlas of Israel*, Survey of Israel, 1970.



The Land of Israel under Ottoman rule, 17th century C.E.

















## 1. Hebrew (Language) 라는 이름.

Hebrew(히브르)는 구약에서 “가나안의 입술”(š<sup>e</sup>fat Kēna’an, 세팻 케나안) 또는 “유대의”(Y<sup>e</sup>hûdît, 예후딧, Jewish)라고 불리운다. 후대 유대인들은 그것을 l<sup>o</sup>šôn haqqōdeš(레손 하꼬오데스, 성스러운 언어, the sacred tongue)라고 불렀다. “히브릿”(‘ibrît, Hebrew, 영어 음역으로는 히브르) 이라는 용어는 팔레스타인의 랍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영어 이름 “히브르”(Hebrew)는 그것의 부사형 ἑβραῖοί(in Hebrew, 히브리어로)가 아랍어 “ ‘ibrāy ”(Hebrew)의 음역으로서 성서외경 집회서(Ecclesiasticus, 약 기원전 130 년 경)에 적용된 그리스어 ἑβραῖος로부터 온다.

/(Gesenius, Eng., 8쪽) 히브리어(Hebrew Language)라는 이름은 구약 정경을 형성하는 이스라엘사람들의 신성한 글쓰기 언어를 보통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서 이후 시기의 유대 글쓰기들의 신 히브리어와 대조되어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라고도 불리운다. 히브리어라는 이름(עִבְרִית לְשׁוֹן גְּלוֹסָּסָּא טֹוֹן ἑβραίων, ἑβραῖοί)은 구약성서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가나안의 언어’<sup>1</sup>와 2K 18<sup>26,28</sup>(cf. Is 36<sup>11,13</sup>) Neh 13<sup>24</sup>에서 ‘유대 언어로’(יְהוּדִית) 라는 용어를 발견한다. 마지막 인용된 글월에서의 그것은 학개와 느헤미야와 에스터의 책에서처럼 이미 그 전체 국가에 Jew, Jewish 라는 이름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바빌론 유수 이후의 후기 용법에 일치한다.

이름 Hebrew(עִבְרִית ἑβραῖοι)와 Isralelites(יִשְׂרָאֵלִיּוֹת) 사이의 구분은 오히려 후자가 종교적인 의의를 마찬가지로 지니고 그 백성 자신들에 의해 사용된 명예로운 국가 이름인 반면 전자는 그 국가가 그것에 의해 외국인에 의해 알려지는 덜 의의있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Hebrews는 자신들을 외국인들과 대조할 때 사용되거나(창세기 40장15절, 출애굽기 2장6절이하와 3장18절 등, Jon 1<sup>9</sup>) 또는 그것이 Isralelites이 아닌 자들의 입에 놓이게 되거나(창세기 39장

---

<sup>1</sup> 현대의 히브리어 형식이 가나안에서 실제로 발전했다는 것은 서쪽을 표현하는 yām(sea)과 남쪽을 표현하는 nègeb(본디 dryness, 후에는 팔레스타인 남쪽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서)의 쓰임새와 같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나타난다.

14절과 17절 그리고 41장 12절) 또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다른 국가들과 대립적으로 사용될 때(창세기 14장 13절 43장32절, 출애굽기 2장11절과 13절 그리고 21장2절)만 단지 말해진다. 사무엘상 13장3절과 7절에서의 그 텍스트는 분명히 원형이 손상됐다. Josepus같은 그리스와 라틴 저자들에서는 'Ἑβραῖοι, Hebraei' 등만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 이름의 Graeco-Roman 형식은 히브리어 עִבְרָיִ from 직접 파생된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아람어 'ebrāyā(*the Hebrew*)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방인들의 많은 설명들 중에서 파생접미어 'ִי'와 더불어 다른 쪽의 나라 라는 뜻을 지닌 עִבְרָא로부터 파생된 것이 עִבְרָיִ 이라는 것만이 문헌학적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이름은 'eber 즉 Jordan(혹은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의 다른 쪽 지역에 거주했던 자들로서의 Israelites을 가리켰으므로, 요르단 또는 유프라테스 이 쪽 국가에 의해 사용됐을 때만 근원적으로 적절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문제의 그 강을 건넌 후에 그것은 아브라함자손들에 의해서 오래동안-확립된 이름으로 보유됐다고 그리고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한 계이내에서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졌다고 우리는 반드시 상정해야만 한다. 족장 이름에 붙는(patronymic) Eber에게 이 이름을 지시하면서 히브리 계보학자들은 그것에 훨씬 더 많은 포괄적인 의의를 배정했다. (Nu 24<sup>24</sup>에서는 아니지만) 창세기 10<sup>21</sup>에서의 **Shem**은 Eber의 모든 아이들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므로 그리고 후자에게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 14절 이하와 15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아람 족속과 아랍 족속이 속하므로, 이방(gentile 異邦)적인 'ibri 형식에 있어서는 곧장 배타적으로 Israelites에게만 한정되는 까닭에 그 이름은 나라들과 국가들의 두드러게 큰 그룹을 근원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그 이름의 어원론적인 의의가 그러한 경우에 강조돼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기원전 1400 년 경의 Tell-el-Amarna 편지들에서 팔레스틴과 그 이웃의 약탈자들과 상인으로서 나타나는 Ḥabiri를 'Ibriyyîm과 언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동일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Ἑβραῖστί 라는 용어는 Sirach의 아들 Jusus에로의 서문(기원전 130 년경)에서 그리고 신약성서 계시록 9장 11절에서 고대 히브리인(old Hebrew)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은 Jn 5<sup>2</sup>, 19<sup>13, 17</sup>에서 마찬가지로 아마도 계시록 16장 16절과 Jn 19<sup>20</sup>에서도 그리스어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팔레스틴의 (아람어) 토속어였던 것을 지시하는 데에 봉사한다. 사도행전 21장40절 22장2절 26장14 절의 Ἑβραῖο διάλεκτος 라는 표현의 의미는 의심스럽다(Kautzsch, Gramm. des Bibl.-Aram., p.19f.를 참조하자). 마찬가지로 요세푸스(Josephus)도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

고 자신의 시대의 아람어 토속어 이 양자에 Hebrew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히브리어는 Lingua profana 즉 아람어 세속어에 대립되는 신성한 책들의 언어로서의 구약의 유대-아람어 버전들의 신성한 언어(the sacred language)로 불리운다. (Gesenius, Eng., 9쪽)/

///1-1)언어이름으로서의 Hebrew. 이 기고문의 주제는 지난 천 여 년 동안 또는 그 정도 그것 자신의 공동체에 의해 보통 Hebrew라고 불리워졌다. 히브리어에 대한 가장 이른 성서적인 지시는 그것을 “가나안의 언어”(이사야서 19:18)라고 이름한다. 히브리(Hebrew, 히브루)는 Canaanite의 가장 잘 포착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형식이므로 손쉽게 그렇게 불리웠을 것이다. 성서의 다른 곳(2 Kgs 18:26, 28 = Isa 26:13 = 2 Chr 32:18; Isa 36:11; Neh 13:24)에서의 그 언어는, 국제적인 교역과 정책의 매개자로 돌출한 아람어(Aramaic)와 대조되어, yehûdî, “Judahite” 또는 “Jewish”로 지시된다. 고대 후기 문학에서의 그 언어는 보통 성서 저작과 관련하여 “성스러운 언어”(the holy tongue)라고 불리우며 그리고 랍비적인 또는 미슈나적인 또는 tannaitic 히브리어라고 불리워지는 것인 **구어적(oral)** 전통의 언어와 관련하여서는 “지혜로운 자의 언어”(the tongue of sages)라고 불리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어적**인 양식의 첫 명쾌한 지시에 도달한다.

‘ibrî “Hebrew”(히브루)라는 용어가 성서(예를들어 Gen 39:14; 41:12; Jon 1:9)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언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성(ethnicity, 部族性) 오히려 지시한다. 집단-내부가 집단-외부와 접촉할 때 그것은 보다 더 흔하게 직면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동의어로서 거의 항상 나타난다. 단지 자국-태생 대 (vs. 對) 외국인 노예 라는 범주화와 관련하여 그것은 집단-내부 부족적인 용어로서 나타난다(Exod 21:2; Deut 15:12). 언어로서의 “히브루” 라는 용어가 탈무드에서 지시되는 동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히브루’를 아주 드물게 지시한다. 한 군데를 인용하여 보면, 대부분의 의견들에 따르면, “히브루”에 대한 이런 지시는 아람어의 어떤 외국적인 방언을 지시한다(b. Meg. 18a; Rashi의 주석(commentary)을 보라). 다른 가능성은 Georgian 언어에서의 ‘ibrî 라는 용어의 지시인데,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Iberatoi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 행해진 것이다. 중세 히브리어에서는 성서지명들과 부족명칭들을 애매한 음성학적인 비슷함에 근거하여 갱신하는 것이 다반사(commonplace, 茶飯事)였다. 독일을 Gomer라고 지시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Hebrew”라는 명칭은 탈무드에서 “앗시리아 글자”와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히

브루 글자” 라고 불리우는(b. Meg. 3a) 고대 가나안넛 알파벳을 지시하는 다른 하나의 언어학적인 맥락으로 나타난다. 최소한도 그것의 글자들의 모양에 있어 더 새로운 알파벳 양식이 초기 페르시아 제국 때의 근동에서 두루 오래된 것을 교체해 버렸다. “네모꼴 모양”(square character)과 현재 오늘날 사용되는 그것의 필기체 파생태로 전개되면서 말이다.

그림-내부에서의 그것의 언어에 대한 공통의 지시로서의 “히브루” 라는 용어가 [아랍인] **Saadia Gaon**(기원후 882-942)의 문법적인 저술들(Skoss 1955)에서 처음으로 그에 의해 *아랍어*에서 차용 도입된 것이라는 점은 아주 흥미롭다. 이 새로운 명칭은 수세기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들로 자신들의 문법 연구서들을 쓰기 시작했을 때에야 겨우(only) 히브루 어에 들어섰다.

가나안넛 언어 지역의 전체 범위는 북부 시리아에서 남쪽으로 시나이(Sinai)로 뻗어 나가는 지중해 동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좁은 벨트 영역이다. *페니키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말해진 가나안넛을 위한 일상적인 명칭이다. 비록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안 식민주의자들은 자신들을 *Canaanites*(가나안넛)이라고 부르면서 카르타고(Carthago) 중심의 자신들의 새로운 땅에게 *Canaan* 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말이다.

페니키아인의 식민주의 언어 이외의 다른 것으로서의 *Canaanite*는 고대 세계에서 결코 그 중요한 역할을 행했다고 전제될 수 없다. 로마는 자신의 시원적인 맞상대 카르타고를 서부에서 패퇴시켰다. 그리고 페니키안 언덕 나라의 동쪽에서 본디 사용되던 지중해의 동쪽(Levant) 아람어가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기원 후의 시대가 시작될 때, 유대인의 언어로서의 *Hebrew*는 단지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모국어(mother tongue)였을 뿐이다. 유대의 확장된 하스모네안(Hasmonean) 왕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일종의 아람어가 말해졌다. John Hyrcanus I 세의 지배 동안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자신의 조상들의 언어 관습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단순히 따랐기 때문이었다. 거의 동시에 개종했던 남쪽 *Udumeans*은 자신들의 조상 *Canaanite* 언어(tongue)로 계속 말했다.

히브루어(*Hebrew*)는 아마 기원후 200 년 경 유대의 인구가 10명 당 1 명씩 살해됐고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갈릴리 북쪽으로 도망쳤을 때인 *Bar Kokhab* 재앙의 결과로서 (어떤 공동체의 모국어 라는 감각에서) 살아있는 언어이기를 그쳤다.

그러나 문어적인 증거로 판단하건데 생존자들은 자신들에게 언어학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의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족언어로 말했던 아람어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보다 더 공식적인 의도들에서 사용했던 히브리



어(Hebrew)와 공생적으로(symbiotically) 연결됐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길에서 서로 언어로서는 아주 구분되는 히브리어와 여러 다양한 아람어들은 이제 단지 한 공동체 언어의 단순한 스타일(styles)들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화자들은 항상 아람어의 시리아적 다양함은 분리된 언어로 간주했다.

히브리어 그 자체(Hebrew qua Hebrew)는 그 시대 내 내 긴밀한 문어적인 활동의 매개자로서 그리고 말해지는(spoken) lingua franca(혼합언어)로서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가 지난 19 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모국어(mother tongue)로서 되살아났다.(Gene Schramm) ///.

## /// 2. 히브리어의 역사.

### 2-1)히브리어의 초기 역사.

**2-1-1)역사 이전(Prehistory).** 후기청동기(LB II)에서 철기(Iron I)에 이르는 전이의 기간동안(즉 기원전 1400-1200 년 경)의 Syria-Palestine의 정치적 지형을 재 정립시켰던 대 격변은 언어적인 지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일으켰다. 히브루어가 (비록 많은 더 이른 북서 셈어적 특색들의 연속성이 반드시 무시 되어서는 않되지만) 구분된 언어로서 돌출했다

히브리어 성서의 몇 몇(예를들어 출애굽기 15; 유다서 5) 시적인 글월들은 그것들의 언어의 어떤 시원적인 특색들에 근거하여 이 초기 시기까지 날짜가 매겨졌다. 그러나 어떤 성서 외적인 텍스트도 이 시기로부터 생존한 히브리어로는 확인 가능하지 않다. ( 날짜 매겨진 비문 텍스트들의 아주 유용한 안내서가 Jaroš[1982]에 의해 편찬됐다. 이 모음집의 1-7 텍스트들은 청동기 I부터 청동기 II 말기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Suder[1984]에 의한 문헌목록은 미완성적이며 그리고 이미 구식이 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 113-20의 비문들의 연대기적인 색인은 유용한 안내자이다. 초기 알파벳 텍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최근의 연구는 E.Puech[1986]에 의한 것이다. Puech의 탐구 관심은 언어 보다는 글쓰기 체계의 발전이다. 더 오래된 안내서들은 KAI 182-200; TSSI vol. 1을 포함한다).

**2-1-2)철기시대의 히브리어(Iron Age Hebrew).** 히브리어로 쓰여진 가장 이른 증거는 고고학적인 철기 II B-C(기원전 800-586년)시대이다. 보다 일찌기 히브리어는 말해지는 언어로서 반드시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텍스트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언어로 작성됐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의 몇 몇 시원적인 부분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 Smelik(1987:9)은 충분한 고고학적 기록들이

기원전 8 세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글쓰기가 폭 넓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여긴다. 그 이전까지의 식자층(literacy, 識字層)은 선택된 궁정(royal court, 宮廷) 공직자들에 한정됐다고 하면서 말이다.

철기시대 동안에 히브리어는 *최소한 두 가지 방언*, 곧 북쪽 또는 “Israelian”(H.L.Ginsberg의 신조어)와 그리고 남쪽 또는 “Judahite”로 존재했다. 북쪽 방언의 증거는 비명(epigraphic, 碑銘)과 상태가 안 좋은 것(spotty)인 반면 대조적으로 남쪽 방언은 비문(inscriptions, 碑文)들과 그리고 히브리어 성서 텍스트의 많은 부분들에서 풍부하게 포착된다.

**2-1-2-1)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사마리아 오스트라카(ostraca), 곧 북 수도 발굴 동안에 발견된 항아리 조각들에 쓰여진 행정문서들의 언어이다. 그 *오스트라카*는 기원전 795-794과 그리고 기원전 776년까지 날짜가 매겨질 수 있는 두 그룹들로 각기 나뉜다(Laroš, 1982:57). 그것들의 텍스트들은 그 언어의 빈약한 견본들을 제공하는 간단하며 형식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날짜 도식 bšt (h)- (수 또는 숫자들이 잇따름), “In (the) year x,”를 그것들이 일관되게 사용함은 최소한도 이런 도식적인 특색으로 볼 때 그 언어는 “year”를 위해 šnh 형식을 사용하는(DISO, 312-13)을 Judahite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페니키안*의 용법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 왕국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비문들은 마찬가지로 그 언어의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예를들어 TSSI, vol. 1, pp. 15-20).

J.W.Wesselius는 최근에(1987) Deir ‘Alla 텍스트들의 언어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라고 그리고 그 쪽에서 발견된 회반죽(Plaster, 벽)에 잉크로 쓰여진 Balaam에 관한 이야기 단편들이 북 왕국의 언어로 된 첫 문어적인 텍스트로 알려진 것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텍스트들의 형태론적인 세부사항들은 그러한 저장을 언어학적으로 문제있는 것으로 만들며 그리고 그것의 인정은 학자적인 판단에 의한 선언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

기원전 722년의 북 왕국의 국외추방(deportation, 國外追防)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하찮은 방언으로 전락했으며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함께 사라졌다.

**2-1-2-2)유대 방언**은 수 많은 지역들로부터의 비문들에서 분별될 수 있다. 1908년 Gezer에서 발견된 석회암 위의 7줄로 새겨진 비문은 그것이 연속적인 계절들에서 행해진 농경 행위들에 따라 그 년도의 달들의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Gezer 달력”이라고 자주 불려진다. 비록 그것의 언어는 자주 히브리어라고 말해지기는

해도, 그것은 모두 비명적이고 성서적인 (Jydahite) 히브리어의 다른 보기들과 구분되는 형태론적 특색들을 드러 낸다(KAI, vol. 2, pp. 181-82; TSSI 1: 1-2 [“시원적인 히브리어 방언”]; Jaroš 1982 no. 11[pp. 37-38]을 보라).

불확실한 출처의 사적인 소유인 왕쇠똥구리모양의부적(Scarab)의 비문은 고 서체학적으로 10 세기 또는 기원전 9 세기 초엽까지 날짜가 메겨진다(Jaroš 1982 no. 13 [pp 39-40]). 그 소유자의 야훼주의적인(Yahwistic) 이름인 zryhw는 후기 유다이트의 철자방식으로 쓰였으며 그리고 “히브리어”로서의 두- 단어 텍스트의 언어학적인 분류를 정당화 시킬 수 있으리라.

(다른 방식으로 특수화되지 않는 한, 유다 방언을 위해 이후로 사용될 용어인) 현존 히브리어 자료는 기원전 8 세기까지 두드러지게 확장된다. 각인된 도장들과 감사기도들과 항아리조각(ostraca)들 위에 잉크로 쓰여진 문자들과 기념비적이고 장례식적인 돌에 새겨진 텍스트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맥락들에서 종교적이며 그리고 더 많이 “세속적”인 환경에서 “공식적”이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용된 그 언어들 보여준다. 주요 텍스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의 *Siloam 비문*들과 Khirbet el-Qom으로부터의 무덤 비문과 ARAD로부터의 편지들과 Lachish 편지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성서적인 히브리어 텍스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 성서로부터의 일차적인 역사와 주요 예언들의 부분들을 두루 통해 발견되는 고전 히브리어라고 불리우는 계층과 다르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맛소라 텍스트들은 그것의 연이어지는 국면들에서 철기 시대 유다의 언어들 의의있는 견본들을 보존한다는 주장에 그 비문적인 기록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음적인 텍스트의 맛소라 모음찍기에 주어진 음성학적인 분석은 여러가지 점에서 보다 이른 말 전통들을 보다 늦게 적용했다는 암시들이 있다.

성서 외부적인 히브리어는 성서들의 언어학적 자료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날짜매김 시도에 대한 중요한 조절을 제공한다. 형태론적이고 구문론적인 특색의 통시론(diachronic, 通時論)적인 연구는 시간과 관련없는(over time) 언어 변화에 관한 제한된 진술들을 허락한다(Adams and Adams 1977은 한 예이다. Kutscher 1982는 히브리어의 연속적인 역사에 대한 사후 발간된 시도들이다; Walike와 O'Connor[1990: 13-15]에 의한 더 나아간 주석들을 보라). 히브리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의 언어학적인 변화의 현존과 의의는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로의 관심이 그 언어의 증거적인 연속성으로부터 성서적인 텍스트의 독자들을 일탈시킬 필요는 없다.

### 2-1-3)페르시아와 헬레니스틱 시대.

바빌론 유수(기원전 586년) 이전의 유대 언어를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Classical Hebrew*와 그리고 페르시아어 시대의 히브리어를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Late Biblical Hebrew(LBH)*(이 용어는 Polzin 1976에 의한 그것의 사용 이후로 유행하게 됐다) 사이의 폭 넓은 구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Polzin에 의해 발전된 후기성서히브리어의 유형론은 유수 이후의 예언서들에서의 후기성서히브리어의 특색들의 몸체를 더듬는, A. Hill(WLSGF, 77-89)에 의한 성서 텍스트들의 많은 자료들에 최근보다 확장됐다. Hill의 연구에서 시도된 상대적인 날짜와 절대적인 날짜의 일치(저자가 유의한 바[p. 84] 대로) 반드시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연구들은 히브리어의 언어학적인 통시적인 주장들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후기성서히브리어의 특징들 중의 몇몇은 그 유수 이후에 히브리어 화자들에게 의한 아람어의 증가된 사용에 기인한다. 히브리어 이외의 다른 가나안어 언어들 의 영향으로부터 “유대 언어”의 말 공동체를 보존하려는 관심에 대한 증거가 성서 텍스트 그 자체에서 보여진다.(Neh 13:24; “Ashdod의 언어”는 아람어였으리라. 그러나 그 특별한 명칭은 Canaanite의 한 방언임을 상정케한다). 신의 율법은 “선명하게”(히브리어 *mēpōraš*; RSV marg. “with interpretation”[해석하여]) 읽혀져야 한다는 Neh 8:8의 진술은 유수 이후 시대에서는 *고전히브리어*가 더 이상 일반 주민에게 충분하게 지성적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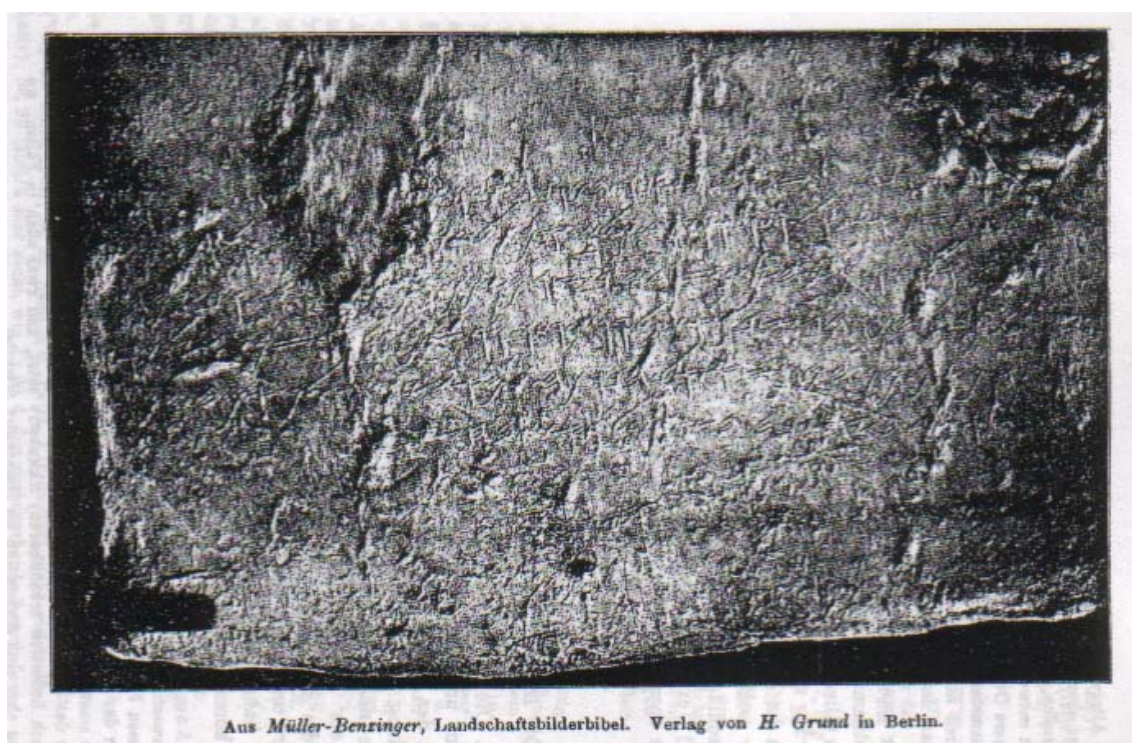
**2-1-3-1)헬레니스틱**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계속하여 문어(*literary language*, 文語)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날짜가 매겨질 성서들은 더 나아간 언어학적인 변화의 증거를 보여준다. Qohelet 언어가 종종 많이 연구됐다. 그 책의 내용은 헬레니스틱 영향의 각인에 기여한다(그 언어에 관하여는 Delsman 1982와 Fredericks 1989[날짜매김이 늦은 것에 반대하여]을 보라. 그러나 Schoore 1989의 이의제기에 유의하라). 노래중의 노래(*song of songs*)는 언어학적인 주장들에 크게 근거하자면 헬레니스틱 시대에 거의 공통으로 자리매김된다(Eissfeldt 1965: 490, 766). *Esther*도 아마 마찬가지로 헬레니스틱 시대의 산물일 것이다(Eissfeldt 1965: 510). *Daniel*의 히브리어 부분들의 날짜는 논쟁이여왔다. 기원전 167년 이후 날짜나 일반적으로 주장된다.

[성서 외경의] 집회서(Ecclesiasticus) 또는 Sirach의 아들 Jesus의 지혜는 기원전 180년 경 히브리어로 작성됐다. 그러나 그 히브리어 텍스트는 수 세기 동안 무시됐다가 단지 현대에 이르러 재 발견됐다(Di Lella 1966; Skehan과 Di Lella Wisdom

of Ben Sira AB, 51-61). 기원전 132 년 이후에 Ben Sira의 손자에 의해 생산된 그리스어 번역이 그 위경의 책들에 포함된다.(Philip C.Schmitz) ///.

## /2-2)고대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와 포에니어.

2-2-1)고대 히브리어. (Gesenius, Eng., 9쪽)페니키아 비문들은 별도로 하고 그리고 구약성서를 예외로 하면, 고대 히브리어 유물 또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문헌은 단지 아주 적은 수만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이런 후자(가나안사람들의 유물) 중에 ㄱ)사해 동쪽에서 약 12 마일 떨어진 Reuben 지파의 고대 영토, 더 이른 때에는 Gadites이 그 후에는 Moabites가 거주했던 Dibôn(지금의 Dibôn)의 도시 폐허들 속에서 발견된, 서른 네 줄로 된 그러나 불행히도 많이 손상된 *비문 안의 Moabite 왕 Mēša'* (약 850 년 경)는 이스라엘(열왕기하 3장 4절 이하)과의 전쟁과 자신의 건물들과 다른 문제들을 기록한다. 고대 히브리어 유물들 중의 하나인 ㄴ) 아마 기원전 8 세기 여섯 줄로 된 비문은 1880 년 6월에 Virgin's Spring과 예루살렘 Pool of Siloam 사이의 tunnel에서 발견됐다.



(윗 사진: 실로암 비문). 불행히도 날자가 기록되지 않았지만(not dated)언어학적으로 그리고 고서체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터널 뚫기에 관련되는 비문의 복사

본(facsimile)이 이 문법의 시작에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Lidzbarski, Nordsemitische Epigraphik, i. 105, 163, 439(참고문헌, p. 56 ff.; fascimile, vol. ii, plate xxi, i)을 보라. Socin(ZDPV. xxii. p.61 ff. 그리고 Freiburg에서 따로 출간된 것 i. B. 1899)에 의한 그것의 새로운 묘사에 관해서는 Liszbarski, Ephemericis, i. 53 ff. 그리고 310 f. (text in Altsemit. Texte, p. 9f.). 그 여섯 줄들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던 어떤 비문의 연속이라는 A.Fischer(ZDMG. 1902, p. 800 f.)의 견해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는 Lidzbarski, Ephemericis, ii, 71을 보라. 그 비문은 1890 년 이동 도중에 깨져 6 또는 7 조각 나뉘었으나 후에 잘 복구되어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의 Imperial Museum에 있다. 만약 결코 의심될 수 없을 것처럼 קלל 라는 이름(이사야 8장6절)이 그 Vrgin's Spring으로부터 그 터널을 통해(그래서 Stade, GESch. Isr. i. 594) 물의 퍼냄을 지시한다면, 후자(터널) 그래서 그 비문은 이미 약 기원전 736 년 경에 존재했을 것이다[ Cooke, op. cit., p. 15 ff 참조할 것]. ㄷ)약 40 여 개의 깨진 돌-인장(seal, 印章) 중 어떤 것들은 바빌론의 유수 이전의 것이지만 고유명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니고 있는 것이 없다[M.A. Levy, Siegel u. Gemmen, &c., Bresl. 1869, p. 33 ff.; Stade, ZAW. 1897, p. 501 ff.(1896 년에 출간된 네 개의 고대-셈어 인장들); Ephemericis, i. 10 ff.; W.Nowack, Lehrb. d. hebr. ARchäol.(Freib. 1894), i. 262 f.; I.Benzinger, hebr. Archäol.<sup>2</sup> (Tübingen, 1907), pp. 80, 225 ff., 벤징어의 이 기고문은 לשמע עבר ירבעם 라고 새겨진, Megiddo의 언덕 성체로부터 1904 년에 발굴된 아름다운 인장을 포함하고 있다(Cooke, p. 362 참조). ㄹ)Maccabaeen 군주 Simon과 그 후계자들의 화폐(석방 2년 짜부터, 기원전 140-139년) 그리고 Vespasian 과 Hadrian 시대 때의 주조된 화폐.

구약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윗 단락에서 설명된 비(non, 非)-성서적 유물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의, 고대 히브리어의 일련의 전체 글(Writings)들에 있어서의 그 언어는 자음의 형성으로부터 판단컨데 그것의 일반적인 철자(character, 특성)에 관련되는 한 그리고 발전의 동일한 과정에서의 모양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변화와 그리고 스타일의 차이를 별도로 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형태로 초기 시대에 그 언어는 문어언어로서 고정됐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 포함된 책들은 신성한 글들로서 전달됐다는 사실이 그 모양의 꾸준한 이런 일정(uniformity, 一定)함에 반드시 기여했음에 틀림없다.

**2-2-2)페니키아어와 포에니아어.** 이런 고대 히브리어에 가나안 사람들 또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어계(stock, 語系)가 다른 모든 셈어들보다 가장 근접해 있다. קנען קנען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해변에 그리고 레바논 가까이에 거주하는 자들 이 양자(兩者)에 공통인 토착민의 이름이다. 반면에 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화폐에서 כנען 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카르타고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다. 페니키아인들과 가나안사람들의 어계가 고대 히브리어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양(형식)과 의미를 지닌 사람들과 지역들에 관한 많은 가나안 이름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명해진다—예를들어 מֶלֶךְ מְלִיִּי-צָרְקָה 등 등. 기원전 약 1400 년 경 Tell-el-Amarna의 썰기문자 표들의 앗시리아 낱말로 나타나는 ‘Canaanite glosses’(가나안사람들의 광택)에 대해서는 H.Winekler의 ‘Die Thontafeln con Tell-el-Amarna,’ in Keilinschr. Bibliothek, vol. v, Berlin, 1896 f.와 비교하라[Transcription과 Translation]. 그리고 J.A.Kudtson(Die El-Amarna-Tafeln, Lpz. 1907 f.)와 H.Zimmern,(ZA. 1891, p. 154ff. 와 KAT.<sup>3</sup>, p. 651 ff.)와도 비교할 것. 나아가서 페니키아인들과 가나안사람들의 어계가 고대 히브리어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페니키아 사람들과 포에니 사람들의 언어들의 많은 유물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명해진다.

포에니어와 페니키아어를 우리는 Gesenius, Judas, Bourgade, Davis, de Vogüe, Levy, P.Schröde, v. Maltzan, Euting에 의해서 모아졌던 많은 비문들과 화폐들에서 그러나 특히 the Corpus Inscriptionum Semiticarum(Paris, 1881 ff.)의 제 1 부에서 그들의 독특한 글쓰기와 더불어 발견한다. 비문들 중에서는 예를들어 희생제물의 두 가지 목록과 같은 단지 몇몇의 공문서(public documents, 公文書)들이 발견됐다.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것은 묘비명(epitaphs, 墓碑銘)들과 봉헌표들이었다. 이것들 중 특별히 중요한 것은 1885 년에 발견되어 지금은 프랑스 Louvre 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시돈(sidon)의 왕 Ešmūnazar의 석관(sarcophagus, 石棺)에 새겨진 비문이다. Lidzbarski(Nordsem. Epigr., i. 23 ff.)문헌목록을 보고, 이 비문에 대해서는 i. 97 ff., 141 f. 417, ii. plate iv, 2 그리고 Cooke, p. 30 ff.를 보라. 이것들에 그리스와 라틴 저술가에서 그리고 Plautus(Poenulus 5, 1-3)의 포에니어 텍스트들에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낱말들이 더해질 수 있으리라. 플라우투스(Plautus)의 포에니어 텍스트는 Gildemeister의 ‘Ritschl’s editon of Plautus, Lips. 1884, tom. ii, fasc. 5’에서 가장 잘 다루어진다. 이러한 기념물들로부터 우리는 토속적인 정서법(orthography, 正書法)을 배우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필사본들에서는 발음과 모음찍기를 배운다. 이 두 가지 것은 함께 우리에게 그 언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선명한 관념과 그 언어가 히브리어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를 제공한다.

페니키아어(포에니어)의 다음과 같은 낱말들이 비문들에 나타난다: 예를들어 טַר(Tyre, 튀레) צִדוֹן(sidon, 시돈) עֵת(time, 시간) מֶלֶךְ(king, 왕) בַּת(daughter, 딸) בֶּן(son,

아들) מֵאָדָם(man, 남자) אֱלֹהִים(God, 신) ....

페니키아어의 정서법과 변화에 있어 히브리어와 다른 점은 모음문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탈락[קִיב 대신에 קִל(소리), בֵּית 대신에 תֵּב(집)]; 심지어 절대형에 있어서 조차 어미 א(ó)뿐만 아니라 א(ath)로 끝나는 여성명사[אִשָּׁה(페니키아어), אִשָּׁה(히브리어 관계대명사)].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i가 규칙적으로 ú로 발음되는 특히 포에니어와의 발음차이다[예를들어 שָׁלוֹשׁ(sālûs, three)]. 그리고 i와 o는 자주 y의 애매하게 무더진 소리로 나타난다[예를들어 יָנִינִי(ynnynnu, ecce eum)]. 문법에 있어서의 독특한 것들을 취합해 놓은 Gesenius의 ‘Monumenta Phoenicia’(p. 430 ff.)와 B.Stade의 ‘Erneute Prüfung des zwischen dem Phönice. und Hebr. bestehenden Verwandtschaftsgrades, in the Morgenländ. Forschungen, Lpz. 1875, p. 169 ff.’와 Paul Schröder의 ‘Die phöniz. Sprache, Halle, 1869’를 참조하라.

### 2-3) 바빌로니아 유수 그 이전과 이후.

9쪽에서 언급된 기념물이나 주화들 위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단지 자음들로만 구성되므로 마찬가지로 구약책의 저술가들 역시 단지 자음-기호들만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그 회당에서 사용된 율법이 쓰여진 스크롤들은 고대관습에 따라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만 했다. 이런 자음 텍스트의 현재의 발음과 그것의 모음찍기(vocalization)와 액센트화(accentuation)는 유대 학교들의 전통에 의거했으며, 마침내 그것은 기원후 7세기 경의 유대 학자들에 의해 도입된 구두점(punctuation, 句讀點)의 체계에 의해 고정됐다.

**2-3-1) Canaanitish-Hebrew 언어의 발전의 가장 이른 국면은 즉 통합(united, 統合)된 셈어군의 공통 언어에 그 언어가 보다 가까울 때의, 쓰여진 현존 문서들에 보다 앞서서 그것의 형식은 여전히 그 주요 특색들에 의해서 분별될 수 있다: --**  
ㄱ) 전통적인 텍스트에, 특히 시적인 스타일에 주로 발생하는 격리된 형들 뿐만 아니라 보다 이른 시기부터 날짜가 매겨지는 사람들과 장소들의 이름들에 보존된 많은 원시형(archaisms, 原始形)들로부터; ㄴ) 율법들과 음성학적인 유추(analogies, 類推: 기존 어구를 모델로 하여 새로운 어구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따라 그들이 그 언어의 보다 오래된 구들에 선명하게 구두점을 찍는(point to) 한, 일반적으로 전통형식들로부터의 아포스테리옴한 결론에 의해서; ㄷ) 그 언어의 이런 보다 초기 국면이 자주 심지어 후대에 까지 내려와 그 안에서 보존됐던 친족 언어들 특히



아랍어와의 비교에 의해서. 언어적인 현상들을 검토하는 도중의 수많은 예들 속에서 동일한—그리고 따라서 그 만큼 더 확실한—결과가 이런 세 가지 방법들 각각에 의해서 얻어진다. 비록 위에서 가리켜진 언어학적인 발전의 체계적인 탐구가 비교 셈어문헌학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될 수 있는 한의 근본형들을 지시하고 그리고 아랍어 내에 상응하는 형들을 비교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학문적인 고찰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문제의 그 근본형(ground-forms, 根本形)들이 단지 ‘원시 셈어’로 기술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기서는 결정될 수 없을 문제이다. 심지어 구약에서 발생하는 그 히브리어의 형(forms, 形)들을 다루는 요소적인 문법은 그것들의 설명을 위해서 자주 이런 근본-형들의 지시를 요구한다.

심지어 그것의 일반적인 일정성(uniformity, 一定性)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언어에서조차 보다 이른 국면에서 보다 늦은 국면으로의 어떤 주목할만한 진행이 있다. 비록 몇몇 보류들에도 불구하고, 첫째 **바빌로니아 그 유수 끝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둘째 **그 유수 이후의** 두 시기들이 구분될 수 있으리라.

**2-3-2) 그 유수 이전.** 보다 후의 개정의 격리된 흔적들과는 별도로 전자에는 아주 많은 반(half, 半)이상의 구약책들이 속한다. 즉 아) 모세오경과 여호수와의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역대서들의 큰 부분인 산문과 역사적인 저술들의; 야) 아마 시편들과 잠언들의 어떤 부분인 시적인 것의; 어) 잇따르는 연대적인 순서에 있어서의 (다양한 보다 후의 덧붙혀진 것들과는 별도로) 보다 이른 예언서들의 저술들: Amos, Hosea, Isaiah I, Micah, nahum, Zephaniah, Habakkuk, Obadiah(?), Jeremia, Ezekiel, Isaiah II(ch. 40-55). 이 시기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학의 시작은 모세의 시대 만큼 이른 시기에 의심할 것도 없이 놓여진다. 비록 여전히 아주 다른 언어자료들이 그 안에서 인정되는 현재 형식의 모세오경은 모세 이후 수 세기 동안의 점진적인 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is to be)는 해도 말이다. גַּיְרָה girl 대신에 נַעַר boy, youth, 그리고 אִיָּה 대신에 אִוָּה의 양성통용(epicene, 兩性通用)의 쓰임새와 같은 그런 보다 후의 편집자 탓일 뿐이었던 것이 한 때 시원형으로 한 때 관습적으로 간주했던 모세오경의 어떤 언어학적인 독특함들. 모세 오경의 다양한 자료(strata)들이 언어학적인 특성은 Ryssel, De Elohistae Pentateuchici, sermone, Lpz. 1878; König, De criticae sacrae argumento e linguae legibus repetito, Lpz. 1879(창세기1-11의 분석); F.Giesebrecht, ‘Der Sprachgebr. des hexateuchischen Elohisten,’ in ZAW. 1881, p. 177 ff., 부분적으로 Driver in the Journal of Philology, vol. xi. p. 201ff.에 의해 수정됐다;

Kräutlein, Die sprachl. Verschiedenheiten in den Hexateuchquellen, Lpz. 1908.—풍부한 자료(matter)들이 마찬가지로 Holzinger, Einleitung in den Hexateuch, Frreib. 1893; Driver,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sup>8</sup>, Edingurgh, 1908; Strack, Einleitung des A.T.<sup>6</sup>, Munich, 1906; König, Einleitung in das A.T., Bonn, 1893.에 의해 제공된다.

심지어 약 600 연 동안을 끼안는 이 첫 시기의 저술들에서조차, 기대될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작성 시간과 장소의 다름들에 부분적으로 작자들의 개별성과 재능에 기인하는 언어학적인 형식과 스타일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다름들에 직면한다. 예를들어 그래서 이사야는 보다 후의 에레미야와 아주 다르게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신과 동시대인인 Micah와도 다르게 글을 쓴다. 이 시기의 역사서들 중에서 초기 재원들로부터 빌려와진 텍스트들은 가장 늦은 편집자 자신에 속하는 보다 후의 재원들 또는 글월들로부터 패생된 것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언어학적인 색채를 지닌다. 그렇지만 그 언어의 구조는 그리고 격리된 경우와는 별도로 심지어 어휘와 말투조차 전체적으로 특히 그 산문(prose, 散文)책들에 있어 동일하다.

**2-3-3)히브리인의 시적인 언어.** 그러나 *시적인 언어*는 보다 더 엄밀하게 균형잡힌 (평행적인) 절(members, 節)들과 규정된 운율(metre, 韻律)에 기인하는 리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산문에 일상적인 것들에 덧붙혀 사용하는 특별한 낱말들과 의미들과 어형변화(inflexions, 語形變化)과 구문론적인 구조들에 의해서도 산문들과 많은 길들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예를들어 그리스어에 있어서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시적인 독특함들 중 많은 것은, 특히 아람어에서, 표현의 일상적이 어투(modes)들로서 친족 언어들 안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아마 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시원형으로 대부분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마 몇몇은 아람어를 알고 있었던 히브루 시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채용했던 장식(embellishments, 裝飾)들이리라. 이사야 시대(기원전 8세기 후반부)에 이미 교육받은 히브리인들 또는 최소한도 공직자들은 아람어를 이해했던 반면 예루살렘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2K18<sup>26</sup>(Is 36<sup>11</sup>)로부터 분명하다.

최소한도 보다 일찍 언어와 리듬에 있어 예언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문장들이 자주 보다 더 길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시인들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리고 대구법(parallelism, 對句法)은 시인들이 고유하게 그렇게 불렀던 경우보다 덜 규칙적이고 균형잡힌다. 대조적으로 보다 늦은 예언자들의 언어는 산문에 더 가깝다.

히브루 시의 리듬에 관해서는 시적인 책들에 관한 주석들과 입문서들 이외에도 O.T.Ley, Grundzüge des Rhythmus, &c. Halle, 1875; Leitfaden der Metrik der hebr. Poesie, Halle, 1887; “Die metr. Beschaffenheit des B.Hiob,” in Theol. Stud. u. Krit., 1895, iv. 1897, i; Grimme, ‘Abriss der bibl.-hebr. metrik,’ ZDMG. 1896, p. 529ff., 1897, p. 683ff.; Psalmenprobleme, &c., Freiburg (Switzerland), 1902 (이것에 관해서는 Beer in ThLZ. 1903, no. 11을 보라); ‘Gedanken über hebr. Metrik,’ in Altschüler’s Vierteljahrschrift, i (1903), 1 ff.; Döllner, Trhythmus, Metrik u. Strophik in d. bibl.-hebr. Poesie, Paderborn, 1899; Schloegel, De re metrica veterum Hebraeorum disputatio, Vindobonae, 1899(Grimme과 동일한 일련의 것에 관해); 그러나 특히 Ed. Sievers, Metrische Studien: i Studien zur hebr. Metrik, pt. I Untersuchungen, pt. 2 Textproben, Lpz. 1901: iii Samuel, :pz. 1907; Amos metrisch bearbeitet(H.Guthe와 함께), Lpz. 1907; 그리고 그의 Alttest. Miscellen (1 Is 24-27, 2 Jona, 3 Deutero-Zechariah, 4 malachi, 5 Hosea, 6 Joel, 7 Obadiah, 8 Zephaniah, 9 Haggai, 10 Micah), Lpz. 1904-7. --Sivers의 체계에 대한 안내로서(그의 원리들에 관한 어떤 비판과 함께 Baumann, ‘Die Metrik u. das A.T.,’ in the Theol. Rundschau, viii (1905), 41ff.; W.H.Cobb, A criticism of systems of Hebrew Metre, Oxford, 1905; Cornill, Einleitung ins A.T.<sup>5</sup>, Tübingen, 1905, p. 11ff.; Rothstein, Zeitschr. für d. ev. Rel.-Unterricht, 1907, p. 188ff. 그리고 그의 Grundzüge des hebr. Rhythmus, Lpz. 1909 (마찬가지로 따로 Psalmentexte u. der Text des Hohen Liedes, Lpz. 1909); W.R.Arnold, ‘The rhythms of the ancient Heb.,’ in O.T. and Semitic Studies in memory of W. R.Harper, i, 165ff., Chicago, 1907, 하퍼에 따르면 비트들(beats)사이의 많은 음절들은 단지 음성학의 생리학적 인 가능성들에 의해 한정될 뿐이다.; C.v.Orelli, ‘Zur Metrik der alttest. Prophetenschriften,’ in 그의 Kommentar zu den ka. Propheten<sup>3</sup>, p. 236ff., Munich, 1908. --Sievers와 의 충분한 일치속에서 Baethgen, Psalmen<sup>3</sup>, p. xxvi ff., Göttingen, 1904. [Cf. Budde in DB. iv. 3 ff.; Duhm in EB. iii. 3793 ff.]’

이런 문제의 모든 견해들에 관해, 단지 일반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Qina- 또는 Lamentation- Verse의 Ley와 Budde의 발견이었다(ZAW. 1882, 5 ff; 1891, 234 ff.; 1892, 31 ff.). 이들의 선행자들 Lowth, de Wette, Ewald에 관해서는 Löhr, Klagelied<sup>2</sup> p.9를 보라. Duhm에 의해 ‘긴 행(verse, 行)’이라고 불리운 이런 행은 Sievers에 따르면 단지 두 번째 것이 다른 것 보다 최소한도 더 짧은 비트인 두 절(members, 節)들로 구성된 ‘다섯-음절로된’(Fünfer) 것이다. 강음부(arsis, 強音部) 와 약음부(thesis, 弱音部) 에서의 똑 같은 수의 음절들의 규칙적인 반복이 다

른 시인들에 의해서 준수됐다는 것이 Ley, Duhm, Gunkel, Grimme와 다른 자들 특히 그 절들이 현실적으로 표시된 바빌로니아 찬양시를 인용한 Zimmerin에 의해 확정됐다(ZA. x. 1 ff., xii. 382ff.; cf. 마찬가지로 delitzsch, Das bsbyl. Weltsschöpfungsepos, Lpz. 1896, pp. 60ff.). 그러나 최근에 미누한의 다른 영역들에서의 metre에 관한 인정된 권위자인 E.Sieves는 위에 언급된 저서들에서 자주 Ley와 다른 자들의 결론들에 의해서 확인됐던 많은 신선한 사실들과 견해들을 표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의 것들과 같다: --

시각의 모음량(quantitative, 詩脚)으로부터 고전적인 그리고 아랍적인 그리고 시리아 음절적인 verse(절, 節)와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히브루 시(poetry, 詩)는 액센트적(accentual, 強勢的)이다. 그러나 비트들(ictus 강음 強音, beats) 사이의 강제없는(unstressed, 強勢) 많은 음절들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리듬적인 변화(예를들어 ictus를 두개의 음절들로 분해한다거나 또는 더블 액센트(double accent)를 주기 위해 강음부(arsis, 強音部)를 길게하는 것)와 예를들어 첫 두 음절들의 축약을 겪는 비규칙적인 아나파이스트(anapaest: UU-, 단단장격, 短短長格)에 근거한 운율(verse) 도식을 지닌다. 운각(foot, 韻脚)은 항상 익투스(강음, 強音)으로 끝난다. 그래서 텍스트의 훼손이나 발음의 변화로 인한 가락없는(toneless) 어미들은 비록 대체적으로 그 익투스가 히브리 단어 액센트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무시될 수 있다. 운율적인 도식은 일련의(series) 2 또는 3 또는 4 개의 운각들(feet)의 그리고 다시 악절(periods, 樂節) 속의 이 운각들의 연결들로 구성된다—담화체에서는 세 번, 아주 자주 네 번 겹침(doble three), 비탄(Lamentations, 悲嘆)들과 그 이외의 곳에서 아주 자주 다섯 번 겹침, 그리고 일곱 번 겹침. Sievers는 마지막 두 운율 곧 다섯 번과 일곱 번 겹침을 각운이 1 음절 적은 운율(catalectic)인 세 번 그리고 네 번 겹침으로 간주한다. 연결된 부분들이 항상 내 내 동일한 운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섞어진 운율들을 드러낸다.

순수한 시적인 글월들의 분석에 있어서의 이러한 체계는 자주 쉬이 확인되며 그리고 주석들의 제거와 같은 텍스트와 문어적인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이상 의심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도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그것을 예언적인 저술들로 그리고 여전히 담화(narrative, 談話)에도 더 확장하는 것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ㄱ) 예를들어 소유 구문 상태(state)와 같은 문법적인 연결이나 선명하게 표시된 대구법을 희생함에 의해서만 자주 요구된 수의 운각들이 단지 획득될 뿐이라는 것; ㄴ) 전체 체계는 그 어느 것에도 최소한의 정당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와 그 발음의 정확한 전달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 요약하면, 비록 텍스

트가 전달되는 그 길을 숙고함에 있어 운율들의 오류없는(faultless) 배열이 기대 될 수 없기는 해도 Sievers에 의해 설정된 원리들로부터 현재의 우리 결론은 시의 경우에는 보증된 그리고 최종적인 고유한 어떤 결과들이 이미 획득 돼 있으며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기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언서들과 그리고 a fortiori 담화체에서의 동일한 운율적인 도식들의 일관적인 사용의 설득적인 증거가 거의 행해질 수 없다.

D.H.Müller의 위대한 저서, Die Propheten in ihrer ursprüngl. Form (2 vols., Vienne, 1896; cf. 그의 Strophenbau u. Responion, ibid. 1898, 그리고 Komposition u. Strophenbau, ibid. 1907)은 스트로페(strophie, 유절, 有節)구조의 관점과 그리고 자체 된 즉 다른 스트로페에 상응하는 위치들 내에서의 동일한 또는 비슷한 구나 단어 들의 반복 사용으로부터 초기 셈어적인 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념비적 연구이다.

초기 쓰기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운문(verse, 韻文)-형식의 어떤 시적인 글월들의 배열(Ex 15<sup>1-19</sup>; Dt 32<sup>1-43</sup>; Ju 5; 1S 2<sup>1-10</sup>; 2S 22, 23<sup>1-27</sup>; ψ 18, 136; Pr. 31<sup>10-31</sup>; 1Ch 16<sup>8-36</sup>; cf. Jo 12<sup>9-24</sup>; Ec 3<sup>2-8</sup>; Est 9<sup>7-10</sup>)은 위의 감각에서의 운율(meter, 韻律)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산문들에서는 관습적으로 다른 것들이 사용되는 시어(words are used in poetry, 詩語)들이 있다. 예를들어 מַנְיָן man = מָנָן; אֶרֶץ path = אֶרֶץ; מִלָּה word = מִלָּה; הִקֵּי to see = הִקֵּי; הִקֵּי to come = בּוֹא.

의미있는 시어에는 어떤 시적인 형용어귀를 명사로 사용함이 속한다. 그래서 예를들어 אֲבִיר(단지 אֲבִיר의 명사 축약에서만)the strong one for God; אֲבִיר the strong one for bull, horse; לְבָנָה alba for luna; אֶיב enemy for אֵיב.

낱말-형성에 관하여 우리들은 예를들어 장소 전치사의 더 긴 형들에 유의할 수 있으리라. עָלַי = עָלַי, אֶלַי = אֶלַי, עָרַי = עָרַי; 어미들 י, 명사에 있어서의 i; 대명사 접미어들 מ, מ, מ 대신에 מו, מו, מו; 복수 어미 ים 대신에 י. 구문론에는 관사와 관계 대명사와 4격 불변화사 א의 극도의 절약적인 쓰임새 그리고 심지어 전치사 앞의 연계형(sonstruct state 連繫形) 그리고 일상적인 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짧아진 미완료 그리고 전치사들의 더 넓어진 지배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현의 다그쳐지는 간결성이 속한다.

**2-3-4) 그 유수 이후.** 그 유수에서의 귀환 후부터 Maccabees(약 기원전 160년)까지의 히브리어와 문학의 두 번째 기간은 그 언어가 친족 서부아람어 방언에 보다

더 일관되게 유사해짐에 의해 주로 구분된다.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최근의 그리고 희박한-인구밀도를 지닌 식민지와 밀접히 접촉하며 살았던 그리고 이들의 방언이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서 반부의 공식 언어로서 이미 중요함을 획득했던 *Aramaean*s의 영향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의 자리에 아람어가 대신 들어 앓음은 단지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Sirach의 아들 Jesus와 그리고 다니엘 서의 근원적인 히브리어와 같은, 대중적인 쓰임새를 의도하는 그런 글쓰기는 기원전 170년 경의 히브리어는 여전히 문어로서 사용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어는 여전히 최소한도 그 민족에 의해서 이해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분적으로 Midrašim과 Mišna와 Liturgy 안에서 우리에게 보존되고 있는 대중적인 종교적 문헌에 있어서의 히브리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히브리어가 이것 보다 훨씬 더 후에 폭 넓게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더구나 가리킨다. M.H.Segal, 'Mišnaic Hebrew and its relations to Biblical Hebrew and Aramaic,' in K.Q.R., 1908, p. 647ff.를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참조하라. **마침내 살아있는 언어로서 존재하기를 그쳤을 때 그 히브리어는 여전히 학교의 언어로서 보존돼고 있었다**—유대인들에 의해 말해진 아람에 들어 온 많은 Hebraisms(히브리어 어법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Kautzsch, Gramm. des Bibl.-Aram., pp. 1-6을 보라. 북부 독일의 High and Low German의 그것과 또는 남부 독일과 Switzerland에서의 High German과 common dialects(공통방언)의 그것과 비슷한 관계를 이 후기에 공-존했던 언어들이 맺고 있었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심지어 교육을 많이 받았던 자들 중에서도 공통 방언이 구어적으로( orally) 우세한 반면 High German은 본질적으로 문어적이고 교양적인 언어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통방언은 최소한도 국민의 모든 계층들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유수(the exile, 幽囚) 이후에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었으며 따라서 성서의 번역이 필요했다는, Neh<sup>8</sup>의 그릇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관념은 전체적으로 지탱될 수 없는 바의 것이다.

아람어 색채가 다양한 정도에서 나타나는 이 두번째 시기에 속하는 구약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와 룻기의 어떤 부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에스터의 책들; 학개, 스가랴, 이사야 3장 56-66, 말라기, 요엘 요나, 다니엘의 예언적인 책들; 시적인 책들 중에서 잠언의 아주 많은 부분, 읍, 시편, song of songs(노래중의 노래), 그리고 시편 대부분. 문어적인 저작들로서의 이런 책들은 때로 첫 번째 시기의 그것들 보다 훨씬 질이 낮다. 비록 언어의 순수성과 미학적인 가치들이 거의 황금기의 저술들에 가깝기는 해도 말이다.

후기 낱말들(Aramaisms, 아람어어법)들에는 예를들어 **קִּיּוּן** declaration, **מִןּ**

compel, בָּר son, יָר chalk, זָמַן = עַת time, רָקַץ raise up, חָסַד Pi reproach, מַלְל Pi roof over, מָטָה stray, רֶבֶךָ rock, מַלְךְ advice, קָץ = קָץ end, קָבַל = לָקַח take, רָעַע = רָעַץ break, שָׂנְא be many, שָׁלַט = מָלַךְ rule, חָזַק = חָזַק be strong.—후기 의미들에는 예를들어 אָמַר (to say) to command; אָנַח (to answer) to begin speaking.—정서법적 그리고 문법적인 독특함들에는 ו and י의 혼한 scriptio plena, 예를들어 וָוִיך (다른 곳에서는 וָוִך) —소 예언서(minor Prophets, Ho 3<sup>s</sup>, &c.)에서는 내내 וָוִיך가 단지 맛소라 주의자들의 변덕(a caprice of Masorettes, 變德)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קָדַש 대신에 קָדַש, קָדַש, רָב 대신에 רָב; 마지막 הָ and אָ의 상호교환; ו, ו, ו에서의 명사적인 더 혼한 쓰임새 등 등. Dav. Strauss, Sprachl. Studien zu d. hebr. Sirachfragmenten, Zürich, 1900, p. 19ff.를 참조; 시편을 위해서는 Cheyne, Origin of the Psalter, p. 461 ff., 그리고 특히 Giesebrecht in ZAW. 1881, p. 276ff.; 일반적으로 Kautzsch, Die Aramaismen im A.T. (i, Lexikal. Teil), Halle, 1902.

그러나 이런 후기 저술가들의 모든 독특함들이 아람어어투들은 아니다. 여러 가지 것이 아람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고 보다 더 이른 시기에 히브루 모국어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 특히 그 히브루 모국어는 북부 팔레스타인의 그것처럼 보인다. 다른 것들 중에는 유대의 어떤 부분들이 예를들어 후에 Jonah, Lamentations, the Song of Songs, the later Psalms, 그리고 Ecclesiastes에서 되풀이되는 אָנַח 대신에 (אָ and 마찬가지로) 페니키아어의 공통형인 אָ에 의해 가리켜지고 있는 바 그대로 거기에서 기원했으리라. (Gesenius, Eng. 17쪽) /

**2-4)성서히브리어의 질들(Qualities of Biblical Hebrew).**—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재료는 그 자체 부족하고 불충분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휘의 작음과 그리고 부사와 형용사와 추상명사들의 결핍(Pauctiy, 缺乏)이 도드라진다. 첫 번째 어려움은 전치사 구와 조동사들과 그리고 비슷한 장치들에 의해서, 두 번째 어려움은 동격 또는 기술(descriptive, 記述)적인 소유격에 의해서 제거한다. 그 유수 후에 단지 자주 직면케되는 추상명사들의 부족은 여성 단수 또는 복수 형용사에 의해서 회피된다. 그래서 rā'ah(여성 단수)는 “사악함”을 그리고 qāšzt(여성 복수)는 “무자비한 것들”과 “무자비함”(harshness)을 나타낸다. 다른 특색은 구체적인 형식으로 추상적인 형식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kābēd “was heavy”(무거웠다)는 마찬가지로 “was honourable”(명예로웠다)도 뜻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거운 기관으로서의) kābēd, “liver”와 kābōd, “abundance”와 “honour”가 양자가 파생된다. 그 반대로 mōda’ “acquaintance”와 같은 추상명사가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

는 것은 후기(lateness, 後期)의 신호이다.

시 보다는 연구된 사유의 한정된 표현과 추상적인 주제의 다름을 위해 히브리어는 덜 적절했다. 관념들의 훨씬 미묘한 연결들을 표현하기 위한 불변화사(particles, 不變化詞)가 아주 부족했다. 의미의 사소한 변경(modification, 變更)을 가리키기 위한 낱말 또는 어형변화(inflections)들이 거의 없다. 비록 다른 셈어처럼 히브리어도 가능하게 지금은 맞소리학자들에 의해서 애매하게 되버린 길로 동사적 법(moods法)들을 이전에 구분했어도 말이다. 시제의 쓰임새는 완수되지 않는 것들을 완수된 것으로 그리고 과거를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실행된 것으로 간주했던 상상력에 의해서 특히 시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그러나 **살아있는(living) 히브리어는 결코 추상적인 관념들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되어야만 한다. 평범한 산문으로 추상적인 주제를 유일하게 건드렸던(alone grappled) 전도서는 고전 히브리어가 이미 죽어가고 있을 때 작성됐다.

**2-5)그 유수 이후의 발전(Postexilic Developments).**—구약의 언어는 자신의 긴 역사 안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반드시 겪어야 했다. 그러나 *맞소리 학자들*의 평균화 작업은 그것의 길어진 역사적 발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유수-이전 기간의 특히 산문에서 부분적으로는 작성 시간과 장소에 기인하는 부분적으로는 작자들의 개별성과 재능에 기인하는 형식과 스타일의 두드러진 다름들이 발견됐다. 그것들을 통해서 텍스트로 엮어진 다양한 문서들이 풀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구조와 그리고, 격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어휘와 표현법(phraseology, 表現法)은 아주 동일했다. 유수 이후의 문헌은 동계(cognate, 同系)인 서부 아람어 용법에 그 언어는 꾸준히 가까운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 과정은 아주 점진적이었다. 왜냐하면 **문어**적인 히브리어가 설령 **말해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소한도 기원전 2 세기의 그 민족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문헌에서의 그리고 사해로부터의 스크롤들(약 기원후 1-2세기)에서의 그리고 예배의식에서의 그리고 시에서의 그 언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그것이 그 이후로 여러 세기 동안 전적으로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적인 언어는 특별한 낱말들과 의미들을, 특히 전치사들의 형식과 대명사 접미어들과 격변화(inflections, 格變化)들과 구조들에 있어서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은 *그리이스어*로는 표시되지 않았다. 동계의 언어 특히 아람어에서 일상적인 쓰임새로 발견되는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단지 시에서만 히브리어로 생존하고 있는 **공통 셈어** 어휘로부터 자주 온 아마 시원어(archaisms, 始原語)들일 것이다. 다



른 경우에, 가능하게 히브루 시인들은 아람어 어투를 가지고 자신의 언어를 임의적으로 가꾸었다. 왜냐하면 기원전 8 세기 말엽에 아람어는 교육받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졌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람어 어투와는 별도로, 한정된 시적인 어휘가 있었다 예를들어 dersk, “way” 대신에 ’ōrah. 특히 명사를 형용사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들어 yārēāh “moon” 대신에 l’bānāh, “the white one”. 관사와 그리고 4 격 기호인 ’ēt는 자주 생략됐다. 관련 불변사들도 자주 생략됐다. 전치사들의 지배력은 확장됐고 시제들의 사용에 있어 허용된 광범위한 범위의 상상력은 서부 독자들에게 사건들의 진행을 자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표현의 강력한 간결성이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외래어들이 드물었다. ’ahû (Eg. ’h̄w), “reeds”와 qeset(Eg. gsty), “ink-born”과 같은 이집트어 그리고 šē’ôn(Ass. šēnu), “boot”와 같은 아시리아어 낱말들이 종종 아마 침략군들로부터 배워졌을 것이다. 바빌로니아어 pûru, “lot,”는 복수 pûrîm, “lots,”로 그 유수 이후의 축제를 가리키기 위해 도입됐다. 마찬가지로 dāt (pers. dāta), “law,”와 같은 페르시아어도 들어왔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아주 닮은 late Aramiac은 특히 그 유수 이후에 증가하는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했다. 아람어 낱말들과 형식들이 나타났다. Hebr. -āh는 여성명사들의 경우에 Aram. -â로 교체되기 시작했고, Hebr. dābār, “word,”는 Aram. mill’tā에게 히브리어화된 형식인, 심지어 동일한 책에서 두개의 복수형(Hebr. millîm과 Aram. millîn)을 지닌 millāh, “word”으로 자리를 양보했다. 히브리어 낱말들이 Hebr. nāšar가 Aram. nētar, “kept,”와 비슷한 nātar로 됐던 것처럼 때로 그 형식에 있어, 또는 Hebr. ta’am, “taste”가 Aram. te’ēm(cf. Ass. tēmu), “command”와 비슷한 “decree”를 의미하게 됐던 것처럼 때로 그 의미에 있어 아람어화 됐다. malkût, “kingdom,”와 같이 -ût로 끝나는 추상명사들이 흔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hašmā’ût, “proclaiming,”과 같이 아람어 모델에 따라 부정사(infinitives, 不定詞)로부터 형성됐다.

유수 이후의 이런 히브리어는 마찬가지로 다시 대부분 아람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타일의 과도한 단순성과 일정성(simplicity and uniformity)을 보여주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역의 공식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bilingual)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 targûmîm 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서의 아람어 버전들이 필연적이게 됐다. 그러는 동안 히브리어는 죽지 않은 채 점 점 l’šōn ḥākāmîm, “language of scholars”(학자들의 언어)가 됐다. 실로 later Scripture에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100 년 경부터 기원 후 100 년 사이의 기간 동안의 이 학자들

의 언어에 관해서는 사해 북서부 끝 동굴에 숨겨진 스크롤(문서)이 발견되기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은 미쉬나(Mishnāh, 약 기원전 200년 경)에서 크게 발전됐다.

## //2-6)고대 히브리어 방언(Ancient Hebrew)

고대 히브리어에 관한 우리의 얇은 시간적으로 기원전 12 세기부터(알파벳 학자(abecedary) 'Izbet Šartah는 그것을 Israelite라고 추측한다) 기원후 132-35(the Bar-Kokhba 편지)에 걸쳐, 모국어 화자에 의해 생산된 (수 백의 ostraca와 각인된 인장들을 포함한) 비문들과 마찬가지로 성서와 사해(쿰란, Qumran)문서와 미쉬나와 다른 랍비적 저술들로부터 온다. (관련문헌을 위해서는 Davidson 1901, Gesenius&Kautzsch 1910, Bergsträsser 1918-29, Bauer & Leander 1922, Joüon 1923, Segal 1927, Blau 1972, Bar-Asher 1972-80, BenḤayyim 1977, Haneman 1980, Kutscher 1982, Garr 1985, Yeivin 1985, Waldman 1989, 그리고 Malone 1991.)//

**/2-6-1)고대 히브리어.** 고대 히브루 문학의 현존하는 것들 안에 그 고대 언어의 전체가 저장되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구약 정경(canonical books, 正經)은 단지 전체 히브루인의 국가적 문학의 일 부분만을 확실히 형성하고 있다. 네델란드 학자 Leusden의 계산에 따르면 구약은 5.642 개의 다른 히브리어와 아람어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랍비적인 계산들에 따르면 79,856 개의 단어가 모세오경에 함께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E.Nestle, ZAW. 1906, p. 283; H.Strack, ZAW. 1907, p. 69 ff. ; Blau, 'Neue masoret. Studien, in JQR. xvi. 357 ff.은 구약에서의 Verseinteilung(ve sedivision) 및 많은 문자들과 낱말들을 다룬다. (Gesenius, Eng. 17쪽)/.

히브리어가 거기에 쓰여진 가장 이른 유물은 기원전 12세기까지 날짜가 메겨지며 그리고 그 언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역사를 지녔다.

히브리어는 다른 셈어 대부분과 공유하는 어떤 독특함들, 곧 (어쩌든 그 근원적인 형식에서는) 순수하게 자음적인 알파벳과 단지 두 개의 성(genders, 性)들만을 지닌다는 것과 그리고 3으로부터 10에 이르는 수들은 자신들이 한정하고 있는 명사들의 그것과 반대되는 성을 나타낸다는 것과 그리고 소유격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나 지배하고 있는 것 양자 모두가 격 변화한다는 것과 그리고 단지 두 개

만일 있을 뿐인 시제-형식들은 한 경우에는 어근들의 끝 부분에 붙어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어근들 앞에 지시대명사적 요소들로 붙어서 동사변화 한다는 것과 그리고 법(moods, 法)들과 태(voices, 態)들은 대부분 어간의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명령형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완료 형이 쓰인다는 것 등 등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상(aspects, 相)들도 봉사하는 그 두 시제-형식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 비슷한 것을 피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동부 셈어와 서부 셈어의 요소들이 히브리어에서 합쳐졌다는 추측에 근거해서 아마 설명될 수 있을 독특함이다.

**2-6-2) 고대 히브리어 관련 언어들.**—여러 셈어들로부터의 요소들이 히브리어 구성(composition)에 기여했다. 나아가서 몇몇 원시적인 낱말들이, 고고학이 보여준 바대로, 한 때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비(non, 非)-셈어족들로부터 왔으리라. 이집트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의 문서들은 *히브리어를 닮은 서부 셈어(Canaanite, 가나안사람들)언어가 히브리인들이 도래(coming, 到來)하기 전에 가나안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원전 16세기부터 계속 이집트 문서들은 어떤 것들은 다양한 셈어들과 공통이며 다른 것들은 Syro-Canaanite(시리아-가나안 사람) 언어나지에 독특한 약 1,200개가 넘는 셈어 낱말들을 드러낸다. 예를들어 Eg.-Can. 'nb(Hebr. 'ēnāb), “grape”(포도)는 *아람어*와 *아랍어*에서도 나타나지만 Eg.-Can. brt(Hebr. b<sup>e</sup>rīt), “covenant”(계약)은 *히브리어*에만 한정된다. 이미 보통 -h화 되버린 여성 명사 어미 -t가 구약성서에 보존된다. 예를들어 Eg.-Can. 'špt(Hebr. 'ašpāh), “quiver”(떨리다, 진동하다). 보다 이른 낱말들에서의 복사와 쌍수는 아람어에서처럼 -n을 취하지만, 후에 고전 히브리어에서는 -m을 취한다. 그래서 Eg.-Can. krmyn(약 기원전 1200년 경)은 아람어 karmīn, “vineyards”(포도원)(약 기원전 1100년 경)보다는 히브리어 k<sup>e</sup>rāmīm에 더 가까운 Krmym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šīdōnīm, “Sidonians”대신에 šīdōnīn이 그러한 것처럼, -n 형식이 히브리어의 북 팔레스타인 방언에 생존한다. 비슷하게 Eg.-Can. š-는 방언적인 히브리어 še- (cp. Bab. rel. ša), “who”, “which”에 상응했다. 합성적이든 독립적이든 공통 대상들을 기술하는 많은 단어들 이집트 초기 텍스트들에 나타난다. 예를들어 Eg.-Can. rš(Hebr. rō's), “head”와 Eg.-Can. kmh(Hebr. qemaḥ), “flour”(가루). 자신들의 의미들이 변하거나 또는 히브리어 문학에서 생존하지 못한 다른 것들은 많은 것들이 히브리어 어휘로부터 사라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주로 이집트 왕들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봉신(vassals, 封臣)들 사이의, 이집트에서 발견된 췌기

문자 서신(correspondence, 書信)(약 기원전 1400 년 경)는 마찬가지로 성서 히브리어 보다 더 이른 히브리어(것)에 비슷한 언어들 드러낸다. 이런 편지(letters, 便紙)들은 히브리어 용법에 아주 근접한 서부 특유함들을 드러내주는 바빌로니아어로 쓰여졌다. 예를들어 1인칭 완료(permansive, perfect)단수 형이 바빌로니아 어 보다는 히브리어에 더 가깝다. 즉 Bab.-Can. našartí (Hebr. nāšarî, 그러나 Bab. našrâku는 아니다), “I have kept”(내가 유지했다). 그리고 수동태는 모음들의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 형성된다. Bab.-Can. yudan(Hebr. yuttan), “is givend”(주어지다). 이런 수동형은 비록 바빌로니아어에서는 알려지지 않기는 해도 산발적으로 [현대]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규칙적으로 [현대] 아람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서신에서 더해진 100 개 이상의 가나안닛(Canaanite) 주석(glosses, 註釋)들 안에 그 주요한 증거들이 놓여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순수한 히브리어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Bab. elippu 등 등은 Can. anaya(Hebr. ’ônîyâh), “ship”(배) 등 등에 의해 설명된다. 또 이런 주석들의 언어는 히브리어 보다 이른다. 반모음 w가 보존되는 예를들어 Bab.-Can. yakwun, “is”(있다)는 그 W가 u로 동화됐던(Punic ichon, “he is”와 비교할 것) Hebr. yâqûm, “he arise”(그가 일어났다)와 비슷한 형식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주석은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거의 생존하지 못했던 abadat(Hebr. ’ab°dâh(is ruind, 황폐해지다)와 비교)처럼, 동사 3인칭 단수 형 고대 어미 -t를 보존했다. 이런 주석들은 성서 히브리어의 일상적인 -m (their)의 시적인 후기 다양함인 인칭 대명사 접미형 -mo가 본디 원시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예를들어 Bab.-Can. panimu는 고전 히브리어 p°nênem, “their face”가 아니라, 원시 히브리어 pânêmo에 상응하며 그리고 몇 몇 사람 이름들은 순수한 가나안닛 형식들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다양한 고유명사들 안에 포함된 Bab.-Can. ba’alu 또는 dagan과 같은 신성한 이름들은 Hebr. ba’al, “baal”(바알)과 dâgôn, “dabon”과 동일하다. 이러한 고대 이집트어와 바빌로니아어 텍스트들에 투영된 것처럼 Canaanite는 선명하게, 비록 단지 히브리어 형식 하나에만은 아니지만, 그 히브리어에 많이 기여한다.

중부 그룹(아람어)도 히브리어에 어떤 기여를 한다. 이것은 모음들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들에 의해 예시된다. 고대 아람어는 a를 선호하며 가나안닛과 페니키안은 u(o)를 선호하는 반면 히브리인의 선택은 그것의 복합적인 기원을 거부한다. 예를들어 rōš (head)는 Can.과 Phoen. rush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rāšîm, “heads”는 아람어 rāš’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 어떤 약변화 동사들에서 히브리어는 능동태에서 아람어적인 a를 선호하나 (재귀) 수동태에서는 가나안닛의 u(o)를

선호한다. 예를들어 능동태 *naḥṭī*는 Can. *nuḥti*, “I rested”(나는 쉬다)에 맞서 Aram. *nāḥt*에 일치하는 반면, 수동태 *nākôn*, “was established”와 같은 형은 가나안어의 음성화(vocalization, 발성법)를 반영한다. 그러나 어휘에는 의심할 것도없이 고대 아람어적인 낱말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몇 있다.

다른 요소들은 셈어족의 동부(아카디아어 또는 앓수르-바빌로니아)가지들로부터 온다. 이것을 통해 히브리어는 *hēkāl*, “temple”(사원)과 같은 몇몇 수메르어 차용어들을 그리고 Akaad.를 통해 *ēkallu*, “palace”(궁전)을, 통해 Sum.로부터 E.GAL, “great house”(대저택)을 획득한다. 그것의 마지막 두 자음들이 동일한 그런 약 변화 동사들은 이러한 Akkadian(과 Aramaic) 요소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대안적인 *qāšaš*와 *qaš*는 Akkad. *qasiš*와 Aram. *qas*, “cut”를 각각 나타낸다. 비슷하게 대안적인 *mīšār*와 *mēšār*, “justice”는 *Phoen. misor*와 Akkad. *mīšāru*를 각각 나타낸다.

많은 대안적인 낱말들이 이런 견해를 확인한다. Hebr. *ʾānōkī*와 *ʾānī* (“I”, 나) 중, 첫 번째 것은 Bab.-Can. *anuki*(cf. Akkad. *anāku*)를 그리고 두 번째 것은 Aram. *ʾānā*(cf. 세속 아람어 *ʾanī*)를 반영한다. 또한 히브리어 *ʾel*과 *ʾēlōʾah*(“God”)는 Bab.-Can. *ilu*와 *Phoen. el*(cf. Akkad. *ilu*)와 Aram. *ʾēlāhā*(cf. Arab. *ʾilāh*)를 각각 반영한다. 심지어 현재의 쓰임새에 있어 각기 다른 재원으로부터 온 세 개의 동의어(synonyms)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는 Assyro-Babylonian와 Old Aramaic(Amorite)와 Canaanite를 흡수(drawn up)했다. 그래서 전통은 아브라함은 바빌로니아로부터 Haran을 거쳐 Hittite와 Amorite 지역을 통해 Palestine으로 왔다고 주장한다. 역시 히브리어의 분석도 히브리어로 말하는 자들은 그곳의 거주인들이 Babylonian과 Amorite(또는 Aramaic)과 Canaanite 언어를 말했던 땅들로부터 요소들을 빌려왔으며 그래서 모든 개연성에서 아마 그러한 땅들을 거쳐 왔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6-3)방언들(Dialect).**—히브리어는, 아마 모든 지역적인 독특함들을 지워버린, 신성한 텍스트들의 맛소라(Masoretic) 편집 때문에, 방언의 흔적을 거의 담고 있지 않다. Amorites는 *š*를 *s*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것의 흔적이 Ephraimites이 *sibbōleth*라고 *šibbōet* 대신에 말했을 때 보여진다. 방언의 또 다른 표식은 *ʾēd* “witness” 대신에 *šōmēaʾ* (cf. Ass. *šāmeānu*와 Ethiopian *samāʾī*)를 Gileadite가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 북 팔레스틴 말투는 *ʾatt* 보다는 *ʾatti*, “thou”(fem.)를, *zōʾt*. “this” 보다는 *zōh*를 선호했으며 그리고 특히 어떤 인칭대명사적 접미어들에 있어서 몇몇 다른 아람어화된 독특함들을 드러냈다. 이런 설명은 Elohist에 의해 *leket*, “to go” 대신에 사용된 *hālōk*와 같은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 사용 이유를 말해준다. Ugar. *hlk*는 이런 형식을 확인한다. *molkāh*

“rule” 대신에 m<sup>l</sup>ôkâh 사용, ‘ālas, “exulted”(기뻐날뛰다) 대신에 ‘ālaz의 사용, ‘el “unto” 대신에 ‘al, “upon”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방언적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의 확실성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 고대 히브리어의 방언적 다양함들 중에서 단지 하나의 표현만이 O.T.(Ju 12<sup>6</sup>)에서 발생 언급된다. 바로 그 곳에 따르면 Ephraimites이 어떤 경우에 װ를 ן로 발음했다. ( Marquart in ZAW. 1888, p. 151ff.를 참조). 느헤미야 13장 24절의 경우 Ashdod의 말에 의해서 어떤 히브리어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팔레스타인 방언이 의도됐는 지의 여부는 결정지어질 수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유다서와 호세이사)와 같은 북부 팔레스타인의 많은 독특함들이 아마 방언 상 다를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Mēša‘의 Moabite 비문에 어떤 뒤섞여짐이 있을 수 있으리라. 다른 발전들에 대해서는 L. Metman, Die hebr. Sprache, ihre Geschichte u. Lexikal, Entwicklung seit Abschluss des Kanons u. ihr Bau in d. Gegenwart, Jerusalem, 1906. (Gesenius, 17쪽)/.

//2-6-3-1)Variation of Ancient Hebrew(고대히브리어의 다양함). 히브리 성서 언어는 결코 완전히 통일된(monolithic)것이 아니다. Standard Biblical Hebrew를 (기원전 500 이후의)Late BH와 그리고 이 양자를 시원적인 시적인 방언과 구분시키기 위한 충분한 통시(diachronic, 通時)적인 다양함이 있다. 일천년에 걸쳐 있는 작품들의 모음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 보다 훨씬 적은 그러한 다양함의 량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두 개의 방언을 사용하는 디글로시아(Diglossia)와 그 알파벳의 주로 자음적인 특성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 탓이다.

미쉬나에서의 통시적인 다양함을 발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초기 글월들은 standard Middle 또는 Mishnaic Hebrew와는 다른 형식을 종종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들은 BH 형식들이며, 말해진 것 보다는 오히려 초기에 쓰여진 MH에 미치는 표준 문어의 영향이 오랫동안 이었다는 것을 단순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

MH는 인위적인 학자적 전문어(jargon, 專門語)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월한 견해는 MH는 기원후 2 세기에 여전히 말해진 일상어적인 용법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성서 기간에 말해진 (‘pre-MH’, MH-이전) 더 이른 일상어적인 용법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LBH(후기성서히브리어)는 그것의 SBH(표준성서히브리어)적이 아닌 특색들이 MH-이전(미쉬나히브리어-이전)으로부터 온 순수하게 문어적인 언어이다. Pre-MH와 MH가 SBH에 대해 맺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 맺는 엄밀한 관계는 결정된 채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MH는 자주 SBH에서 시작된 발전들의 정점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그 후자의 직계 후손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돼있다. 그것의 특색 중 몇몇이 최소한도 SBH 만큼 시원적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서의 lects와 언어들 사이의 사회언어학적인 상호작용은 자주-인용되는 성서적 그리고 탈무드적인 많은 글월들의 주제이다: Judges 12:5-6, II Kings 18:26-28, Nehemiah 13:23-24, Bava Kamma 82b-83a, 'Avoda Zara 58b, Hullin 137b, 그리고 Pal. Talm. Megilla 71b.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방언들에 관한 정보는 그것의 지리학적인 기원이 알려진 비문들과 성서적 작품들로부터 주어 모아질 수 있다. 북부 (*Israelite*) 왕국의 히브리어는 남부 (*Judahite*) 왕국의 그것과는 달리 크게 페니키안 영향의 결과로 중요한 측면드에서 SBH와 다르다는 것이 보여졌다.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비(non, 非)-Canaanite 이웃은 아랍어이다. 그 아랍어의 영향은 이미 성서의 가장 오랜 부분들에서 느껴지며 기원전 8 세기 동안 국제적인 언어의 지위로 아랍어가 올라 선 후에 점 점 더 강하게(pronounced) 됐다. 기원후 첫 2 세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유대의 히브리어로-말하는 인구는 그 모든 유사함에 있어 크게 두개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접촉의 결과는 형태론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심대했다.

다른 비-가나안닛 언어들, 곧 Akkadian과 Egyptian과 Iranian과 Greek과 Latin 등의 언어는 주로 사전(Lexicon, 辭典)의 영역에서 역시 히브리어에 자신들의 표시를 남겨둔다. 이런 영향 중 많은 것이 아랍어에 의해 중계됐다. //

## 2-7)미쉬나 히브리어(Mishnaic Hebrew).

미쉬나 히브리어는 비록 학교에 주로 한정되며 그리고 선명하게 성서히브리어와 구분되기는 해도 여전히 살아있는 언어였다. 성서에서의 주제 범위는 제한됐는데, *Mishnāh*에서의 그 범위는 훨씬 넓혀졌다. 일상생활의 문제들이 자세하게 논의의 뜻으며 그리고 낱말과 구들이 보다 초기의 그리고 추측컨대 대중적인 말(speech)로부터 채용됐다. 더 나아가서 그 언어는 동일한 감각에서 친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표현의 더 넓어진 정의가 쓰여진 스타일로 요구됐다.

주목할만한 첫 변이(alteraton, 變移)는 자음들, 특히 고전 히브리어가 그 구분을 유지했던 후음(gutturals, 喉音)들의 혼란(confusion, 混亂)이었다. 이런 변화는 그 저

술가들이 아람어의 일상적인 쓰임새에 익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정 정서법을 위반했던 일상사에 관계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낱말들은 조금씩 기어 들어왔다(crept in). 예를들어 *성서 히브리어*는 첫 글자 w는 아주 드문 wālād (cf. Arab. waladu), “boy” 대신에 yeled에서처럼 y이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보편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wetas(Gr. εὐθύς), “at once”와 wīlōn(Lat. velum), “curtain,”같은 과격어법(barbarisms, 破格語法)은 인정됐다. 따라서 wa‘ad (biblical Hebr. mō‘ēd), “meeting”과 같은 형식에 대한 반대는 덜 강하게 느껴졌다.

격 어미들을 손실한 *성서히브리어*는 한정의 4 격을 표시하기 위해 ‘et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쉬나 히브리어*는 직접목적어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칭대명사 접미어를 가지고 “that” 또는 “the same”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et를 사용했다. 신선한 대명사들 역시 기존의 것들을 복합형식들과 연결함에 의해서 또는 *아람어*로부터 많은 것들을 채용하거나 적용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새로운 부사들과 전치사들과 접속사들 특히 종속 접속사들이 자유롭게 발명되거나 또는 *아람어*로부터 수입됐다.

어휘들이 아주 풍부하게 됐다. 많은 성서적 단어들은 비록 몇몇 명사들이 자신들의 의미를 변화시켰으나 유지됐다 그래서 *성서 히브리어* gōlem, “embryo”는 *미쉬나 히브리어* gōlem, “lump”, “mass”로 됐다. 새로운 명사들이 성서적 어근들로부터 생성됐다(coined). 그래서 *성서 히브리어* hemed, “desire,” 이외에도 hāmād, “desired”로부터 *미쉬나 히브리어* hīmmūd, “desire”가 생겨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드물었던 네 철자 또는 다섯 철자(quinqueliteral) 낱말 형성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성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래된 **말해진 언어에 반드시 속해 있었던 좋은 히브리어 단어들이 나타난다.** 많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낱말들 이외에도 몇몇 페르시아어(또는 *아람어*)가 기어들어 왔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본디 모습을 유지한 반면, 그리스어 낱말 하나는 그 소유격으로 변했다(ἀνδριάς, “statue”로부터 *미쉬나 히브리어* ‘andriantôs = Gr. ἀνδριάντος). 이것들이 *히브리어* 종결어미(terminations, 終結語尾)들과 더불어 제공되는 것은 거의 드물었을 뿐이다. 명사들의 격 변화들은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됐다 그러나 많은 남성명사들은 여성 어미들을 획득했다 그리고 *아람어* 남성 복수 어미 -in은 비록 *히브리어* 여성어미 -ôt가 규칙적으로 유지됐긴해도 *히브리어* -im보다 훨씬 공통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명사에 의존적인 명사가 소유격의 형태로 잇따르는 연계형(construct state, 連繫形)이 음성학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산발적으로 살아 남았다. 그러나 sel-(“which is to”), “of,”를 지니거나 또는 전치사 l’,



“to,”를 지니거나 또는 아람어 *dē-*, “of”를 지니는 우언법(*periphrasis*, 迂言法)이 그 연계형 대신에 들어서는 경향이 있었다. 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방언에 속했던 이런 관계사(*relative particle*) *še-*는 고전적인 *’āšer*, “who,” “which,”를 미쉬나 히브리어에서 몰아내버렸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공급이 많이 확장됐다. 히브리어 동사 변화(*conjugation*)에 나쁘게 어울리면서 외래 동사들이 드물게 채용됐다. 그러나 몇몇은 명사들로부터 형성됐다: 예를들어 *s’fōg*(Gr. *σπόγγος*), “sponge.”로부터 *sāfag*, “absorbed.” 명령어 *kîrî*(Gr. *χαίρει*), “hail,”과 *wîwî*(Lat. *vive*) “live,”는 예외들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동사들을 밀접하게 닮은 아람어 동사들이 쉽게 동화되는 동안 몇몇 고전 동사들이 새로운 의미들을 받아들였다; 예를들어 *zākāh*, “was innocent,”는 “succeeded,”의 감각을 획득했다. 본디 단순한 어간(*theme*, 語幹)으로 사용된 다른 것들은 파생된 어간들에 후에 영향을 미쳤다. 단지 파생된 명사들로부터만 알려진 또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유일무이하게 알려진 많은 어근들이 일반적인 것들로 됐다. 부가적인 동사들이 *miškēn*, “took a pledge” (미쉬나 히브리어 *miškōn*), “pledge,”와 같은 그런 파생 명사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드문 네 철자로 된 그리고 다섯 철자로 된 동사들이 흔하게 됐다. 동사변화들은 변하지 않은채 실체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3인칭 여성 단수는 재귀적인 어간의 경우 *-āh*의 자리에 *-et(-at)*가 들어섰다. 마찬가지로 어떤 약변화 동사들도 다소 고전적인 규범으로부터 이탈했다.

어간들은 다소 어떤 변화를 겪었다. 가나안 낫은 모음을 변경함에 의해서 능동과 수동 태들을 표시했었으며(*laqaḥu*, “they took”, 그러나 *laqiḥu*, “they were taken”를 비교), 성서 히브리어는 자동사와 타동사 사이의 이런 다름을 산발적으로 보존했다(*zākar*, “remembered,”와 *’šākēn*, “dwelt”를 비교). 내적으로 형성된 수동태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것은 분사(*participle*, 分詞)이다; 예를들어 *zākûr*, “remembered,”; 그러나 다른 흔적들은 맛소라학자들에게 애매했던 어떤 형식들 이라서(*under*) 숨겨졌을 것이다. 그것의 자리에 성서 히브리어는 파생된 어간들의 수동태를 사용했다. (*pa’al*, “did”의 범형에 따라) 이것들은 재귀적인 *nif’il*, 강조적인 그리고 사역적인 *Pi’el*, 사역적인 *hif’il*과 재귀적인 *hitpa’el* 들이다. *hif’al*은 쉽게 수동적인 힘을 획득하며; *pu’al*, 덜 자주 *hof’al*(각각 *pi’el*과 *hif’il*의 수동태들)은 마찬가지로 자주 그렇게 사용됐다. 그러나 후기 히브리어에서 *hif’al*과 심지어 더 많이 *hof’al*은 그것들의 의미들에 있어 애매함 때문에 덜 자주 출현했던 반면 *hitpa’el*은 재귀적인 힘과 덜 자주 수동적인 힘 이 양자의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흔해졌다. 동시에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단지 세개의 가능한 예들만이 제공됐던 *nitpa’el*의 새로운 형식이 순

수하게 수동적인 감각에서 극단적으로 흔하게 됐다. 능동적인 어간들 중에서 pi'el 은 명사들로부터 새로운 동사들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하게 봉사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전 동사들을 지닌 관습적인 단순한 그 어간 대신에 들어섰다. 그리고 hif'il은 자신의 용법을 확장했다. hi- 대신에 ša- 또는 sa- 접미사들에 의해 형성되는 아람어 사역 어간이 알려졌다.

고대의 시제-체계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wāw-consecutive”(와우 계속법)의 손실은 그 시제-체계를 더 불충분하게 만들었다. **완료**는 단지 과거 시간에 완성된 행위만을 표현했다. 그리고 고대의 미완료 보다 더한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미완성된 행위를 위해 요구됐다. 따라서 다양한 우언법(periphrasis, 迂言法)들이 고안됐다. 과거 미완성 행위는 분사형을 지닌 **동사 hāyāh**에 의해 가리켜졌다: 예를 들어 hāyāh 'ômēr, “he was saying”는 āmar, “he said”와 구분됐던 반면 미완료 yômēr는 “he should say”를 의미하면서 명령(jussive, 命令)의 힘을 지닌채 남게 됐다. 현재 분사만이 현재시간을 내포했다. 했던 것을 기술하면서 그것은 마찬가지로 해야 될(ought to) 것을 가리키게 됐다. 그러나 인칭 대명사 주어는 더 이상 함축적으로든 분명하게든 격변화없이 표현되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ānī 'ônēr 또는 'ômēr 'ānī, “I say”. 이것은 그 분사를 잇따르는 **대명사와 연결시킴에 의해서 형성된 완전히 새롭게 아람어화된 시제를 생성**시켰다. 예를 들어 'ômēranī, “I say”. I<sup>c</sup>-, “to”에 의해서 이 끌리는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가 뒤에 잇따르는, 문제의 그 주어를 지시하는 인칭대명사 접미어를 지니는 형용사 'ātīd, “ready” 또는 명사 sōfm “end”에 의해서 미래는 표현된다. 예를 들어 'ānī 'ātīd lômar, “I am ready to say” 또는 šōfī lômar, “my end (is) to say,” 즉 “I will say”. 또는 때로 **성서 히브리어에서처럼** 일어 날 것 보다는 일어 나야 할 것을 오히려 가리키면서 I<sup>c</sup>-와 부정사만에 의해서 **미래**가 표현된다. 예를 들어 'ānī lômar, “I am to say”.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규칙적인 구(phrases, 句)들도 지니지 않는 의무(obligation, 義務)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쉬나 히브리어는 부정사를 지닌 형용사 šārik, “needed”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ānī šārik lômar, “I must say”. 동시에 그것은 몇몇 생생한 새로운 관용어법을 획득했다. 예를 들어 “현명치 못한 투자를 하다” 대신에 “사슴의 뿔에 돈을 걸어 놓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신의 시원적인 경직성(stiffness, 硬直性)을 지닌채 절정기의 근엄한 아름다움과 안정된 위엄을 잃어버렸다. 교환 속에서 그것은 단순성과 유연성을 획득했으며 그리고 자신을 일상생활의 필요에 더 낮게 적응시켰다. 비록 아람어의 침노(invation, 侵擄)전, 히브리어의 특징이었던 많은 것들의 사라짐이 유감이지만 말이다.

## 2-8)중세와 현대 히브리어(Medieval and Modern Hebrew).

2-8-1)중세 히브리어. 그 중세(Medieval, 中世)언어는 그러나 돌발적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발전했다. (그 자체 그리스어인) piyyût 라 불리우는 예배 집례 시(poem, 詩)는 특히 소위 Kalirian 방식으로 오래된 단어들에 신선한 의미들을 제공하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듦에 의해서 풍부한 어휘를 지니게 됐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스페인-히브루 시인들이 약 기원후 900-1250 년 잇따랐다.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약 2,000 또는 3,000 여 개의 학문적이고 문헌학적이며 철학적인 용어들이 덧붙혀졌는데, 이것들 중 어떤 것은 geder, “fence”의 경우에서처럼, “defintion”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었던, 고대 어근들을 새롭게 사용함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다. 어떤 것들은 kammāh, “how much”로부터 온 kammût, “quantity”처럼 존재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에 근거했으며, 다른 것들은 ‘aqlīm, “climate,”와 tib’î, “natural”와 같은 그런 주로 그리스어와 아랍어 등의 외래어들로부터 채용됐다.

그런 다음 그 언어는 M.H.Luzzatto(1707-47)가 순수하고 단순한 성서 양식(style, 樣式)으로 되돌아갔을 때인 18세기의 회복 때까지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앎과 보편적인 문화에 자신의 관심을 지닌 Moses Mendelssohn에 의해 시작된 Haskālāh “enlightenment”(1784-1811)은 신선한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단지 몇 몇의 선생들만이 고대 성서의 정신을 가르쳤으며, 그 계승자들은 자신들의 관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하여 우기는 결과들을 자주 가져오곤했다. 예를들어 “자신의 생각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앎무새처럼 주장한 사람(Amos iv, 13)”. 그 다음 현대화 충격은 유럽에서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을 일깨운 **시온주의(Zionism)**였다. 이것은 Yiddish와 Ladino(유대-스페인어 방언)을 경멸적인 외래어 말투로 내 몰면서 히브리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경향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동부 특히 아랍어로 말하는 나라들 이 양자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서의 이주 또는 ‘ālyāh 가 자연스레 히브리어일 공통언어를 위한 욕구(need, 慾求)를 피할수없게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Ben Yehudah**(1858-1922)는 많은 시온주의자들의 바람에 맞서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쓰여진** 언어와 마찬가지로 **말해지는** 언어로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 Eliezer Ben-Yehuda and the Revival of Hebrew

(1858–1922)

by Jack Fellman\*

---

In his pioneering work on language revivals and language revivers published in 1966, the American linguist Einar Haugen wrote: “ It appears to be almost the rule that such movements can be traced back to a single devoted person, who gave focus to the prevailing dissatisfactions of his people. Having issued from the group whose language was neglected, such reformers often had more than a purely intellectual motivation for establishing the existence of their language. Theirs became one contribution to the general liberation of the group, a medium of revolt and a symbol of unity.” For the Hebrew language revival, one of the truly outstanding socio-linguistic events of modern times, this characterization is eminently true of Eliezer Ben-Yehuda.



Eliezer Ben-Yehuda, was born Eliezer Yitzhak Perelman, in the Lithuanian village of Luzhky on January 7, 1858. Like virtually all Jewish children of that time and place he began learning Hebrew from a very tender age as part of a thoroughly religious upbringing. He excelled in his studies and ultimately was sent to a talmudic academy (*yeshiva*) in the hope that he would become a rabbi. However, like many promising young Jews of the time in eastern Europe, he became interested in the secular world and ultimately exchanged the yeshiva for a Russian gymnasium, completing his studies as an external student in 1877. In the same year Russia proclaimed war on the Ottoman Empire to aid their fellow Slavs, the Bulgarians, to regain their independence from the Turks. Ben-Yehuda was captivated by the idea of restoring to the Bulgarians their rights and reviving the

Bulgarian nation on its national soil. In the 19th century, several European nations had been so revived, perhaps the most celebrated being the Greeks, the heirs of Classical Athens, in 1829, and the Italians, the heirs of Classical Rome, in 1849. Ben-Yehuda was deeply influenced by such revivals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European concept of national fulfillment should also be applied to his people, the Jews. He felt deeply that if the Bulgarians, who were not an ancient, classical people, could demand and obtain a state of their own, then the Jews, the People of the Book and the heirs of historic Jerusalem, deserved the same. True, Eretz-Israel, the land of the Jews, contained few Jews in the 19th century, and the language of the Jews, Hebrew, was virtually only a written language and not a spoken tongue, but he felt these obstacles were not insurmountable. The Jews must return to their land and begin anew to speak their own language.

Acting on these ideas, Ben-Yehuda determined that he himself should go to Palestine. He left Russia in 1878, first going to Paris to study medicine, so as to be of future help to the Jewish community in Palestine. However, due to his own health problems (tuberculosis), Ben-Yehuda was unable to continue his studies, yet, to his eternal credit, he did not waver in his convictions, and in 1881 he arrived in Palestine with his revival plans for the Hebrew language intact. Indeed, while still abroad, he had pondered upon the revival question deeply, and had published several articles in various Hebrew periodicals on the triple question of the renaissance of the Jewish people, their land, and their language. Indeed, these early articles can be considered forerunners of modern political Zionism, for in them are included the basic elements pertinent to Jewish nationalism: settlement policy, the revival of the Hebrew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in the national homeland. Ben-Yehuda settled in Jerusalem, where most Jews of Palestine lived in their various communities, planning to use the town as the base for spreading his revivalist ideas throughout Palestine and the Diaspora.

Ben-Yehuda adopted several plans of action. The main ones were three-fold, and they can be summarized as “ Hebrew in the Home,” “ Hebrew in the School,” and “ Words, Words, Words.”

As far as “ Hebrew in the Home” was concerned, even before coming to Palestine, as a result of his first successful prolonged Hebrew conversation, Ben-Yehuda had decided to speak only Hebrew with every Jew he met. From what is known, this first conversation took place either with Getzel Zelikovitz or Mordechai Adelman, in a café on the Boulevard Montmartre in Paris. Since Ben-Yehuda had proved to himself that he could speak Hebrew successfully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he wanted Hebrew to be his only language when he arrived in Palestine.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was not too difficult for him, except perhaps for a shortage of Hebrew words on certain topics. Indeed, Ben-Yehuda relates with great enthusiasm his first conversations in Hebrew when he and his wife disembarked from the boat in Jaffa, and he talked with a Jewish money-changer, a Jewish innkeeper, and a Jewish wagoneer, all in Hebrew. For here he had encountered simple people who could speak Hebrew, perhaps with mistakes, but still more or less naturally and freely. But Ben-Yehuda wanted the Jews in Palestine to speak Hebrew exclusively. Therefore, when his first son, Ben-Zion Ben-Yehuda (or, as he is more commonly known, Ittamar Ben-Avi), was born in 1882, Ben-Yehuda made his first wife Deborah promise to raise the boy as the first all-Hebrew speaking child in modern history.

According to Ben-Yehuda, this was a very important symbolic event for the future of the revival, because, with a child in the house, parents and visitors would have to speak naturally to him, and to converse on the most everyday topics, all in Hebrew. And when the child would finally begin to speak on his own, Ben-Yehuda would have living proof that a complete revival of the language was, indeed, possible.

As Ben-Yehuda wrote in the introduction to his dictionary, “ If a language which has stopped being spoken, with nothing remaining of it save what remains of our language – (if there is such a language) can return and be the spoken tongue of an individual for all necessities of his life, there is no room for doubt that it can become the spoken language of a community.”

And this is indeed what happened. Ittamar Ben-Avi, in his autobiography, describes (albeit somewhat over-romanticized), some of the drastic precautions taken by Ben-Yehuda to ensure his son would hear—and thus

ultimately speak—only Hebrew. Thus, for example, when visitors came to the house who did not know Hebrew, Ben-Yehuda would send him to bed so that he would not hear their foreign languages. Similarly, he would not let the child listen to “ the chirping of the birds and the neighing of horses, the braying of donkeys and the fluttering of butterflies, because even they are, after all, foreign languages, at any rate not Hebrew.” Indeed, the child only began to speak at the relatively late age of four. His mother could not keep to Ben-Yehuda's demand, and speak to the child only in Hebrew. One day, when Ben-Yehuda was out of the house, she began absent-mindedly singing lullabies to the child in her native Russian. Ben-Yehuda had returned early and when he heard Russian being used inside his house, he rushed in and began shouting. Ittamar wrote about the bitter scene that followed: “ It caused a great shock to pass over me when I saw my father in his anger and my mother in her grief and tears, and the muteness was removed from my lips, and speech came to my mouth.”

The fact that there was a child in the house accentuated the need to find appropriate Hebrew words for the mundane things of everyday life. Thus, new Hebrew words were coined by Ben-Yehuda for objects such as doll, ice-cream, jelly, omelette, handkerchief, towel, bicycle, and hundreds more. As the child grew, so did Hebrew, both in vocabulary and in naturalness of expression. Indeed, Ben-Yehuda and his Hebrew-speaking family became a living legend, an embodiment of the revival for others to emulate.

Of all the steps Ben-Yehuda took to revive Hebrew, the use of “ Hebrew in the School” was clearly the most important, and Ben-Yehuda realized this. In his first articles, written while abroad, he had dwelt on the way the Russian language had become rooted among the youth in Russia, even among those for whom it was not their mother tongue, through being introduced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n schools. On the same principle, Ben-Yehuda preached that rabbis and teachers should use Hebrew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n the Jewish schools in Palestine, and for all subjects, both religious and secular. Ben-Yehuda understood that the revival could succeed especially, and perhaps only, if the younger generation would begin to speak Hebrew freely. Therefore, when Nissim Bechar, the principal of the Torah and Avodah School of the 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School in Jerusalem proposed to Ben-Yehuda in 1882 that he teach in his school, Ben-Yehuda seized the chance. Bechar understood the necessity of using Hebrew in the school, because, for the first time, children from several different Jewish communities would be studying in the same classroom, and they had no other common language which could be used. Bechar explained to Ben-Yehuda his method of teaching Hebrew through Hebrew, a direct system, with no translation into other tongues—a system which had already been used in teaching French and other languages. Bechar had already tried the system in Hebrew in the Alliance School in Istanbul, which he had headed before coming to Jerusalem. Ben-Yehuda was able to teach for only a brief period, due to health reasons, but his Hebrew teaching was successful. After just a few months, the children were able to chatter fluently in Hebrew on daily topics connected with eating and drinking, clothing, daily life and events inside and outside the home.

It was clear to Ben-Yehuda that herein lay the very future of the revival. If children could learn Hebrew from a young enough age in school, they would become virtually unilingual in Hebrew when they grew up. In his words: “ The Hebrew language will go from the synagogue to the house of study, and from the house of study to the school, and from the school it will come into the home and... become a living language” (*Hatzvi*, 1886).

And thus it came to pass. Ben-Yehuda's personal example and his teaching success made a great impression on other teachers. True, teaching in Hebrew involved many problems: lack of trained teachers, lack of textbooks, lack of materials such as games or songs, lack of terminologies and so on. David Yudeleviz, an early teacher, wrote in 1928: “ In a heavy atmosphere, without books, expressions, words, verbs and hundreds of nouns, we had to begin... teaching.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or imagine under what pressure the first seeds were planted... Hebrew teaching materials for elementary education were limited... We were half-mute, stuttering, we spoke with our hands and eyes.” Another prominent teacher, David Yellin, wrote in the same vein: “ Every teacher had a French or Russian teaching book of his own, and he organized his Hebrew work according to it... Terms for teaching did not exist. Every village teacher was an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 member with



respect to creating words according to his taste, and everyone, of course, used his own creations.” However, as time went on, all these linguistic problems were ultimately solved, and a young all-Hebrew speaking generation did emerge and develop, thus ensuring beyond anything else that the revival would be a success.

Besides teaching the youth, Ben-Yehuda also wanted to attract adults to his ideas. After writing for a few years in the local paper, *Hahavatzelet*, he began to publish his own newspaper Hatzvi, in 1884, to serve as an instrument for teaching adults, both via its content and its language. Newspapers in Hebrew were at that time still somewhat of a novelty, the first one having appeared in the mid-1850s (especially as the model Ben-Yehuda wanted to emulate was no less than *Le Figaro* of Paris). He foresaw a Hebrew paper that would treat all topics of interest to a people living on its own land, including international and local topics, weather bulletins, fashion, etc. And indeed virtually every (male) Jew in Palestin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could read and understand a Hebrew newspaper without too much difficulty. Ben-Yehuda believed that if he published a newspaper at a low price, people would become convinced of their ability to express everything they would want to in Hebrew, and that there would then be more readiness to use the language to convey their ideas. Ben-Yehuda also used his paper as a means to introduce new words which hitherto were missing, such as: newspaper, editor, telegramme, subscriber, soldier, fashion and many others. Jews being avid readers, Ben-Yehuda's paper did much to spread his ideas and his linguistic coinages, both in Palestine and in the Diaspora.

To help would-be speakers and readers of Hebrew, Ben-Yehuda began to compile a dictionary. Actually, he started the dictionary as an aid for himself when he was still in Paris, and at first it contained simply a short bilingual list in Hebrew and French written in the back of the notebook he used to write down his grocery lists. But, as Ben-Yehuda himself explains in the introduction to his dictionary, when he began speaking Hebrew daily, he became more aware of the lack of words in Hebrew, and his list grew longer, and he began publishing word lists in his newspaper, as aids for other would-be speakers with similar problems. But there were difficulties. As long as Ben-Yehuda spoke Hebrew at home or with his friends, he was

able to use the language more or less as he wished. But if he wanted the entire society to use Hebrew, then the words would have to be precise and accurate, according to strict philological rules. Therefore, Ben-Yehuda became a scientific lexicographer. The results of his arduous labours, working sometimes 18 hours a day, are astounding, culminating in his 17-volume "A Complete Dictionary of Ancient and Modern Hebrew." It was completed by his second wife, Hemda, and his son after his death, and to this day is still unique in the annals of Hebrew lexicography.

To help him with his dictionary, and to solve various problems connected with the form and type of Hebrew – problems of terminology, pronunciation, spelling and punctuation, – in December, 1890, Ben-Yehuda founded the Hebrew Language Council. The Council was the forerunner of today's Hebrew Language Academy, the supreme arbiter and authority o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Hebrew language.

These were the main steps Ben-Yehuda took to implement his dream of the revival of Hebrew. Of course, he did not revive the language entirely on his own, as is often rather simplistically stated. Rather, he needed and relied on the support of the society around him. Besides the help of the local population (which was limited and at times even outright hostile), what helped Ben-Yehuda most of all in his linguistic crusade was that the year 1881, the same year he came to Palestine, also signalled the beginning of the early immigration waves of Jewish settlers to Palestine. The critical mass of these settlers were like Ben-Yehuda himself – young, educated, and idealistic. They came from similar east European Jewish socio-economic backgrounds, who, like him, had decided to begin their lives anew in the promised land of their forefathers. They were of great help to Ben-Yehuda because they were receptive to his novel ideas and were ready to speak Hebrew, as he insisted. Indeed, many could already speak Hebrew upon arrival in the country, while others were willing to improve their knowledge or begin learning the language. They passed on Hebrew to their children in the home, and in the kindergartens and schools they set up throughout the country. Thus, within a biblical generation, in the forty years between 1881–1921, a core of young, fervent Hebrew-language speakers was formed, with Hebrew as the unique symbol of their linguistic nationalism. This fact was acknowledged by the British mandate

authorities, who on November 29, 1922, recognized Hebrew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Jews in Palestine. The Hebrew revival was now complete, and Ben-Yehuda's lifelong dream had been fulfilled. Sadly, and perhaps significantly, only one month later, he succumbed to the tuberculosis which had stalked him ever since his Paris days.

As we have pointed out, one should not say (as is often done) that before Ben-Yehuda, Hebrew was a “dead” language and that he single-handedly and miraculously revived it. Indeed, the term “dead” as applied to Hebrew is actually a much abused term. As the philologist Chaim Rabin noted in 1958, “...it would hardly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t the time of Ben-Yehuda's first article in 1879, over 50 percent of all male Jew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pentateuch, the daily prayers, etc. and some 20 percent could read a Hebrew book of average difficulty, allowing for a much higher proportion in eastern Europe, north Africa and Yemen, and a very much lower one in western countries.” This being the case, we note Cecil Roth's penetrating axiom on Ben-Yehuda's role in the revival: “Before Ben-Yehuda... Jews could speak Hebrew; after him they did.”

Ben-Yehuda, then, was the prophet and propagandist, the theoretician and tactician, the sign and symbol of the revival. He himself wrote in 1908 in his newspaper, *Hatzvi*, “For everything there is needed only one wise, clever and active man, with the initiative to devote all his energies to it, and the matter will progress, all obstacles in the way notwithstanding... In every new event, every step, even the smallest in the path of progress, it is necessary that there be one pioneer who will lead the way without leaving any possibility of turning back.”

For the revival of the Hebrew language, that pioneer was Eliezer Ben-Yehuda himself.

---

\*Jack Fellman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in 1945 and studied linguistics, semantics and Middle Eastern studies at Harvard, earning his doctorate in 1971. He came to Israel in 1968 and is a senior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Hebrew and Semitic Languages at Bar-Ilan University.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biography/ben\\_yehuda.html](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biography/ben_yehuda.html), 2005-11-12]

# //Israel and Zionism

## Ben-Yehuda, Eliezer (1858–1922)

Eliezer Ben-Yehuda was one of the first Zionists and is credited with the revival of Hebrew as a modern tongue spoken by a nascent Jewish nation.



Eliezer was born in Luzki, Lithuania, in 1858 to Yehuda Leib and Feyga Perelman. Raised as an orthodox Jew, he studied in a Yeshivah until one of his Rabbis, a "secret maskil" (enlightened Jew), caused him to change course and become a "free thinker" and a revolutionary. However, at the age of seventeen he had an overwhelming "revelation" which was to decide his course in life, "it was as if the heavens had suddenly opened, and a clear incandescent light flashed before my eyes, and a mighty inner voice sounded in my ears: the renaissance of Israel on its ancestral soil." This vision remained with him, as he wrote, "the more the nationalist concept grew in me, the more I realized what a common language is to a nation..." Thus he dedicated himself to this goal: 'Yisrael be'artzo uvilshono' the rebirth of the nation of Israel in its own land, speaking its own language.

Eliezer changed his surname to Ben-Yehuda when he began his political activity with his first essay, "A Burning Question," which was published by the Hebrew periodical, "The Dawn," in 1879. Making good on his essay's call to emigrate to the Land of the Fathers, Eliezer moved to Jerusalem in 1881, meeting and marrying his childhood sweetheart, Deborah Jonas, when he stopped off in Vienna to meet with Peretz Smolenskin, publisher of "The Dawn". Together, Eliezer and Deborah established the first Hebrew-speaking home in Eretz Yisrael, and their son, Ben-Zion (who became known by his pen-name, Itamar Ben-Avi) was the first child in modern times to be nurtured with Hebrew as his native language.

Eliezer made friends and allies in Jerusalem, and before long established two organizations: "Tekhiyat Yisrael" -- the Rebirth of Israel -- and "Safa B'rura" -- Clear Tongue -- to implement his goals. It was in response to his article in "The Dawn" that the first group of halutzim (pioneers), the BILU group, came to settle on the land.

Eliezer believed in the need for unity among the Jews for his purpose to succeed, and so he returned to his childhood custom of observing the mitzvot (commandments) as a pious Jew. He asked his wife to do the same, and she accepted. The Orthodox community, however, quarreled with him when they realized that he had a political and national agenda. They subsequently hounded and persecuted Ben-Yehuda, eventually excommunicating him (declaring a "herem"). Ben-Yehuda became embittered with the extremely Orthodox community, while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the Sephardi Chief Rabbi, Ya'akov Meir, and years later also with HaRav Avraham Yitzkhak Kook, first Ashkenazi Chief Rabbi of Eretz Yisrael -- since both Rabbis accepted the concept of Zionism.

Soon after his arrival in Jerusalem, Ben-Yehuda accepted a teaching position at the Alliance School which became the first school where some courses were taught in Hebrew, due to Eliezer's insistence that Hebrew be the official language of instruction for Jewish subjects. Ben-Yehuda wrote for "Hakhavatzet" (The Lily), a Hebrew literary periodical, and launched "Hatzvi" -- The Deer -- a weekly newspaper. "Hatzvi" was the first Hebrew paper to report what was happening throughout the land. For this paper Eliezer needed to coin new Hebrew words for objects and verbs that did not exist in the days of the last Hebrew commonwealth.

Ben-Yehuda's wife, Deborah, died of tuberculosis in 1891. Six months later, her younger sister offered to marry Ben-Yehuda and care for Deborah's two small children. An emancipated woman of great drive and conviction, she made it her life's work to support Eliezer and his enterprise. Adopting the Hebrew name Hemdah, she learned Hebrew fluently in record time, became a reporter for his paper, and in time took over as editor, in order to allow Eliezer to concentrate on his research of the lost Hebrew words that the reborn tongue required. The extreme Orthodox Jews, angered by his paper's reports of corruption in the distribution of Halukah

-- their funding allocations --, mistranslated a line in a Hanukkah story in his paper, "Let us gather strength and go forward" to mean: "Let us gather an army and proceed against the East," and used it as a pretext to inform the ruling Turkish authorities that Ben-Yehuda was calling his followers to revolt! He was arrested, charged with conspiracy to revolt and sentenced to a year's imprisonment. Jews throughout the world were outraged; his sentence was appealed and he was eventually released.

Ben-Yehuda founded and presided over "Va'ad HaLashon", the forerunner of the Hebrew Language Academy, and worked 18 hours a day on his "*Complete Dictionary of Ancient and Modern Hebrew*." In 1910 he published the first of six volumes that saw light before his death in 1922, and after his death his widow and son Ehud continued publishing his manuscript, a task which was completed in 1959 (17 volumes). The dictionary lists all the words used in Hebrew literature from the time of Abraham to modern times. Eliezer Ben-Yehuda was fortunate enough to see his dream become a reality: *A modern nation speaking an ancient tongue -- Yisrael be'artzo uvilshono*  
[<http://www.jafi.org.il/education/100/people/BIOS/beliezer.html> 2005-11-12]

2-8-2)현대히브리어. 그렇게 재-창조된 언어는 본질적으로 성서와 미쉬나와 미드라쉬의 그것이다. 비록 수많은 그리고 늘-증가하는, 어떤 것은 우연적이만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현대 욕구들에 직면하여 고안된 혁신(innovations, 革新)들을 지녔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 언어는 쓰여진 언어(written language)에 토대를 둔 유일한 일상적인 말(colloquial speech)이다. (왜냐하면 보통 일어나는 것은 그 거꾸로이기 때문이다) 그 발음은 Ashkenazim(동부 유럽)유대인들의 그것이 아니라 Sephardim(Hispano-Portuguese) 유대인들의 그것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그리고 고대 후음과 소위 “emphatic”(이차적연구개적조음을지닌)소리들(t, d)은 동방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심지어 소실(lost, 消失)됐다. 동일한 길에서 (Negeb 대신에 Negev에서처럼) 히브루 모국어 낱말들의 경우 모음들 뒤의 v와 f처럼 각 각 발음된 b와 p를 제외한 고대의 기식음(aspiration, 氣息音)들은 무시된다. 어휘와 형태론(accidence, 形態論)과 구문론에 있어서의 지금의 표준은 그것으로부터 선명한 일탈들을 보여주는 늘 증가하는 동방 요소를 지닌, 혼합된 Ashkenazim-Sephardim 류형이다. 그리고 이주자들의 유럽 언어는 거의 각 각의 곳에서 주목할만하다. 거의 몇 되지않는 이주자들이 바로 교육 또는 학자적인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상정하는 성서적 관용법에조차 심지어 많은 오류들을 이식(import, 移植)한다. 그래서 더 또는 덜 무능한 중재자로서 봉사하는 학원 히브리어를 가지고 고전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사이에는 꾸준한 논쟁이 붙는다. 그것은 많은 문법위반(solecisms, 文法違反)들, 심지어 원본이 손상된 구약의 낱말들의 오용에 기인한 것들을 막을 수는 없다. 예를들어 hākī, “very,” 그리고 hāqāfat bāzāq, “lightning attack” 또는 blitzkrieg. 역시 신조어(neologisms, 新造語)들도 šad-lôhēm, “cobelligeret,”같은 그러한 셈어 용법을 위반하는 또는 ’ôtô-maśśā, “motor truck,”과 같은 표준어법이 아닌 잡탕어(barbarous bybrids)들이다. 그러나 유럽에 기원을 둔 몇 몇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조어들은, (예를들어 ḥašmal, “amber,” “brass”와 지금 마찬가지로 “electricity”와 같이) 새로운 의미를 지닌 오랜 단어들이든 또는 ( ’ēt, “time,”으로부터 온 ’ittôn, “newspaper”와 같은 그런) 오래된 어근들에 토대를 둔 새로운 형성들이든 그리고 고전기에는 아주 드물었던, (biltî-rašmî, “unofficial,”과 ’ad-kān, “till now,”로부터 온 ’adkānî, “up to date,”와 같은 그런) 복합용어들이든, 그 언어에 잘 들어맞는다. 이런 것들 중 아주 정교한 것들의 하나는 tappûaḥ “apple,”과 zāhāb, “gold,”의 연결로부터 형성된 tappûz, “orange”이다. 공정한 많은 외래어들이 어떤 것들은(예를들어 ’irgēn, “organized,”와 šittēt, “cited”) 적절하게 히브리어화되면서 그러나 다른 것들은 (예를들어 taḥtîrîyāh,

“territory”) 사실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으면서 나타났다. 고대 언어에 아주 불충분했던 형용사들의 공급은 크게 늘어났다. 구문론은 근본적으로 (기원후 200 년경에 경전화된) 미쉬나의 그것이다. 비록 어떤 길들에서 여전히 더 단순화됐긴 해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결자들과 부사들과 특히 종속 접속사들의 도입 또는 발명에 의해서 선명(Clarity, 鮮明)함이 증가됐다. 그래서 비록 생각의 연결이 피상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애매했던, 고대 구문의 접속사 없는 구와 절의 연결(paratactic)양식이 크게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그 언어는 외래 표현들의 동사적 모방들(belles-letters 대신의 sifrût yāfāh, “beautiful writing,”; “was immorderate”를 위한 lō' yāda' g<sup>o</sup>bûl, “he did not know a boundary,;” 그리고 gillāh 'inyān b<sup>e</sup>-, “he showed interest in”)에 의해서 부유해졌다. 그리고 hit'asseq, “got busy,”는 영어의 “got”와 유사한 거의 많은 용법들을 지닌다.

따라서 그 새로운 언어는 고전 말의 많은 다양함을 잃었으며 자주 단조롭고 (flat) 딱딱하거나 인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습들을 가리키는 충분한 수단들의 부재와 유럽식을 벗어난(이들은 자신들이 보는 텍스트를 반대방향으로 읽어나간다) 알파벳의 자음들을 숫자들로 사용함과 과학적인 어휘들의 완성된 모국어화의 거의 실패는 그 언어를 여러 측면에서 비실제적이며 비 실천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실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들에서 재생됐다. (G.R.D.)

## 2-9)히브리어 문법의 역사적 고찰(Grammatical Treatment of the Hebrew Language).

고대 히브리어가 점차적으로 소멸해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구약 성경의 형성이 완성돼가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텍스트를 설명하고 엄밀하게 (critically) 개정하기 시작했고 때로 그것을 다양한 나라들에서 자신들 사이에 퍼져있던 그 나라의 언어들(verneular languages, 自國語)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번역은 Ptolemy Philadelphus 치하의 Alexandria에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했으나 단지 보다 후에 완성됐던 칠십 (더 정확하게는 칠십이)명의 해석자(Dolmetscher, 解釋者)들의 그리스어(LXX)이다. 그것은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원어에 관한 생생한 앎을 지녔던 다양한 저자들의 작업이었으며 그리스어로-말하는 특히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의 사용을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다소 늦은 아람어 번역들 또는 Targums(תרגומים 즉 해석들 interpretations)은 팔레스타인과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연속적인 교정본들에 의해 형성됐다. 부분적으로 다그쳐진 전통으로부터



파생된 그 설명(explanations, 說明)들은 시민과 제의법 그리고 교의적인 신학을 거의 배타적으로 지시하며 그리고 그 기간의 많은 텍스트 전통들이 특성상 학문적이 아닌 것처럼 그 설명 역시 학문적이지않다. 이 두 가지 전통이 그것의 첫 부분인 **Mišna**가 기원 후 2 세기 말 경에 결국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됐으며 그것의 나머지 부분인 **Grmāra**의 한 교정본(예루살렘 또는 팔레스티니안 게마라)은 4 세기 중엽에 다른 교정본(바빌로니안 게마라)은 기원후 6 세기 중엽에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된 **Talmud** 안에서 보존된다. 미쉬나는 *New-Hebrew 문학*의 시작을 형성하나, 게마라의 언어는 대부분 *아람어*이다.

탈무드의 완성과 가장 초기의 문법적 저술가들 사이의 간격에 맞소라(מסורה traditio?) 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표준적인 표기 모임의 아주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쉬나고계와 학교들에서의 발음 전통에 따른 모음찍기와 엑센트화(Vocalization and accentuation)가 주로 속한다. 이것으로부터 굳어진 정형성을 가지고 수고(MSS, 手稿)들로 그 이후 전달됐던 그리고 여전히 구약의 개정본인 텍스트가 **Masoertic 텍스트** 라는 이름을 획득했다.

Masora(또는 Massora, E.König, Einleitung in das A.T., p. 38 ff.; Lehrgeb. d. hebr. Sprache, ii. 358 ff.) 라는 이름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의 커다란 어려움에 관하여는 De Lagarde, Mitteilungen, i. 91 ff.를 참조하라. Ez 20<sup>37</sup> (הַקְרִיאת מִסֵּרַת; מַסְרָה, 즉 똑같이 합법적인 형식인 מוֹסְרָה )으로부터의 W.Bacher의 그 표현의 파생(in JQR. 1891, p. 785 ff.; 그래서 마찬가지로 C.Levias in th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Cincinnati, 1904, p. 147ff.)은 König, 1. c.에 의해서 올바르게 거부된다. (똑같이 잘-입증된 형식인 מִסְרָה 쪽에서의) מוֹסְרָה 형식의 올바른은 우리에게 그의 논의에 의해서도 Blau의 מוֹסְרָה라고 읽자는 제안(JQR. xii. 241)에 의해서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초기 맞소라학자들과 함께하는 מַסְרָה는 정서법에 즉 plene-와 defective 글쓰기에 일치하고 그리고 단지 후에 traditio를 의미하게 됐다는 Levias(1.c.)의 언급에는 주목할만 하다.—G. Wildboer, in ZAW. 1909, p. 74는 מַסְרָה to hand on은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런 감각에서 후에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이의제기한다.

E.F.K. Rosenmüller(Handbuch für d. Liter. der bibl. Kritik u. Exegese, 1797, i. 247; Vorrede zur Stereotyp-Ausg. des A.T., Lpz. 1834)는 우리의 구약 텍스트는 단일한 교정본(srcension, 校訂本)에 속하는 사본(codices, 寫本)들로부터 파생됐다고 이미 주장했다. J.G.Sommer(cf. Cornell. ZAW. 1892, p.309)와 (1853년 이후의) Olshausen과 특히 De Lgarde(Proverbien, 1863, p. 1 ff.)은 맞소라 텍스트 원본은 한 개의 표준 수고

(manuscript, 手稿)로부터 과생됐다는 것을 심지어 개연성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E.König in *Ztschr. f. kirchl. Wiss.*, 1887, p. 279f.와 특히 그의 *Einleitung ins A.T.*, p. 88ff.를 참조하라. 더구나 자신들의 적절한 자리들에서 주목되어질 여러 위대한 사실들은 맞소라 그 자체가 결코 정형성(uniform, 定形性)을 띤 것이 아니라 다른 학파들과 의견들의 선명한 흔적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가리킨다. H.Strack in *Semitic Studies in memory of ... Kohut*, Berlin, 1897, p. 563 ff.를 참조하라. 맞소라의 역사와 맞소라 전통의 정착을 위한 탁월한 토대는 Joh. Buxtorf의 *Tiberias seu Commentarius Masorethicus*(1618 f.의 *Rabbinical Bible* 부록으로 Basel에서 1620년 첫 발간)에서 놓여진다. 더 최근의 작업에 대해서는 Geiger, *Jüdische Ztschr.*, iii. 78 ff., Harris in *JQR.* i. 128 ff.가 이어짐; S.Frensdorff. *Ochla W'ochla*, Hanover, 1864; 그리고 그의 *Massor. Wörterb.*, part i, Hanover and Lpz. 1876; 그리고 Ch. S.Ginsburg, *The Massora compiled from Manuscripts*, &c., 3 vols., Lond. 1880 ff., 그리고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o-critical edition of the Hebr. Bible*, Lond. 1897(MSS로부터의 다양함들을 지닌 Jacob b. Ḥayyîm[Venice, 1524-5]의 그것으로부터 재 인쇄된, 그의 텍스트 그리고 가장 초기 판들은 런던에서 2 권으로 1894년에 발간됐고 1906년에는 두 번째 판이 발간됐다; 개정판은 진행 중에 있다); H. Hyvernat, 'La langue et le Langage de la Massore' (신히브리어와 아랍어가 섞인 것으로서), in the *Revue biblique*, Oct. 1903, p.529 ff. 그리고 B: 'Lexique massorétique,' *ibid.*, Oct. 1904, p.521 ff., 1905, p.481ff., 그리고 515ff. 그 텍스트의 비판적인 비판 구성을 위한 맞소라의 쓰임새에 있어서의 유용한 작업이 특히 S.Baer에 의해서 여러 책들의 편집(단지 *Exod.-Deut.*만이 여전히 나타나야했다)들에서, 1869년부터는 Fr.Delizsch와 함께 편집했으며 1891년부터는 Baer홀로에 의해서, 행해졌다.

Q<sup>re</sup>의 다양한 읽음들은 맞소라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텍스트의 구뒸점은 맞소라의 편찬과 함께 발견되지 않는다. 전자는 보다 이른 시기에 정착됐으며 그리고 한 참 후의 시간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맞소라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아랍인드의 예들을 따르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법적인 편찬을 시작했던 것은 기원 후 십 세기 초엽 무렵 이전까지는 아니다. R.Sa'adya의 수많은 문법적이고 사전편찬적인 작업들 중에 *Sepher Yesira*에 관한 주석적인 단편들(ed. Mayer-Lambert, pp. 42, 47, 75, &c.)이외에는 구약의 70 (더 정확하게는 90) hapax legomena에 관한 아랍어로 된 설명 만이 보존돼왔다. 맞소라 구뒸점에 대한 세퍼 예시라의

독립적인 태도에 관해서는 Delitzsch, comm. zu den Psalmen<sup>4</sup>, p. 39를 보라. 비슷한 방식으로 아랍어로 쓰여진 그러나 히브리어로 자주 번역된 문법학자 (약 1000년 경 마찬가지로 Abu akarya Yahya, 라고도 불리우는) R.Yehuda Hayyûg와 R.Yona(약 1030년 경, Abu 'l-Walid Merwân ibn Gânâh)의 여전히 현존하는 저술들이 있다. 이런 초기 노력들의 도움으로 Abraham ben Ezra(보통 Aben Ezra라고 불림. 1167년 죽음)와 R.David Qimhi(약 1235년 경 죽음)은 자신들의 히브리어 문법적인 저술들로 인하여 고전적인 평판을 특히 얻었다. 이런 가장 초기의 문법가들로부터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여전히 유지되는 배열과 기교적인 용어들의 많은 원리들이 이끌어 내어진다. 예를들어 **לפעל**의 범형, 어떤 voces memoriales에 따라 동사변화(conjugation, 動詞變化)와 약변화 동사를 **תפלת**와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로 이름 짓는 것.

기독교인들 중에 히브리어 문헌학의 아버지는 John Rauchlin(1522년에 죽음)이다. 그리이스 문학도 요한 로클린에게 많은 빛을 졌다. (이하 문법가에 관한 역사적인 설명은 번역 생략...../

### ///2-10)히브리어 역사 개설.

(Anchor, IV, 160쪽) 여태까지 가장 잘 알려진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기원전 10세기 말에 비명(epigraphic, 碑銘)에서 처음으로 포착(입증) 된다. 그러나 성서 텍스트의 부분들 특히 고대 시(poetry, 詩)는 기원전 12세기 만큼 이른 시작을 지닐 것이다. 이런 이른 성서 자료에 의해 표현되는, **원시-히브리어**라고 이름 붙혀질수 있을 방언 또는 방언들은 대부분의 더 늦은 히브리어 텍스트들이 잃어버린 많은 특색을 드러낸다. **고전 히브리어**라는 용어는 군주제 시작부터 바빌론 유수까지 쓰여진 성서와 비명의 텍스트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많은 언어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바빌론 유수 이후 텍스트들은 고전 말기 히브리어(Late Classical Hebrew)로 지시될 수 있으리라. 비문 유적들은 유대어(Judean)라고도 불리우는 남부 방언과 이스라엘어(Israelean)라고도 불리우는 북부 방언등 최소한도 성서 시대 동안의 주요한 히브리어 두 방언들의 증거를 제공한다. 방언적 특색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본디 성서 텍스트에 잘 주어져 있었으나, 이러한 특색들을 중성화시키려는 경향을 지닌 편집적 조화로 인하여(editorial harmonizing)상대적으로 형식이 일정한 언어, 아마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표준 방언이 유래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다양한 방언들이 특히 읍과 전도서와 같은 어떤 책들에 남아있다.

아마 히브리어는 이 시대가 끝나기(the turn of) 한 세기 또는 그 이상 이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해진(spoken, 구어체)**언어이기를 중지하고 대신 아람어로 히브리어 구어체 언어로 들어섰을 것이다. 기원전 2 세기부터 기원 후 5 세기까지의 **중기 히브리어** 기간은 꿈란 히브리어와 사마리아 히브리어 그리고 그것들 각각이 구분되는 방언 또는 여러 방언들로 표현된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발견된다. 꿈란 히브리어는 비록 자주 토속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는 해도 대부분 고전 말기 언어를 재 생산하려는 정교한 시도인 문어적인 방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슈나 히브리어는 직접적으로는 고전히브리어까지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대부분의 성서 방언인 표준 예루살렘 방언의 계통도 잊지 않는다. 오히려 미슈나 히브리어는 아마 분리된 히브리어 방언적 기질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고있는 초기 북쪽 히브리어에 연결된 토속어의 쓰여진 버전일 것이다. 중기 히브리어는 **쓰여진(written)** 언어로 이어지면서 폭넓은 문어의 다양함을 창조하기위해 성서히브리어와 미슈나히브리어 이 양쪽을 이끌어들이는 저술가들에 의해 애용된다.

지난 마지막 세기에 **말해진 (일상, 구어체)** 언어로 다시 살아난 **현대 히브리어**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언어로 변형하고 있다. (Anchor, IV, 161쪽)///

### 3)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

**3-1)글쓰기와 발음(Writing and Pronunciation).**—히브리어는 Moabites와 Hebrews와 Phoenicians(페니키아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인들에게 전해 주었다)와 Aramaeans에 의해서 비슷하게(alike) 사용된 공통 셈어 알파벳으로 쓰였다[공통 셈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은 나의 언어 80쪽을 참조하라]. 가장 초기의 히브리어 예들은 Gezer(약 기원전 10세기 경)로부터의 ekffurhk 기원전 700년 경의 Siloam 연못의 비문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페니키아인들의 텍스트들에는 보다 더 이른 보기들이 있다. 히브리어에서든 페니키아에서든 그 철자들은 길고 바뀌어질 수 없는(unalter)것으로 남아있다. “네모 풀 스크립트”(square script)에로의 전이는 의심할 것도 없이 기독교 시대 이전에 아람어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서 성장한 결과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어로의 길에 의해서 야기됐다. 그 “앗시리아 스크립트”는 동부 Aramaeans의 필법(hand, 筆法)들이었다는 추측 하에서, 그 “Assyrian script”을 유대인들이 약 기원전 5세기 즈음에 채용했다. 전통은 이런 변화를 Ezra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비문들, 항아리 파편들(Ostraca)과 파피루스는 그것이 기원전 400년까지는 히브리어로 완성되지 않았던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필법의 다른 형식은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의 Egyptian Aramaic에서 발견된다. 이것들로부터 성서 수고(manuscript, 手稿)와 중요한 텍스트들과 대부분의 인쇄된 책들에서 사용된 “네모 풀” 철자들이 발전된다. 일상적인 류의 고찰에서 사용된 “랍비적인”(rabbinic)스크립트와 편지들과 비공식적인 문서들의 “필기체”(cursive)글쓰기(writing)는 일반적으로 인쇄되지 않았다.

/ 구약의 수고(manuscripts, 手稿)에서 쓰여진 그리고 우리의 성서 판(editions)들이 그것으로 인쇄되는, 지금 사용 중인 히브루 문자들은 흔히 네모 풀 글자(אָבֳרֵב, square character)라고 불리운다. Assyrian character(אַשּׁוּרִי)도 네모풀이지만 근원적으로 사용된 것들은 아니다—여기에서 אַשּׁוּר(아수르)라는 이름은 Aramaeans에 의해 거주지가 된 지중해 나라들을 포함하기 위한 폭 넓은 감각에서 사용된다. Stade in ZAW. 1882, p.292f.를 비교하라. 고대 히브리어 글쓰기를 위한 다른 어떤 이름들에 관해서는 G.Hoffmann, ibid. 1881, p. 334 ff.; Buhl, Canon and Text of the O.T. (transl. by J. Macpherson), Edinb. 1892, p. 2000).

기원전 9세기 초엽과 8세기 후반부의 공공적인 기념물들에 사용됐던 것으로서의 고대 히브루(또는 고대 가나안닛쉬, Old Canaanitisch)글쓰기는 Siloam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Mēša의 비문에서 보여질 수 있다. 이 책[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on E. Kautzsch, 1995,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s. 26; Gesenius' Hebrew Grammer ed. E. Kautzsch(trans. A.E.Cowley, 1970(1910), p.24) 여기에서는 앞목적으로 이 고대 가나안 글쓰기(쓰기법)이 모든 셈족 알파벳의 어머니였다고 추측된다. ZDMG, 1909, p.189ff., 그러나, Prätorius는 남부 셈어 알파벳은 Měša'글자 또는 어떤 친족의 글자로부터 파생된 것도 아니며 더 오래된 스크립트로부터도 파생된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리고 훨씬 더 이른 형식의 글쓰기로부터 파생됐다고 믿을 만한 좋은 근거를 보여주었다.

Alt-hebräisch		Samaritanisch		Alt-aramaisch		Aram.-Hebräisch			
Stempel u. Gem. 5./6. Jh. n. Chr.	Münzen 7./8. Jh. n. Chr.	Alte Stempel 9.-10. Jh. n. Chr.	Alte Handschrift 11.-13. Jh. n. Chr.	Zenjur 13./14. Jh. n. Chr.	Spätere Handschrift 14.-16. Jh. n. Chr.	Hebr. <i>Qari</i> 17.-19. Jh. n. Chr.	Ar. 20. Jh. n. Chr.	Hebr. <i>Qari</i> 21.-23. Jh. n. Chr.	Ar. 24.-26. Jh. n. Chr.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ב	ב	ב	ב	ב	ב	ב	ב	ב	ב
ג	ג	ג	ג	ג	ג	ג	ג	ג	ג
ד	ד	ד	ד	ד	ד	ד	ד	ד	ד
ה	ה	ה	ה	ה	ה	ה	ה	ה	ה
ו	ו	ו	ו	ו	ו	ו	ו	ו	ו
ז	ז	ז	ז	ז	ז	ז	ז	ז	ז
ח	ח	ח	ח	ח	ח	ח	ח	ח	ח
ט	ט	ט	ט	ט	ט	ט	ט	ט	ט
י	י	י	י	י	י	י	י	י	י
כ	כ	כ	כ	כ	כ	כ	כ	כ	כ
ל	ל	ל	ל	ל	ל	ל	ל	ל	ל
מ	מ	מ	מ	מ	מ	מ	מ	מ	מ
נ	נ	נ	נ	נ	נ	נ	נ	נ	נ
ס	ס	ס	ס	ס	ס	ס	ס	ס	ס
ע	ע	ע	ע	ע	ע	ע	ע	ע	ע
פ	פ	פ	פ	פ	פ	פ	פ	פ	פ
צ	צ	צ	צ	צ	צ	צ	צ	צ	צ
ק	ק	ק	ק	ק	ק	ק	ק	ק	ק
ר	ר	ר	ר	ר	ר	ר	ר	ר	ר
ש	ש	ש	ש	ש	ש	ש	ש	ש	ש
ת	ת	ת	ת	ת	ת	ת	ת	ת	ת
י	י	י	י	י	י	י	י	י	י
כ	כ	כ	כ	כ	כ	כ	כ	כ	כ
ל	ל	ל	ל	ל	ל	ל	ל	ל	ל
מ	מ	מ	מ	מ	מ	מ	מ	מ	מ
נ	נ	נ	נ	נ	נ	נ	נ	נ	נ
ס	ס	ס	ס	ס	ס	ס	ס	ס	ס
ע	ע	ע	ע	ע	ע	ע	ע	ע	ע
פ	פ	פ	פ	פ	פ	פ	פ	פ	פ
צ	צ	צ	צ	צ	צ	צ	צ	צ	צ
ק	ק	ק	ק	ק	ק	ק	ק	ק	ק
ר	ר	ר	ר	ר	ר	ר	ר	ר	ר
ש	ש	ש	ש	ש	ש	ש	ש	ש	ש
ת	ת	ת	ת	ת	ת	ת	ת	ת	ת
י	י	י	י	י	י	י	י	י	י
כ	כ	כ	כ	כ	כ	כ	כ	כ	כ
ל	ל	ל	ל	ל	ל	ל	ל	ל	ל
מ	מ	מ	מ	מ	מ	מ	מ	מ	מ
נ	נ	נ	נ	נ	נ	נ	נ	נ	נ
ס	ס	ס	ס	ס	ס	ס	ס	ס	ס
ע	ע	ע	ע	ע	ע	ע	ע	ע	ע
פ	פ	פ	פ	פ	פ	פ	פ	פ	פ
צ	צ	צ	צ	צ	צ	צ	צ	צ	צ
ק	ק	ק	ק	ק	ק	ק	ק	ק	ק
ר	ר	ר	ר	ר	ר	ר	ר	ר	ר
ש	ש	ש	ש	ש	ש	ש	ש	ש	ש
ת	ת	ת	ת	ת	ת	ת	ת	ת	ת

Schrifttafel zu Gesenius-Kautzsch, hebräische Grammatik, 28. Aufl.

기원전 2 세기의 Maccabaeen 동전들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신구(germs, 裝身具)들에 새겨진 글자들도 여전히 이것과 많이 닮아 있다. 고대 히브루 글쓰기와 페니키안 글쓰기는 거의 동일하다. 다른 종류들의 글쓰기 역사를 유추하여 보자면, 이런 기념물의 글자로부터 그리고 그 글자와 나란히 덜 고대적인 그리고 어떤 길에서는 더 편리한 둥근 스타일이 더 부드러운 재료들과 가죽(skins)들과 나무껍질들과 파피루스와 이와 비슷한 것들을 사용하여 초기에 발전했다고 추측될 수 있으리라. 이것을 Samaritans(사마리아인들)은 Jews(유대인)들과의 자신들의 분리 후에 보존한 반면, 유대인들은 (기원전 6 세기와 4 세기 사이에) 그것을 아람어 글자로 점진적으로<sup>2</sup>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부터 Egyptian-Aramaic과 Nabatean과 특히 Palmyrene와 같은 그런 현존해있는 형식들의 아람어 글쓰기와 결과적으로 아주 닮은 네모꼴 글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4세기 경부터 3세기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생겨난다. 고대 네모꼴 글자로 된 히브루 비문들 중에서 요르단 강 입구 북-동쪽 15.5마일에 있는 'Arâq al-Emir의 그것은 아마 기원전 183년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주장된 것과 같은 176년은 아니다. Driver와 Lidzbarski는  $\text{הַעֲרַבְיָה}$ 이 아니라 올바르게  $\text{הַטּוֹבִיָּה}$ 이라고 지금 읽는다.

1905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석관에 인각된(sarcophagus-inscriptions, 石棺-印刻)것들은 거의 예외없이 순수한 네모 글자를 드러낸다.

네모글자 이것은 수세기 거치는 과정에서 거의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루 수고(MS. 手稿)의 연대(age, 年代)는 글씨 체를 봐서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 가장 오랜 것으로 알려진, 기원후 첫 세기 말 또는 두 번째 세기의 시작 즈음의 성서 단편은 십계명과 Dt 6<sup>4f</sup>.를 포함하고 있는 (1902년에 발견된) **Nash papyrus**이다. N.Peters, Die älteste Abschr. der 10 Gebote, Greibg. i. B. 1905. 성서의 현실적인 수고들(MSS)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마 Ginsburg(Introd., p. 469ff.)의 60 개 주요한 수

---

<sup>2</sup> 그 텍스트의 성립에 있어 더 초기와 더 후기 형식의 전이(transitional, 轉移)적인 뒤섞임의 결과에 관해서는 R.Kittel, Ueber d. Notwendgk. d. Heraug. einer neuen hebr. Bibel, Lpz. 1901, p. 20 ff. – L. Blau, 'Wie lange stand die altbebr. Schrift bei den Juedn im Gebrauch?' in Kufmanngedenkbauh, Breslau, 1900, p. 44ff.를 참조하라.



고들의 첫 머리에 그에 의해 기술된 기원후 820-850 년의 것일 것이다. 다음 연대의 것은 Cairo(897 A.D., cf. the art. 'Scribes' in the Jew. Encycl. xi 그리고 Gottheil in JQR. 1905, p.32)에 있는 Moses bes Asher의 사본(codex, 寫本)이다. the Codex prophetarum Babyon. Petropol.의 날짜(기원후 916년)은 아주 확실하다. -쉬나고개(회당) 두루마리에서는 곧은 스트로크(strokes)들과 네모 모서리들과 독일어와 폴란드어 '명칭들'(tāgin, titles)의 수고들을 지닌 Tam-글자(character)와 그리고 둥근 문자(letters, 文字)과 스페인어 명칭의 수고들을 지닌 외래 글자가 구분된다. 전자, 즉 Tam-글자는 12세기 R.Yishāqī의 손자 Rabbi Tam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우게 됐다./

히브리어 고 문서학은 어떤 수고의 날짜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까지 충분히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의 발원 지역은 인식될 수 있다. 가장 선명한 구분들은 스페인어와 불어와 이탈리아어와 Maghrebi와 그리이스어와 시리아어와 이집트어와 예멘어와 페르시아어와 Karaité 필법(hands)들 사이에 존재한다. 어떤 글자 맞추기식의 시(poems, 詩)들의 순서를 지니는 22 개 문자들로 된 이 알파벳이 그 이후로 우세하게 됐다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증명했던 것은 아니다. 구약의 그리이스어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 심지어 확실하게 고정된 것이 아닌 기호들이 있었다. 숫자(figures)의 부족으로 자음들이 마찬가지로 수(numbers, 數)로 봉사했다. 이것의 흔적을 우리는 Maccabaeen 동전들에서 발견한다.

기원전 5 세기의 페니키아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고대 히브리인들도 수로서의 특별한 신호(signs)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러한 용법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첫 번째 반란(기원후 66-70)의 동전들에서처럼, 이런 의도로 그 알파벳의 문자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ālef에서 têt는 1에서 9를 나타냈으며, yôd에서 šādê는 10에서 90을, qôf에서 tāw는 100에서 400을 나타냈다. 이런 체계의 흔적은 구약에서 발견됐다. 예를들어 아브라함의 “훈련받은 남자들”의 숫자는 아브라함의 청지기 Eliezer(창세기 14장 14절; 15장 2절) 이름의 문자들의 숫자 값이 더해진 318명이다. 그리고 Ezekiel(에스겔)이 좌편으로 누운 390일은 ymy msr(“포위의 날”, 에스겔 4장 4-9절) 문자들의 수의 값과 똑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70인역(Septuagint)은 그 본디 수를 반드시 나타내는 다른(그리고 지성적인) 숫자 값들을 지닌다. 390일은 그 문맥에 정교하게 간섭함에 의해서 획득 됐을 것이다.

이런 알파벳은, w와 y가 u와 i를 가리킬 수 있는 동안 ' ('ālef)는 때로 a를 그리고 보다 드물게는 o를 나타냈으며 그리고 h는 다양한 마지막 모음들을 지원했다

(support)는 것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자음적이다. 비문들에서의 이런 보조 자음들은 단지 산발적으로만 쓰였으며 그리고 자주 잘못, 단지 후기 학자들에 의해서 성서에 끼어 넣어졌다. 이런 알파벳이 불완전 했다는 것은 모음의 부재와는 별도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첫째, 고대 버전들은 h와 ' ('ayin) 각 각은 아랍인들이 구별 (diacritical)점들에 의해 구분했던 더 강한 소리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며, 둘째, 맛소라 학자들은 그것들의 기식음으로부터 그것들의 무기식음(unaspirated, 無氣息音)을 구별하기 위해 b, g, d, k, d와 t 안에 점 하나를 집어 넣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알파벳은 다섯 치찰음(sibilants, 齒擦音)을 소유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풍부했다: z, 강하게 발음된(articulated) s, 옛 비슷해서 둘 중의 하나가 폐기된 s의 두 형식들, 그리고 sh(š).

글쓰기는 *오른 쪽으로부터 왼 쪽*이었다. 가장 이른 비문들에서의 낱말들은 점에 의해서 나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장(seals, 印章)과 동전(coins, 銅錢)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낱말들의 분리**는 그 성서의 초기 수고들에서는 비규칙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버전들은 자주 다른 나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들은 맛소라 학자들의 시대 이전에 k, m, n, p와 s의 *특별한 최종 형*들의 도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완성됐을 것처럼 보인다. 히브리어는 홀로 학식있는 자들의 언어로 더 되어갔으므로, 그 성서의 읽음에 있어 본디 발음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점 점 증가됨이 느껴졌다. 이 때문에 모음없는 텍스트는 아주 불완전한 문서(instrument)였다. 긴 모음과 이중모음을 표시하기 위해 w와 y, ('ālef)와 h의 삽입은 첫 단계였다. ('ālef)와 h의 삽입은 아주 초기였다. 그러나 그리이스 버전은 자주 w와 y같은 그런 것이 없이 읽음을 함축했으므로, 이것들은 아마 기원전 2세기 이후까지는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 성서들에서 발견되는 모음들의 체계는 *Syriac vocalization(시리아어 모음찍기)*를 모방하여 기원후 6세기와 8세기에 유대 문법가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훨씬 후대의 발명이다. 세 가지 주요 체계가 발명됐다: 대부분 선 윗 부호(supralinear signs)들을 지니는 바빌로니아 체계; 그것들을 주로 선 아래에 지니는 팔레스타인 체계; 그리고 여기[아래 도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Tiberian 체계. Tiberias의 학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것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체계는 현대 성서에서 발견된다. 다른 언어가 거의 글 쓰기에 있어 가리키지 못하는 길어짐과 가락과 후음들과 등 등에 의해 야기된 모든 모음-변화들을 보여줄 정도로 그것은 정확했다. 성서 이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런 모음찍기는 쉬나고게와 학교들에서 성서를 읽을 때에 준수됐던 전통적인 발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것이 고대 히브리어의 진실한 발음을

나타내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좋은 근거의 의심들이 있다. 이것은 히브리 이름들의 앓시리안 글쓰기에 의해서 그리고 이브리어 이름들과 낱말들의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의 필사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Dibon” (Hebr. Dîbôn)은 아마 “Daibon” (Hebr. Daibôn)으로 발음됐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리이스어 Δαιβων이 진실하다면 말이다. 비교 문헌학이 근원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a를 칠십인역(Septuagint)이 보존하고 있는 곳에서 보다 후의 i 또는 e를 그 구뎡점이 자주 드러낸다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될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조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그것으로 필사되고 있는 알파벳은 필요한 소리를 나타내는 어떤 수단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Hoshea”(Hebr. Hôšēa)의 앓시리안 필사 Ausi와 Usi는 어떤 다른 발음도 함축하지 않는다. 앓시리안은 h, o와 e에 해당되는 어떤 부호(signs)들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그리이스어 Ωσηε가 여기에서 전통을 확인해준다. 나아가서 사해스크롤(문서, scrolls)들은 발음의 다양함에 관한 선명한 힌트들을 허락한다. 그렇지만 비록 맞소리 모음찍기가 때로 오류있다고 하더라도, 친족 언어들의 유추(analogy, 類推)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이유들이 그 전통의 일반적인 신뢰성을 증거한다. 맞소리 시기 또는 그 직후에 엑센트의 복잡한 체계와 같은 그런 다른 부호들이 산문작품들과 시적인 책들에 있어서 다르게 더해졌다.

*Hebrew Alphabet and Transliteration*

Hebrew letter	Transliteration	Simplified transliteration for some letters	Hebrew vowel	Transliteration	Simplified transliteration
א	'	' or a	◌	e	e
ב	b		◌	ē	
בּ	bh, v	v	◌	ē	
ג	g		◌	ē	
גּ	gh		◌	ē	e
ד	d		◌	e	
דּ	dh		◌	e	
ה	h	h or omitted	◌		
ו	w	w or omitted	◌		a
ז	z		◌	a	
זּ	h	h	◌	ā	
ח	t	t	◌	ā	
ט	y	y or omitted	◌	ā	a
כ	k		◌	ā	
כּ	kh	kh	◌		
ל	l		◌		
מ	m		◌	i	i
נ	n		◌	i	
ס	s		◌	i	
סּ	'	' or a	◌		
פ	p		◌	o	o
פּ	ph, f		◌	o	
צ	z	z	◌	o	
ק	q		◌	o	
ר	r		◌	o	o
ש	s	s	◌	o	
שׁ	sh	sh	◌	o	
ת	t		◌	o	
תּ	th	th	◌	u	u
תּ	th		◌	u	

## A. THE HEBREW ALPHABET

THE Hebrew alphabet consists of 22 consonants. They are:

Form	Name <sup>a</sup>	Transliteration <sup>b</sup>	Numerical Value
Finals א	'Ālep	ⓐ	1
(b) ב ב (כ)	Bêt, Bêt	b, b (bh)	2
(g) ג ג (ד)	Gîmel, Gîmel	g, g (gh)	3
(d) ד ד (ה)	Dâlet, Dâlet	d, d (dh)	4
ה	Hē	ⓑ	5
ו	Wāw	ⓐ	6
ז	Zāyin	z	7
ח	Hêt	ⓑ	8
ט	Têt	t	9
י	Yôd	y	10
(k) כ כ (כ) ך	Kap, <u>Kap</u>	k, <u>k</u> (kh)	20
ל	Lâmed	l	30
מ ם	Mêm	m	40
נ ן	Nûn	n	*50
ס	Sâmek	s	60
ע	'Āyin	ⓐ	70
(p) פ פ (פ) ף	Pē, Pē	p, p (ph)	80
צ ץ	Ṣâdê	ṣ	90
ק	Qôp or Kôp	q or k	100
ר	Rêš	r	200
ש ם	Šin, Šin	ś, š	300
(t) ת ת (ת)	Tāw, Tāw	t, t (th)	400

<sup>a</sup> A spirant letter (ph, th, &c.) is represented by a single underlined letter (p, t, &c.).

<sup>b</sup> The phonetic values are given on p. 3.

/3-2)자음들. 다른 모든 셈어 알파벳처럼,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도 단지 스물 두 개의 자음들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들 중 어떤 것은 마찬가지로 일종의 모음(vocal, 母音)적인 힘을 지닌다. 아래 표는 그것들의 모양과 이름과 발음과 숫자 값을 보여준다.

FORM.	NAME.	PRONUNCIATION.	NUMERICAL VALUE.
א	' <i>Ālēph</i>	' <i>spiritus lenis</i>	1
ב	<i>Bēth</i>	<i>b</i> ( <i>bh</i> , but see § 6 n)	2
ג	<i>Gimēl (Giml)</i>	<i>g</i> ( <i>gh</i> , " " " )	3
ד	<i>Dālēth</i>	<i>d</i> ( <i>dh</i> , " " " )	4
ה	<i>Hē</i>	<i>h</i>	5
ו	<i>Wāw (Wāu)</i>	<i>w</i> ( <i>u</i> ) <sup>1</sup>	6
ז	<i>Zāyīn</i>	<i>z</i> , as in English (soft <i>s</i> )	7
ח	<i>Hēth</i>	<i>h</i> , a strong guttural	8
ט	<i>Ṭēth</i>	<i>t</i> , emphatic <i>t</i>	9
י	<i>Yōd</i>	<i>y</i> ( <i>i</i> ) <sup>1</sup>	10
כ, final ך	<i>Kaph</i>	<i>k</i> ( <i>kh</i> , but see § 6 n)	20
ל	<i>Lāmēd</i>	<i>l</i>	30
מ, final ם	<i>Mēm</i>	<i>m</i>	40
נ, final ן	<i>Nūn</i>	<i>n</i>	50
ס	<i>Sāmēkh</i>	<i>s</i>	60
ע	' <i>Āyīn</i>	' a peculiar guttural (see below)	70
פ, final ף	<i>Pē</i>	<i>p</i> ( <i>f</i> , see § 6 n)	80
צ, final ץ	<i>Ṣādē</i>	<i>s</i> , emphatic <i>s</i>	90
ק	<i>Qōf</i>	<i>q</i> , a strong <i>k</i> <sup>2</sup> formed at the back of the palate	100
ר	<i>Rē</i>	<i>r</i>	200
ש	<i>Śīn</i>	<i>ś</i>	} 300
׃	<i>Śīn</i> <sup>2</sup>	<i>š</i> , pronounced <i>sh</i>	
ת	<i>Tāw (Tāu)</i>	<i>t</i> ( <i>th</i> , but see § 6 n)	400

<sup>1)</sup> Philippi, 'Die Aussprache der semit. Consonnten א und י,' in ZDMG. 1886, p. 639ff., 1897, p. 66ff., 는 '셈어 א und י 는 확실히 용법 상 자음들이다. 비록 자연스레 그것들이 모음들 즉 u와 i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자음적인 모음들이다' 라는 의견을 세부적으로 이유있게 이끌어 들인다.

<sup>2)</sup> 이 소리를 라틴어 q로 표시함은 아주 적절하다. 그것은 그 알파벳에서 셈어 ק (Greek κόππα)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sup>3)</sup>Nestle(Actes du onzième Congrès ... des Oeirntalistes, 1897, iv. 113ff.)는 그 본디 순서가 𐤀 𐤁임을 보여주었다. /

//고대 히브리어의 글쓰기와 발음은 자음들과 모음들과 그것들의 변이(alternation, 變移) 규칙들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

이스라엘릿(Israelites)은 자신들의 지역 안에 퍼져있는(current) 알파벳의 변하지 않는 특정형(version, 特定形)의 스물-두개-부호를 채용한다. 심지어 비록 스물-아홉개의 원시-셈어 자음(나의 언어 83쪽 표, 원시-셈어의 음성학적 가능 특성의 재구성을 참조할 것)들 중 스물-두개 보다 많이 보존했지만 말이다. 바로 위 표 1 참조할 것. 따라서 그들은 하나 이상의 값을 지는 어떤 부호들을 사용하도록 다그쳐왔다. 그러한 다중음(polyphony 多重音)의 하나의 보기(/š/- /ś/ > /š/-/s/)는 맛소라 모음점(pointing, 母音點)에 기록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생존했다. 그러나 두 개의 부가적인 보기들(/h/-/ḥ/, /ʕ/-/ġ/)을 위치시키는 고대 이론이 최근들어 확인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리 /t/-/t̄/, /p/-/p̄/, 등의 다중음은 다른 기원들을 지닌다(다음 쪽 표 1을 보라). //

TABLE 1. *The Hebrew Alphabet*. Letters are given with Tiberian pointing; final forms are marked by (f).

Letter	Transliteration	Notes	Letter	Transliteration	Notes
1 א	'	Glottal stop; realized as [θ] in final position, and sporadically as after [s].	11a כ, ך	k	See note to 2a, above.
2a ב	b	Plosive realization marked by point ( <i>dageš kal</i> ).	11b כּ, ךּ (f)	k, x	See note to 2b, above.
2b בֿ	b, v	Fricative realization marked by line ( <i>rafeh</i> ); originally a post-vocalic allophone, subsequently phonologized.	12 ם	l	
3a ג	g	See note to 2a, above.	13 ן, ף (f)	m	Possibly realized as [̃] (i.e. as nasalization of preceding vowel) in final position by 2nd-century BCE.
3b גֿ	g, γ	See note to 2b, above.	14 ן, ן (f)	n	See note to 13, above.
4a ד	d	See note to 2a, above.	15 ם	s	
4b דֿ	d, ð	See note to 2b, above.	16a ץ	' , '₁	Voiced pharyngeal approximant with glottal stop and/or creaky voice; realized as [ʔ] (= 1) or [θ] at Qumran, as [ʔ] by the Hellenized inhabitants of Haifa, Beisan, etc. in 2nd century CE, and as [ʔ], [ʔ], or [θ] in Samaritan RT.
5a ה, ך	h	Consonantal realization in final position marked by point ( <i>mappik</i> ); realized as [ʔ] (= 1) or [θ] in Samaritan RT.	16b ץ	g, '₂	Voiced uvular fricative; merged with 16a after 3rd century BCE.
5b הֿ	h	<i>Mater lectionis</i> for mid/low vowel in final position.	17a ם	p	See note to 2a, above.
6a ו	w	Babylonian RT had BH realization: [w]. Tiberian and Samaritan RTs had MH realization: [w] after [u], [v] (= 2b) elsewhere.	17b ם, ם (f)	p, f	See note to 2b, above.
6b וֿ	w	<i>Mater lectionis</i> for long (later also short) high/mid back vowels, esp. in final position.	17c ם (= 17a)	p	See note to 9, above. Iranian loanword in Dan. 11:45 (as realized in RT of Jerome's teachers and Tiberian RT) and Greek loanwords in MH.
7 ז	z		18 ן, ן (f)	s, c	See note to 9, above. Two variant realizations: fricative and affricate.
8a ח	h, h₁	Voiceless pharyngeal fricative; realized as [h] (= 5a) or [θ] at Qumran, as [h] by the Hellenized inhabitants of Haifa, Beisan, etc. in 2nd century CE, and as [ʔ] (= 16a), [ʔ] (= 1), or [θ] in Samaritan RT.	19 ט	k, q	See note to 9, above. Transliteration with q is the norm today; it is accurate for Arabic, but misleading for Hebrew.
8b חֿ	h, h₂	Voiceless uvular fricative; merged with 8a after 2nd century BCE.	20 ך	r	
9 ט	t	"Emphatic": glottalic realization, later (by 10th century CE) replaced by velarized (= Arabic) realization.	21a ן	s	
10a י	y		21b ן	ṣ	Voiceless lateral fricative, [h]. Jewish RTs have the LBH-MH realization [s] (= 15); Samaritan RT has the Israelite realization [ṣ] (= 21a).
10b יֿ	y	<i>Mater lectionis</i> for long (later, sporadically also short) high/mid front vowels, esp. in final position.	22 ח	t	See note to 2a, above.
			22b חֿ	t, θ	See note to 2b, above.

### //3-3)모음들(Vowels).

윗 표 1에서 보여진 다중음의 다른 유형은 h와 w와 y의 그것이다. 이 세 문자들은 자음들과 마찬가지로 모음들을 그려나 단지 초보적인 애매한 투로만 나타낸다: 모음 문자들로서의 그것들의 사용(matres lectionis)이 모든 위치들에서 일관적인 것은 아니며, 그리고 대부분의 시기들에 모음소(Vowel phonemes, 母音素)의 갯



수는 여섯 이상이였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는 많은 것을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 두는 고도의 1 자 1 음적인(homographic)스펠링이였다.

TABLE 2. The Tiberian Vowel Signs (with matres lectionis)

Sign	Name	Transliteration	
		Biblicists	Linguists
1a	šerek > kibbuš > kubbuš	u	u
1b	šerek > šuruk	û	u <sup>w</sup>
2a	helem > holam (haser)	ō	o
2b	helem > holam (male')	ô	o <sup>w</sup>
3a	kameš > kamaš (gadol)	a	ā, ʾ
3b	kameš > kamaš kašan (in closed unstressed syllables)	o	ā, ʾ
3c	ḥataf kameš > ḥataf kamaš	ō, o	ā, ʾ
4a	pataḥ	a	a
4b	ḥataf pataḥ	ā, a	ā
5a	segol	e	ē, ā
5b	ḥataf segol	ē, e	ē, ā
6a	šeri > šere (haser)	ē	e
6b	šeri > šere (male')	ē	e <sup>y</sup>
7a	ḥerek > ḥirik (haser)	i	i
7b	ḥerek = ḥirik (male')	î	i <sup>y</sup>
8a	šewa na' (mobile)	ē, e	ē, ʾ
8b	šewa nah (quiescens)	none	none

[그러나] 이러한 [다중음적인] 상황은 성서의 경우에 ‘짜증’(intolerable)나도록 한다. 그렇다면 그 탈무드가 회당에서 독자에게 영감을 주는 데에 그것의 숙달이 본질적이었던 공식적인 성서읽는 전통(offical Biblical Reading Tradition)(mikra’)에 대한 많은 지시를 포함한다는 것은 요상한 일이 아니다. 사실 그 때 팔레스타인과 바빌로니아에는 많은 읽기전통이 있었다. 그것들은 Masoretes 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학교들의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탈무드-이후 시기에

에 받아들여진 자음 텍스트에 ‘모음점’(points)들을 끼워 넣음을 통해 쓰기법(Writing)으로 환원된다. 동일한 부호들이 미쉬나 히브리어의 팔레스타인과 바빌로니아의 읽기 전통들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됐다. 신뢰할만한 수도들은 이것들은 세부적으로 성서 읽기 전통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맛소라 읽기 전통들 사이의 다름들은 대부분 실체 보다는 오히려 방언적인 다름들이다. 각기 여러 하위-체계들을 지니는 Tiberian과 Babylonian 체계들은 각각 대조되는 일곱 개와 여덟 개의 모음 질들을 구분하는 반면 다양한 팔레스타인 체계들과 하위-체계들은 다섯 또는 여섯 또는 일곱 개의 모음 질들을 구분한다. Tiberian 체계를 위해서는 위 쪽 표 2를 보라. 그 체계들은 [모음] 목록(inventory) 뿐만 아니라 영향의 범위(incidence)에 있어서도 다르다. 예를들어 쌍을 이루지 않는 자음에 의해 닫힌 무 강세(unstressed) 음절의 경우, 히브리어-이전의 짧은 /u/의 정상적인 Tiberian 반영은, Babylonia /u/와 Palestinian /o/, /ā/, 그리고 /a/에 상응하는, /ā/이다—아래 표 3을 보라.

TABLE 3. Reflexes of Pre-Hebrew Vowels in the Hebrew Reading Traditions. Stressed vowels are marked by ˊ. Reconstructed forms are marked by \*. The attested form of Palestinian *ḵārbān* has only the first vowel marked.

	Vowel Number		
	1	2	1 3
Pre-Hebrew	* <i>ḵudḵúḵd-</i>		* <i>ḵurbá:n-</i>
Babylonian	<i>ḵudḵód</i>		<i>ḵurbān</i>
Palestinian (cf. Josephus-NT)	* <i>ḵodḵód</i>		<i>ḵorbān</i> <i>κορβαν</i>
Tiberian	<i>ḵāḵḵód</i>		<i>ḵārbān</i>
Palestinian	* <i>ḵāḵḵód</i>		<i>ḵārbān</i>
Samaritan	<i>ḵadḵód</i>		* <i>ḵārbān</i> <i>ḵārbān</i>

옆 표 3에서 보여지는 자료는 맛소라 적이지 않는(non, 非) 읽기전통들을 포함하는 모든 읽기 전통들을 분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아래 표 4를 보라

모음의 량(quantity, 量)에 대해서는 Tiberian 체계와 Babylonian 체계 양자

TABLE 4. Structural Classification of Hebrew Reading Traditions. The vowel numbers used in this table correspond to the vowel numbers used in Table 3.

		vowel 1 = vowel 3?	
		yes	no
vowel 1 = vowel 2?	yes	Samaritan	Palestinian
	no	Tiberian Palestinian	Babylonian

는 열린 강세없는 음절에서의 규칙적인 모음-부호들과 대조되는, 짧은 모음들을 대표하는 많은 묵합 모음부호들(hatefim)을 지닌다. 단지 만약 ḵ(šewa mobile) 와/또는 이차적인 엑센트(gaṣya)가 비(non, 非)-음소적라면 그 경우에만 닫힌 강세없는 음절에 길이대조가 놓여진

맛소라-이전의 히브리어는 그것이 기원후 1 세기 이후 강세-길어짐에 의해 말소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강세음절에 길이대조(length contrast)를 지녔다.

**Morphophonemics(형태음소학).** Tiberian(디베라) 읽기전통은 대부분 모음들(보통 역사적으로 짧은 모음들이다) 또는 반모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단히 큰 변동(alternations, 變動)들을 지닌다. 강세(stress, 強勢)(강세/강세없음, pretonic/anetpretonic, [pre-]pausal/contextual, construct/absolue)의 차이에 의해서, 음절적인 구조에 의해서, 그리고/또한 후두음(laryngeal, ʔ h ḥ ʕ, 喉頭音)의 근접성에 의해서 아주 많이 또는 근원적으로 조건지워진다. 아래 표 5는 아주 흔한 그 변동들 중 몇 몇의 예들을 제공한다.//

TABLE 5. *Tiberian Morphophonemic Alternations*. The main stress is marked by ' in context and by ˈ in (pre-)pause. Forms with neither sign are proclitic. Suffixed pronouns are preceded by a hyphen.

/i/	/e/	/e/	/a/	/ā/	/o/	/u/
lib:-P *tššibéˈnāḥ	leb tāšebnāḥ teléd yššal:éah	leb	teláqnaḥ yššal:āh way:elāk yitnahām	ʔāres ʔāmār dšbār-ām kāl	kól tāšobnāḥ māšōˈk	kull-ām tššubéˈnāḥ mštuˈkāḥ

### 3-3-1) Masorettes(맛소라 학자들).

맛소라 학자들은 표준 히브리어 성서 텍스트의 정확한 전달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성문화(codified, 成文化)하는 성서 텍스트 전통(Masorah)의 누적되는 몸체를 지키는 자들이다. 이들은 기원 후 7 세기와 10 세기 사이에 유대인을 교육시키는 바빌로니아 학교와 팔레스타인 학교에서 번영했으며, 고대 성서 수고들이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을 때인 1947년 전까지 알려진 모든 수고들에서 발견된 것으로서의 히브루 성서의 텍스트 전통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은 모두 인쇄판들로 나타나며 그리고 *Masoretic text*(MT)로 알려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히브루 성서의 텍스트는 세 가지 구분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성(antiquity, 古代性)과 고정성(stability, 固定性)의 순서에 따라, 기본자음들과, 모음문자들과, 그리고 모음과 엑센트들과 단음암송(cantillation, 單音暗誦)을 위한 맛소라 부호의 체계이다. 낱말 분리자들을 지니는 또는 지니지않는 그리고 단지 *matres lectionis*의, 즉 긴 소리 u와 i와 o를 가리키는 waw와 yod와 he의 흩뿌림(sprinkling)만을 지니는 그 유수-이전의 히브리어 스크립트로 쓰여진 자음 텍스트가 처음에는 있었다. 기원전 3 세기의 모세오경 고대 그리스어 본(version, 本)은 드문 드문 모음이 표시되는 바로 그러한 히브루 텍스트로부터 번역됐다.

성서의 연구와 암송이 학교들과 지방 회당들로 확산되면서 보다 더 많은 모음 문자들이 읽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 사해 근방의 *쿨란* 동굴들로부터 나온 성서 수고들 중 몇몇은 낱말들의 차이들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모음 문자들의 과도한 사용을 보여준다. 조절하에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랍비 재원들에 따라 세 가지 표준 두루마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 마당에 전시됐으며 그리고 “검열관”들은 공공 기금으로 유지됐다. 그래서 복사본들은 비교 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낱말과 스펠링들에 있어서의 일탈이 점점됐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후에 히브리어 성서 주위에 “울타리”가 완성됐다. 꿈란의 남쪽 Wadi Murabba'at 동굴에서 나온, 초기 꿈란 수고들과는 대조적으로 기원후 70과 150년 사이 날짜가 매겨지는 성서 수고 단편들은 우리의 인쇄된 히브리어 성서와 일치한다.

비록 단지 단편들만이 10세기 이전부터 전달되어 왔긴 해도, 그 텍스트의 전달은 중단없이 계속됐다. Origen과 Jerome은 랍비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의 고정성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 성서가 보가 초기의 텍스트적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웠다거나 또는 새로운 필사(scribal, 筆寫)적인 오류들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비록 전통이 주도 면밀하게 카피라이터의 작업을 감독했지만 보다 초기에 그 텍스트에 허용된 오류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 8세기

맛소라 학자들은 랍비의 권위와 다툼에 의해서 집중적인 성서 연구를 되살린 Karaism의 도전에 의해서 아마 자극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세심하게 기록하면서 그 텍스트에게 고정된 모음 부호들과 액센트들을 제공함에 의해서 잘못된 철자들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들을 고안했다.

시리아와 아랍의 비슷한 발전에 일치하는 기원후 8세기 경, 히브리어 모음적기(vocalization) 세 가지 체계들이 몇몇 초보적인 구별 부호들(diacritical marks)로부터 돌출했다. 동부 맛소라학자들이 활동했던 바빌로니아에서는 여섯 개의 모음 소리

Disjunctive Accents (DA)	
(1)	
a. <i>šillūq</i>	הַשְׁלִיחַ
b. <i>ʿatnāh</i>	אֲתָנָה
(2)	
a. <i>šəgōlāʾ (šalšēlet)</i>	הַשְׁגֹּלָה (שְׁלֹשֶׁת)
b. <i>zāqēp (zāqēp gādōl)</i>	זָקֵף (זָקֵף גָּדוֹל)
c. <i>tiphāʾ</i>	תִּפְחָה
(3)	
a. <i>zarqāʾ</i>	זָרְקָה
b. <i>paššāʾ</i>	פָּשְׂחָה
c. <i>tibbāʾ</i>	תִּבְבָּה
d. <i>rēbbāʾ</i>	רִבְבָה
(4)	
a. <i>gerei (gerāyim)</i>	גֵּרֵי (גֵּרַיִם)
b. <i>pāzēr (pāzēr gādōl)</i>	פָּזֵר (פָּזֵר גָּדוֹל)
c. <i>tillāʾ</i>	תִּלְלָה
d. <i>līgarmēh</i>	לִגְרָמֵה
Conjunctive Accents (CA)	
<i>mūnāh</i>	מִנְחָה
<i>mēhūppāk</i>	מְהוּפָק
<i>mērkaʾ</i>	מֶרְכָה
<i>dargāʾ</i>	דָּרְגָה
<i>ʾazlāʾ</i>	אֲזֵלָה
<i>tēlīāʾ qāṭannā</i>	תֵּלִיָּה קָטַנְנָה
<i>gulgal</i>	גֻּלְגַּל
<i>mērkaʾ kēpūllā</i>	מֶרְכָה כְּפֻלָּה
<i>māʾyilāʾ</i>	מֵאֵיִלָּה (מֵאֵיִלָּה - מֵאֵיִלָּה)
Other Signs	
<i>maqṣēp</i>	מַקְסֵף
<i>gūʾyā</i>	גֻּיָּה (גֻּיָּה)
<i>pāšēq</i>	פָּשֵׁף

MAS.01. The accents of the Twenty-one Books.

Disjunctive Accents (DA)		Conjunctive Accents (CA)	
1. <i>šilluq</i>	שׁוּלְוֹק	1. <i>mūnāh</i>	מִנְחָה
2. <i>šatnāh</i>	שַׁטְנָה	2. <i>mērkaʿ</i>	מֵרְכָע
3. <i>šōlēh wē-šūred</i>	שׁוֹלֵה וְשׁוּרֵד	3. <i>šillū</i>	שׁוּלְוֹ
4. <i>rēbiāʿ</i>	רֵבִיאַע	4. <i>šarhāʿ</i>	שַׁרְחָע
5. <i>rēbiāʿ mūgrāi</i>	רֵבִיאַע מִגְרָאִי	5. <i>gulgol</i>	גֻּלְגוֹל
6. <i>šālleiṭ gēdōlā</i>	שַׁלְלֵיַט גְּדוֹלָא	6. <i>mēhūppāk</i>	מֵהֻפְּאֵק
7. <i>šinnōr</i>	שִׁנּוֹר	7. <i>šūlāʿ</i>	שׁוּלְעָע
8. <i>dēhī</i>	דְּהִי	8. <i>šālleiṭ qēṭannā</i>	שַׁלְלֵיַט קְטַנָּא
9. <i>šūzēr</i>	שׁוּזֵר	9. <i>šinnōrīt</i>	שִׁנּוֹרִית
10. <i>azla legarmeh</i>	אַזְלָא לִגְרַמֵּה		
11. <i>mēhūppāk legarmeh</i>	מֵהֻפְּאֵק לִגְרַמֵּה		

(Also *maqṣep*, *gāʿyā*, and *pāsēq*, as in the Twenty-One Books)

MAS.02. The accents of the Three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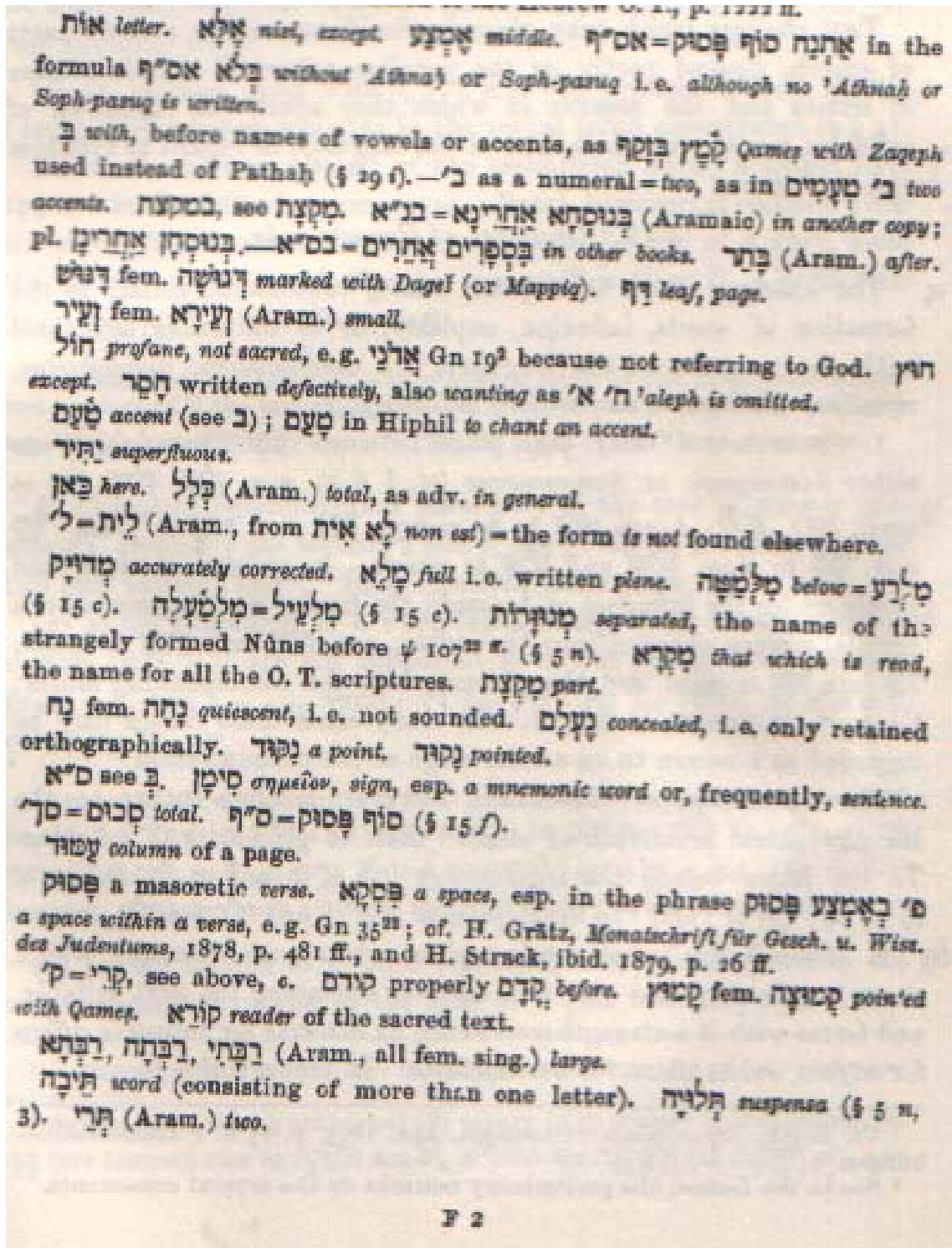
들과 강세와 무 강세 더하기 shewa mobile이 자음들 위 그리고 사이에 놓여지는 작은 문자 표시(marks, 表示)들과 점들의 연결에 의해 나타내진다. 두 개의 팔레스타인 체계 중에서 Tiberian 체계는 선 아래 점들과 대쉬(dasch, -)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대부분 각 모음의 질을 가리키는 13 개

의 모음 부호(signs, 符號)들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맛소라 학자들은 단음암송을 위한 음표(musical marks) 그리고 적절한 문장 나뉘를 위한 안내자들이 양자로서 봉사하는 엑센트들을 위한 그래픽적인 도식을 구성했다. 다양한 정도의 강세와 멈춤(pause, 休止)을 가리키는 이접(disjunctive, 離接)적인 엑센트들(또는 “Masters”, //위 표들//을 참조할 것)과 연속성을 표시하는 접속적인적인 부호들(“Servents”)이 있다[나의 다국어 Reading Card 0-4 참조할 것].

마찬가지로 성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색인(index, 索引)들도 편찬됐다. 일관적이지 않는 모든 스펠링들과 대안적인 읽기들(qere와 kethib)와 그 텍스트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독특함들이 표시되어 등재(registered, 登載)되고 헤아려졌다. 이런 축약된 표기법들은 텍스트 여백 위 아래와 옆에(marginal Masora)삽입됐으며; 그 수고의 끝에(final Masorah)각 책 안의 모든 문자들의 토탈적인 수들 조차 포함하는 모든 재료들이 알파벳 순서의 내용으로 배열됐다.

/ 성서적 텍스트에 수반하는 맛소라 장치(apparatus, 裝置)는 수고들의 여백의 위 아래 놓이는 1-1)Masora(marginalis) magna와 세로 줄[열]의 좌우에 그리고 세로 줄 사이에 놓이는 1-2)Masora(marginalis) parva로 이루어진 1)Masora marginalis와 그리고 Samuel, Kings, Minor Prophets, Ezra-Nehemiah, Chronicles, 각 각을 한 책(book, 冊)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여러 책들의 끝에 놓이는 Masora finalis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세 가지 모두에 관해서는 특히 Ginsburg, Introd., p. 423ff.,와 그리고 기원후 1009년의 St. Persburg MS.로부터의 맛소라 고찰(p. 983ff.)과 두 장들로된 Masora parva와 magna의 표본들(p.1000ff.)을 포함하는 부록들을 보라.

인쇄된 거의 모든 판들에서는 단지 Masora finalis만이 절들의 수와 그 책의 중간위치 등 등과 그리고 Masora parva로부터의 빈약한 발췌을 가리키면서 발견된다. 아래 스캔된 기교적인 표현들(이것들 중 몇 몇은 아랍어이다)과 축약어들의 알파벳 목록은 이 주제를 밝혀주는 보조적인 사전으로 충분할 것이다. 더 나아간 세



부 사항은 구약 히브리어 성서 Teile 본 부록에서 발견될 것이다./

9세기 끝 무렵에는 서부 또는 팔레스타인 학교가 Tiberias의 Ben Naphtali와 Ben Asher of Tiberias 라는 두 개의 주요한 학맥(familis, 學脈)으로 이어지면서 우세를 점하게 된다. 부록적인 소책자들을 지닌, 이들의 충분하게 모음찍힌 그리고 주석 달린 수고들은 모든 필사자(copyist, 筆寫者)들을 위한 모델들이 됐다. 자세한 모음 찍기를 포함하여, 이 두 학파들의 작업에 있어서의 다름은 현대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분별될 수 없다. Aaron ben Asher의 수고가 후에 Mainoides에 의해 인정됐으며 상대편의 필사본(copies, 筆寫本)들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히브루 성서 텍스트가 1524-25 년 Venice에서 D.Bomberg에 의한 두 번째 인쇄를 위해 준비되고 있을 적에, 편집자 Jacoben Hayim은 신뢰할만한 맛소라적 소책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위대한 스승들에 의해 준비된 더 오래된 수고(manuscript, 手稿)들이 그 편집자에게 이용될 수 없었다. 19세기에 기본적인 맛소라 저술들이 다시 재-점검되고 비판적으로 평가됐다. Cairo Geniza와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오래된 수고들을 위한 방법적인 조사는 중요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1937 년 R.Kittel의 BiBlia Hebraica의 세 번째 판이 Ben Asher 전통에 속하는 그리고 기원후 1008년 날짜가 메겨지는 본래 필사본(Leningrad Public Library, 목록 B 19a) 에 근거지워졌다. 기원후 930년에 Ben Asher 학맥의 Aron ben Moses에 의해 모음찍히고 주석 달린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발굴된 가장 진본(authentic, 眞本)인 맛소라 수고 Aleppo 필사본(codex, 筆寫本)의 부분은 히브루 대학 성서 기획팀에 의해 준비 중인 예루살렘 판의 토대를 구성한다.

### //3-4)문법(Grammer)

고대 히브리어 형태론(Morphology, 形態論)과 구문은 다음과 같은 표제(headings, 標題)들 하에서 논의될 수 있다.

**3-4-1)성과 수.** 성과 수의 범주들은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들에 공통이다. 그러나 쌍수는 소수의 일부 명사들, 즉 주로 척도와 계산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명사들에게 일반적으로 한정된다. 쌍을 이루는 몸-부분들을 가리키는 명사들과 함께 사용될 때 쌍수(dual, 雙數) 어미는 구조적으로 복수(plural, 複數)형 어미이다. 그것이 규칙적인 복수 어미들과 대조되지 않는 데다 수사들과 더불어 함께-나타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유사(pseudo, 類似)-쌍수’ 어미는 현대 아랍 방언들에서처럼 변

하지않는 진짜 쌍수와는 달리, 연계형(construct state, 連繫形)에서 감소된 이형(allomorph, 異形)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통시적(diachronic, 通時的)인 구분도 있다. 유사-쌍수는 미쉬나 히브리어에서는 변하지 않은 채 머무르지만, 진짜(true)쌍수는 부분적으로 ‘둘’이라는 낱말로 교체된다. 명사들의 복수는 보통 어미들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보충적(suppletive, 補充的)인 so(?)n과 bākār(각 각 še<sup>h</sup> ‘sheep/goat’와 šo<sup>w</sup>r ‘ox’의 복수들)는 접미화되지 않는다. 셈어학자들은 진실한 집합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명사들과 집단명사들을 기술하기 위해 ‘집합사’(collective, 集合詞)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4-2)한정사들(Definiteness).** 정관사는 주로 부가적인 것들로, 명사들과 형용사들 앞에 붙는다. 다른 셈어들의 용법과는 반대로 이것들은 지시 형용사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영어가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많은 문맥에서 상요된다. 비(In, 非)한정사 [곧 부정사(不定詞)]는 보통 정관사의 부재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종 종 ‘하나’(one)라는 단어가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 不定冠詞)로서 봉사한다.//

### 3-4-3)격(Case)과 State—형태론(Accidence)

히브리어는 말해지는 [구어(口語)적] 언어로서의 생명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된 이후 단지 수 세기 동안 취해졌던 심지어 고전 아랍어 보다 더 충분하게 여러 측면에서 발전했다. 초기 바빌로니아처럼 고전 아랍어도 격-어미들(단수주격 -u, 목적격 -a, 소유격 -i)을 지녔다. 이것들 중에서, 이름 “Methushalel”(Hebr. M<sup>t</sup>ūšā’el; cf. Bab. mutu ša ili, “man of God”)에서의 구약에 있어서처럼, 단지 잇따르는 소유격과 더불어서만 주격 -û의 흔적이 히브리어에 있다. 목적격 -ah는 비록 의미없는 것이기는 해도 시(poetry, 詩)에 산발적으로 살아 남았다. 히브리어에는 어떤 소유격 어미도 없다. 왜냐하면 때로 명사에 덧붙혀져 소유격을 지배하는 종결사(termination, 終結詞) -i는 아마 초기 바빌로니아의 그 -i처럼, 묶는 모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Ugaritic 방언에서도 발견되는 위치격 -āh, “toward”는 반드시 목적격 종결사와 주의깊게 구분되어야만 한다. 복수 -îm과 쌍수 -ayim은 바빌로니아(복수주격 -û와 acc.-gen. -i; 쌍수주격. -ân 그리고 acc.-gen. -ên) 그리고 아랍어(복수주격 -ûna 그리고 acc.-gen. -îna; 쌍수주격 -âna 그리고 acc.-gen. -aina)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유한 4격 어미들이다. 가나안넛 어구주석(glosses)들 šamuma와 šamema(cf. Hebr. šamayim) “heaven”은 두 개의 복수 격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들 중 그것의 복수 pānim(cf. Bab.-Ass. pānū), “face”가 한 요소인 그 이름



“Penuel”(Hebr. P<sup>n</sup>ûēl)과 “Peniel”(Hebr. P<sup>n</sup>îēl)의 대안적인 형식들은 히브리어에서의 유일한 생존 흔적이다. 그렇다면 가장 초기의 히브리어는 현대 아랍어가 지니는 어떤 수준에 있다 왜냐하면 목적격만이 유일한 격이기 때문이다[나의언어 90쪽 도식 ‘셈어의 주어표지들’ 참조할 것].

//원시-셈어 격 체계(나의 언어 86쪽 참조)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주로 그 소리 변화의 결과때문에 깨어진다. *고대 4 격 어미가 사라졌다*. 그것의 기능적인 상속인 전치사 <sup>ʔ</sup>et는 보통 한정(definite)명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심지어 그럴 경우에도 강제적이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šemen zayit ‘olive oil’과 ze<sup>ʔ</sup>t šemen ‘oil olive’와 같은 명사구들의 두 번째 (부가적인) 구성요소를 표기하기 위해 히브리어-이전(Pre-Hebrew)에 사용된, *고대 2 격 어미도 사라졌다*. 히브리어의 경우 이런 복합어들 갈라 놓는 것은 첫 번째 구성요소(the head)이다. ‘연계형’(construct state)이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구성요소는 ㄱ) 모음 환원(reduction, 還元)과 단모음화(monophthongization, 單母音化)와 그리고 ㄴ) 정관사의 말소(deletion, 抹消)를 포함한 복합어 과정 중에서의 많은 특징적인 변경들 겪는다.

복합어 과정은 반복(iterative, 反復)적이며, 그리고 많은 긴 연속적인 것(chains)들이 포착된다(예를들어 Leviticus 13:59와 I Chronicles 9: 13). 어떤 것이든 연속적인 긴 것들은 전치사 l- ‘to, of’의 삽입에 의해서 단절되는데, 간혹 선택적으로 관계사 <sup>ʔ</sup>āāer 또는 še-가 바로 뒤에 오기도 한다. Bar-Kokhaba 편지들과 Qumran Copper 스크롤에서의 še-l의 정서법은, 그러한 편지들과 미쉬나에서의 구문론적인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기원후 2 세기에 음소 하나로 분석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2 격 어구(constructions, 語句)들의 첫 구성 요소는 때로 두 번째 구성요소를 지시하는 접미 대명사를 취한다. 이러한 선행하는 2 격 대명사가 미쉬나 히브리어에서는 흔하다—그러나 단지 선행하는 šel 뿐이며,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단지 그것의 거의 드문 발생 중의 하나는 še-l에 선행한다: Song 3:7 mit:āto<sup>w</sup> šel:išlomo<sup>h</sup> ‘the bed of him, of solomon.’

### 3-4-4)어근(the root).

단지 자음들로만 작성된 사전적 음소들은 실제로 구문적인 모든 범주들의 구성원들로 격리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동사에서만 이런 ‘어근들’은 많은 수의 대조되는 ‘패턴’들과의 ‘얽혀짐’(interdigitation)에 자유롭다(나의 언어 84-85쪽 참조).

동사의 어근은 종종 네 개, 드물게는 다섯 개의 자음들이지만 보통 3 개의 자

음들(triliteral)이다. 공시(synchronously, 共時)적으로 자음 두 개인 어근들은 주로 자음 세개인 것들의 이형(allomorph, 異形)들로 주로 발생한다. 통시(diachronic, 通時)적인 관점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문자[=자음] 두 개적인 이형들은 문자 두 개로 이루어진 동사들이 공정하게 혼했을 때인 아마 더 시원적인 단계의 유산일 것이다. 이런 빛으로부터 보자면, 대부분의 약 변화 동사들(아래 표 6을 보라)반모음 또는 자음 길이의 덧붙임을 통해 ‘세 문자화 된’ 본디 두 문자 동사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단일한 두 문자적인 것의 세 문자 화 된 것들 두 개 사이의 변경(變更)을 발견하는 것은 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y-g-r ~ g-w-r ‘be afraid’

TABLE 6. *Roots with ‘Weak’ Radical*. Verbs are in the 3sg. masc. imperfect. The three positions within the triliteral root are numbered I, II, and III; thus a In root is a root with *n* in the first position.

Root	Class	Verb	Meaning
n-f-b	In	yīf:ōb	blow (wind)
		yāf:īʔb	cause to blow
y-f-b	Iy	yēfēb	sit, dwell
		yoʔfīʔb	cause to sit/dwell
f-w-b	IIw	yāfūʔb	return
		yāfīʔb	cause to return
f-b-y	IIIy	yīfbēʔ	capture
r-b-b	II = III	yāsōb/yīs:ōb	go around
		yāsēb	cause to go around

그리고 t-w-b ~ y-t-b ‘be good’ (완료 ~ 미완료 양자). 세 문자화의 예들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시기로 부터 인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성서히브리어 bān-ām > 미쉬나 히브리어 bān-ām ‘he built them’

그리고 성서히브리어 yim:ād > 미쉬나히브리어 yim: ādeq ‘it may be measured’.

세 문자화는 두 문자[어근]들과 마찬가지로 네 문자적인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비교적인 증거는 ʔākeb ‘heel’의 어근 ʔ-k-b와 ʔ-k-r(piʔel) ‘hamster’ 양자는 네 문자 어근 ʔ-r-k-b로부터 오며, 미쉬나 히브리어 ʔarkoʔb ‘ham, hock’ 안에 보존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어근 분류(위 표 6을 보라)를 포함하는 기록할만한 가치있는 통시적인 경향들은 IIy 동사들을 IIw 부류(때로는 마찬가지로 binyan의 변화와 더불어)로 그리고 IIIʔ 동사들을 IIIy 부류들로 전이시키는 경향을 포함한다.

### 3-4-5)시제와 시상(時相, tense and aspect)

성서히브리어는 시점적인(temporal) 그리고/또는 시상의(aspect) 등급(value)을 지니는 여섯 범형들을 지닌다. 편의상 어근 k-t-l ‘kill’의 1인칭 단수 예를 들어보면

아래 표 6-1과 같다:

A	완료	ḵāṭālti <sup>y</sup>
B	미완료	ʔeḵtōl
C	완료+와우 계속법/conversive	wăḵāṭālti <sup>y</sup> (osytone)
D	미완료+와우 계속법/conversive	wāʔeḵtōl
E	분사	ḵotēl
F	분사+보조사	(wə)hāyīʔti <sup>y</sup> /(wā)ʔehēyē <sup>h</sup> ḵotēl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ḵal 어간에서만. 아래 표 7을 보라) 역동적인(dynamic)

TABLE 7. *The Dynamic/Stative Opposition*

	Dynamic	Stative I	Stative II
	'write'	'be hungry'	'be small'
Perfect (3sg. masc.)	ḵāṭāb	rāṣēb	ḵāṭōn
Thematic vowel	a	e	o
Imperfect (3sg. masc.)	yīḵtōb	yirṣāb	yīḵtān
Thematic vowel	o	a	a
Participle (masc.sg.)	ḵotēb	rāṣēb	ḵāṭōn

과 정적(stative, 靜的)인 동사들 사이의 형태론적인 구분을 드러낸다. 좌측 표 7은 이상적인 패턴을 표시한다. 그러나 많은 예외들이 있다. 이런 예외들의 대부분은 (Tiberian에서 보다 바빌로니아 읽기전통에서 더) 완료의 어떤 형식에 있어서의 e

보다는 오히려 어간형성모음(thematic) a를 지니는 정적인 I 동사를 포함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쉬나 히브리어의 완료를 표시하는 정적인 것의 거의-토탈적인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조건지워진 병합(merger, 併合: 'Philippi의 법칙')으로부터 결과한다. 하나의 예외는 음성학적인 조건지움 보다는 오히려 형태론적인 것을 드러낸다. 동사 h-l-k 'go'는 남성에서 역동적인 것을 표시하는(hahāloḵ) 그러나 여성에서는 정적인 것을 표시하는(tihālak) 세 문자적 미완료를 지닌다.—아주 시원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유일무이한 현상.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위 '표 6-1'의 A-D는 표준성서히브리어에서는 싹점적인 의미를 지니나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시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 문체는 격렬하게 그리고 결론없이 한 세기 이상 토론됐다. 대부분의 논의는 C와 D 범형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심지어 비록 공시(synchronously, 共時)적으로 그것들이 각 각 B와 A의 단순한 다양함들(부분적으로 위치적인, 부분적으로 스타일적인)일지라도 말이다.

다음 쪽 도표 8은 A와 B의 연결(collocations, 連結)들이 시제(과거 대 미래)의

대조, 시상의 ???spective를 표현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을 것인 반면 (완료 대 미 완료) 시상의 대조는 A와 B를 서로가 아니라 E와 연결함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A와 B와 E가 쓰임새들의 당황케하는 다양함을 지니지만, 이런 특별한 기능들이 그 체계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TABLE 8. Use of Tense/Aspect Forms in Biblical Hebrew

Perfective:	Past	Future
	A	B
	<i>kaʔāšer ʔāšīʔtī lāšomroʔn . . . ken ʔeʔāšēʔ līruʔšālayim . . .</i>	
	as I did to Samaria . . . so shall I do to Jerusalem . . .	
	(Isaiah 10:11; cf. Exodus 10:14 and II Kings 10:18)	
Habitual:	A	B
	<i>ʔābīʔ yis:ar ʔetkem baš:oʔtīʔm waʔānīʔ ʔāyas:er ʔetkem bāʔakrab:īʔm</i>	
	my father flogged you with whips, but I will flog you with scorpions	
	(I Kings 12:11; cf. Joshua 1:17 and Jeremiah 44:17)	
Stative:	A	B
	<i>kaʔāšer ḥāyīʔtī ʔim mošēʔ</i>	<i>ʔehēysʔ ʔim:āk</i>
	as I was with Moses	I shall be with you
	(Joshua 1:5)	
Future:	Imperfective	Perfective
	E	B
	<i>hin:eʔ ʔoʔdāk mādab:eret ʔām ʔim ham:elek waʔānīʔ ʔāboʔ(?)</i>	
	while you are still speaking there with the king, I will come	
	(I Kings 1:14; cf. I Samuel 10:5 and Isaiah 65:24)	
Past:	E	A
	<i>wāhin:eʔ ʔoʔden:āʔ mādab:eret ʔim ham:elek wānāʔān . . . bāʔ(?)</i>	
	and while she was still speaking with the king, Nathan came	
	(I Kings 1:22; cf. Judges 13:9 and Job 1:13-19)	

사람들은 표준성서히브리어에서의 이런 범형들의 충분한 범위의 쓰임새들을 숙고할 때 A-B는 시제와 시상 양자에 의해서 기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된다. 단지 E에게만 단순한 기술 즉 미완려적인 시상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시제/시상 체계의 복잡함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꾸준하게 흐른다 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어원론적으로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명사적인—E 범형과 그리고 범형 F는 점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B의 기능들을 취했다.

- ㄱ)진행형: 표준성서히브리어에서는 묻는 형식의 현재 시제를 제외하면, 그러나 후기(late)성서히브리어에서는 예외없이, 이미 완전한 교체;
- ㄴ)관습적(Habitual): 성서히브리어에서는 부분적인 교체 이어 미쉬나히브리어에서는 완전한 교체(replcement).

ㄷ)미래: 종속적을 제외하면 미쉬나 히브리어에서의 커다란-규모의 교체.

ㄹ)법(法): 미쉬나히브리어에서의 부분적인 교체.

동시에 E는 수행적(performative)인 것을 포함한 완료 현재와 그리고 statives 타동사의 현재 라는 두 기능을 취한다. 이런 팽창의 결과는 [59쪽의 도표 6-1의] E [분사]는 자신의 시상적인 값을 상실하여 시제—미쉬나-이전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미쉬나히브리어에서는 비(non, 非)-과거—로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F의 확장 덕분에 히브리어는 미래(표준성서히브리어에서는 드물지만 꿈란히브리어와 미쉬나히브리어에서는 공통임)와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 후기성서히브리어에서는 드물지만 미쉬나히브리어에서는 공통임)와 명령형(미쉬나히브리어)에서의 habitual 시상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전시켰다.

**3-4-6)법(Mood, 法).** 부분적으로 자신의 범형에 있어 성서히브리어는 미완료는 (원시-서쪽-셈어적 명령형(jussive, 命令形)과 접속법의 합성(conflation, 合成)을 통시적으로 나타내는) 의지법(Volitive, 意志法)을 동사들의 세 범주들 곧 hif'il, IIIy, 그리고 IIw,y, .kal.에 있어서 직설법과 구분시킨다. 심지어 이런 의지 형들은 때로 표준성서히브리어의 직설법 쪽에 의해 교체된다; 그리고 미쉬나 히브리어의 경우 그것들은 혼하지 않으며 크게 어떤 문학적인 장르에 한정된다.

**3-4-7)Valence.**

다른 셈어와 같이 히브리어는 대 부분 다른 보다 더 기본적인 동사들로부터 동사들을 파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론적인 패턴들('stems'; Med/Mod. Heb. binyanim)의 확립된 체계를 지닌다. 아래 표 9의 관계는 성서 히브리어에 대해 공정하게 유형적이다: II는 의견상으로는 I의 재귀용법(reflexive, 再歸用法)이다. VII과

TABLE 9. Biblical Hebrew Binyanim

			A Perfect	B Imperfect	E Participle
I	<i>kal</i>	'be(come) holy/taboo'	<i>kādās</i> (~ <i>kādēšu</i> <sup>w</sup> )	<i>yīkdās</i>	( <i>kādō's</i> adj.)
II	<i>nif'al</i>	'reveal oneself as holy'	<i>niqdās</i>	<i>yīk:adēš</i>	<i>niqdās</i>
III	<i>pi'el</i>	'sanctify/purify'	<i>qid:ās</i>	<i>yākad:ēš</i>	<i>mākad:ēš</i>
IV	<i>pu'al</i>	'be sanctified/purified'	<i>qud:ās</i>	<i>yāqud:ās</i>	<i>māqud:ās</i>
V	<i>hif'il</i>	'consecrate/devote'	<i>hiqdā's</i>	<i>yāqdā's</i>	<i>maqdā's</i>
VI	<i>huf'al</i>	'be consecrated/devoted'	<i>huqdās</i>	<i>yūqdās</i>	<i>muqdās</i>
VII	<i>hitpa'el</i>	'sanctify/purify oneself'	<i>hitkad:ēš</i>	<i>yitkad:ēš</i>	<i>mitkad:ēš</i>

IV는 각 각 결국 I의 사역용법인 III의 재귀용법과 중간-수동(medio-passive)용법이며 그리고 VI은 그 자체 I의 두번째 사역용법인 V의 중간-수동 용법이다.

k-d-š의 미쉬나히브리어 차트는 II와 IV와 VII을 제외하면 훨씬 동일한 것이다. II는 더 이상 이 동사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의심할 것도 없이 II의 용법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표준성서히브리어의 경우, II는 I의 재귀와 중간-수동 양(both, 兩) 용법으로 봉사한다. 그러나 미쉬나히브리어의 경우 단지 중간-수동 용법만이 기능으로 생존하다. IVA-B는 미쉬나히브리어에서는 사실 모든 동사를 위해 존재하기를 그쳤다. IIIA-B의 중간-수동 용법으로서의 그것들의 기능은 (형식에 있어 nitad:aš로 변한 VIIA와 함께)VIIA-B에게 넘겨졌다. 이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IVE의 드문 기동(起動)적인 쓰임새가 (k-d-š와 더불어 자신의 첫 글자가 m-을 유지하는 그러나 다른 동사들과 더불어서는 n-을 지니는)VIII에게 전해진다.

위 관계들의 대부분은 valence의 대립에 상응한다. III과 V과 같은 사역[의 의미]가 그 동사에게 어떤 테마를 더해주는 반면 II와 IV와 VI과 VII과 같은 중간-수동

과 재귀/상호[의 의미]는 옆 표 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테마를 제거해 버린다.

TABLE 10. Hebrew Valence: Increase, Decrease, and Rearrangement

Binyanim	Root	Valences	Example
I, II	r-p-ʔ	2, 1	rāpāʔeniʔ Y, wāʔerāpē(ʔ) 'heal me, O Lord, that I may be healed' (Jeremiah 17:14)
VII, II	k-d-š	1, 2	hitkad:šsuʔ wākad:šsuʔ ʔet-beʔt Y. 'sanctify yourselves and sanctify the House of the Lord' (II Chronicles 29:5)
III, IV	b-r-k	2, 1	uʔbārek ʔet-beʔt ʔabdāškā . . . yāborak beʔt-ʔabdāškā 'and bless your servant's house . . . may your servant's house be blessed' (II Samuel 7:29)
V, VI	b-w-ʔ	3, 2	way:ābe(ʔ) hāʔēš ʔet-hāʔānāšim beʔtāʔ yoʔseḫ . . . huʔhāʔuʔ beʔt yoʔseḫ 'and the man brought the men to Joseph's house . . . they were brought to Joseph's house' (Genesis 43:17-18)
III, I	t-h-r	2, 1	tihartiʔk wālo(ʔ) tāhart 'I purified you, but you would not be purified' (Ezekiel 24:13)
V, I	š-w-b	2, 1	hāšivʔbeniʔ wāʔāšuwʔbāʔ 'bring me back that I may come back' (Jeremiah 31:17)
III, I	h-y-y	2, 2	ʔim-yāhay:unuʔ niḫyeʔ wāʔim-yāmiʔtunuʔ wāmātnuʔ 'if they let us live, we shall live; and if they put us to death, we shall die' (II Kings 7:4)
V, I	m-w-t	2, 1	
I, I	r-š-y	2, 1	bāmīrʔeʔ-t:ōʔ ʔerʔeʔ ʔotām . . . uʔmīrʔeʔ šāmen tīrʔeʔnāʔ 'in good pasturage I shall pasture them . . . and (in) rich pasturage they shall pasture' (Ezekiel 34:14)
II, II	h-l-k	1, 1	teḫālek hāʔāreš . . . yeḫālek ʔet-hāʔāreš 'the land shall be divided . . . the land shall be divided' (Numbers 26:53-55)
I, I	š-l-y	2, 2	wāšālāʔtāʔ ʔarmānoteʔhā sīrʔim kim:ōš wāhoʔaḥ bāmībšāreʔhā 'its palaces shall spring up (with) thorns; nettles and briars, in its strongholds' (Isaiah 34:13)

성서히브리어에서는 Valence 감소가 잔존의 테마들(류형 1)의 재 배열과 더불어, 또는 그 재 배열이 없

이 일어날 수 있다. 중간-수동[의 의미]를 파생시키는 과정은 전치사구에서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 쪽들의 주체를 허용하는 것 보다는 그 주체를 보통 제거해 버린다—따라서 중간-수동 동사들을 ‘그것의 능동인이 언급되지 않는 것들’로서 중세 히브리어는 기술한다. 유형 1 중간-수동은 그것과 일치하는 파생된 동사를 만들면서 4 격 만드는 것 <sup>ʔ</sup>et를 제거함에 의해서 본디 직접 목적어를 주어에 노출되게 한다. 그리고 유형 2 중간-수동 동사들은 ‘비인칭’이며(즉 3인칭 남성 단수에서 변화하지 않으며, 주어가 없고), <sup>ʔ</sup>et와 더불어 사용된다(표 10에서 Numbers 26:53-55). 부분적인 노출(advancedment, 露出)을 지닌 중간 유형도 마찬가지로 잘 존재한다. 사격(oblique, 斜格) 목적어들과 더불어 유형 2는 (아랍어에서처럼) 하나의 규범이다. 예를들어 Exekiel 10:13 lāhem ʔā(ʔ) ‘they were referred to’; Ezekiel 16:34 ʔaḥārahik lo(ʔ)zu<sup>w</sup>nā<sup>h</sup> ‘you were not sought (lit. whored) after’; Song 8:8 yəḏubar bāh ‘she shall be spoken for’. 미쉬나 히브리어의 경우, 유형 2는 사실 사라졌다. 비록 최소한도 신뢰가능한 수고들에서 그것에 관한 최소한의 예가 하나 있는 해도 말이다: Pesahim 7:7 še-n:izraḳ ʔēt-dāmo<sup>w</sup> ‘whose blood was sprinkled.’ 유형 2는, 불어처럼, 원시-셈어-이전의 경우 한정되지않은 3인칭 대명사를 포함하는 능동형이었던 niffal 어간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bunyan의 변화는 일관되게 III →IV와 V→VI의 경우에서만 valence의 변화를 생산한다; 이 쪽들 중 각 각은 원시-서부-셈어에서는 단일한 binyan을 포함했다. 표 10에서 보여진 다른 binyan 쪽들은 때로 구분된 valence들을 드러내기 실패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I 안에서 지니는 V 안의 동일한 valence를 지니거나 또는 그외의 V 안의 두 가지 의미들을, 곧 valence 증가를 지니는 것과 그것이 없는 것 예를들어 hib<sup>ʔ</sup>iʔš ‘stink(=bā<sup>ʔ</sup>aš); cause to stink’.을 지니는 전체 부류의 동사들(자동사 statives)이 있다.

그러나 Valence 증가/감소는 보통 binyan의 변화를 전제한다. 드문 예외들 중의 하나는 ʔal 동사 rāfā<sup>h</sup> ‘pasture(타동사와 자동사)’(표 10을 보라). 이 동사의 valenc-에매함은 셈어의 폭넓은 다양함에서 포착되므로, 그것은 binyan 체계의 창조에 선행하는 원시-셈어-이전(Pre-Proto-Semitic)무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리라.

valence 증가는 binyan의 증가 없는 어근의 보충적인 변화를 통해 결과될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성서히브리어 nātan ‘give’과 šām ‘put’은 ḥāyā<sup>h</sup>(be) (모두 ʔal)의 사역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여러 번 binyan 체계의 압력이 우세하다. 그래서 원시셈어가 š-t-y ‘drink’와 그것의 보충 사역 š-k-y 양자의 변화를 ʔal 어간에서 하는 동안 히브리어는 hiffil 어간에서 후자 변화를 한다.

valence의 단순한 재 배열은 성서히브리어에서의 binyan의 어떤 변화를 필연적 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3절(표 10을 보라)에서의 두 평행 불완전 행(hemistichs)들은 심층구조에 있어 동일하다—그러나 표층구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재배열을 드러내는 반면 두 번째에서는 드러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불완전행의 동사는 두 번째 불완전행에 마찬가지로 봉사한다 (Richard C. Steiner)//.

### 3-4-8)구문론(Syntax).

고전 히브리어 구문은 거의 배타적으로 병열(paratactic, 並列)적인, 종속적인 접속들이 극단적으로 드물다. 유수-이전의 글쓰기들에서는 많은 절(verses, 節)들과 심지어 전체 장들이 û- 또는 W<sup>o</sup>-, wa-, “and” 이외의 다른 어떤 접속사도 드러내지 않은 채 발견된다. 그렇지만 단조로운 것(monotony)이 아니다. 자주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비범한 기교가 시제들과 어순들을 다양화 함에 있어 노출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히브리인들은 그림을 묘사하듯 “만약 당신이 있을 한다면 당신은 살 것이다” 라는 일상적인 영어[한국어] 대신에 “이것을 한다 그리고 산다” 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거의 성서히브리어에 한정되는 구문구조인 “와우 계속법”(waw-consecutive) 혹은 오히려 “와우-conservative”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조 장치가 있다. 그 이외의 곳에서 와우-계속법은 단지 하나는 Moabite에서 그리고 하나는 아랍어 비문에서 그리고 Sbaean(남 아랍어) 방언에서만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쉬나히브리어가 흥기하기 전에 죽어 버렸다. 이 구문은 사건들에 관한 일련의 담화에서 각기 신선한 동사를 앞선 절과 연결시키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두 개의 히브리어 시제(tenses, 時制)들이 과거 또는 미래의 행위가 아니라 완성된 또는 미완성된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됐다. 따라서 와우-계속법 구문에 의해서 과거시간의 경우, 단지 첫 동사만이 완료형이고 대화는 미완료형으로 이어졌고 현재 또는 미래 시간의 경우, 그 첫 동사는 미완료형이고 이어지는 동사들은 완료형이다. 연이어지는 시간에서의 이런 과정은 더 무거운(heavier) 모음찍기를 지녔든 또는 그 동사의 엑센트를 변경시켰든, 일상적인 접속사 w<sup>o</sup> 또는 û- “and”의 다양함에 의해서 가리켜진다. 예를들어 haláktā wat-tiqṭōl은 “그대는 갔다 그리고 죽었다”를 뜻한다. 그리고 비슷하게 tēlēk w<sup>o</sup>-qātaltā’는 “그대는 갈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를 뜻한다. 여기에서 tiqṭōl과 qātaltā에서 보기화된 시형실들은 동부-셈어(Assyro-Babyloniaa) 말 안의 상응하는 형식들의 그 (가능하게 원시적인) 감각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런 구문의 다양한 쓰임새는 서로에 종속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동격인 긴 일련의 절들의 단조로움을 보완한다. 그러나 이런 용법은 그 유수 이후의 *아람어* 영향 하에서 죽기 시작했다. 그리고 *hālaktā w<sup>e</sup>-qātaltā*, “그대는 갔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tēlek w<sup>e</sup>-tiqtōl*, “그대는 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처럼 더 단순한 구문들이 후기 *히브리어*의 한 표시가 된다. 여기에서 반대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시제형식들이 서부-셈어(아람어와 시리아어 그리고 아랍어)용법과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의 **분사**도 이 두 시제들의 불충분함을 보충하는 데에 자유롭게 사용됐다. 이것 역시 아람어화 된 쓰임새이다. 다른 장치는 ‘and’에 의해서 이끌리는 어떤 절이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 술어로 봉사하는 “*부수적인(circumstantial) 절*”들이다. 예를들어 히브리인은 대등절의 안의 한정동사가 아니라 종속절의 자리에 분사를 사용하여, 종속절의 자리에 “*발* 같고 있는 그를 그가 발견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그는 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발을 같고 있다” 라고 말한다.

#### //4) 현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는 셈어 북서 가지로부터 유대민족 역사 과정의 여러시기들을 걸쳐 전개됐다: *성서히브리어*(약 기원전 1300년부터 기원전 200까지)는 모세오경과 초기 예언자들로부터 팔레스타인의 로마 점령에 대한 비성공적인 반란이 잇따르는 시기까지; 현자(the sages, 賢者)들의 언어인 *미쉬나* 또는 *랍비 히브리어*는 기원후 800년 까지; (Eytan 1971, Kutscher 1982)현대까지 지속되는 *중세 히브리어* (Medieval Hebrew). 현대 히브리어 라는 용어는 두겹의 언어학적 ‘부활’(revival, Blau 1981)에 적용된다. 첫째, 현대 히브리어는 중앙유럽—후에 동부 유럽에서 Yiddish 자국어 보다는 덜 지방적인 고전적인 매개체로서의 고대 히브리어 사용을 전파했던, 유대 저술가들과 지성인들 중에 계몽(Haskala)의 충격 하에서 18세기 후기에 문어로서 돌출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히브리어는 일상적인 말해지는 교류를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말(speech) 공동체의 유일한 자국어가 아니었다. 기원후 200 년 경부터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의 아람어와 후기 아랍어와 같은 그런 지방 토속어와—그리고/또는 디아스포라에서 전개됐던 Yiddish와 같은 그런 유대언어들과 연결되어져서만 존재했다. 이런 감각에서 ‘현대 히브리어’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됐던 유대인들의 국제적인 정착을 위한 시온주의 운동의 부분으로서 20 세기 전환점에서 솟아 올랐다. 현대 히브리어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Fellman1973, Cooper1983, 그리고 Morag 1987을 마찬가지로

보라.

#### 4-1) 발전(development).

일상적인 자국어(vernacular, 自國語)로서의 히브리어의 성공적인 재생(renaissance再生)은 그것이 그들을 위한 모국어와 학교 교육의 매개체를 구성했던 어린이들의 첫 세대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현대 히브리어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1922년 이후로 공식언어로서, 교육과 방송과 언어정책의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지닌 조그만 나라에서 사용됐다. 언어정책은 1890년에 설립된 히브리어 위원회의 후신(descendant, 後身)으로서 1953년에 확립된 히브리어 학원(Academy)를 통해 시행됐다. 정착의 지리적인 지역 또는 유형들에 관련된 방언적인 차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히브리어는 두드러진 구조적 그리고 사회적 다양함을 지닌다. 다른 역사적 시기들로부터의 요소들이 현행 용법에 공존한다. 예를들어 사전은 주로 사용대(register, 使用帶)가 다른 많은 쌍들의 동의어들을 포함한다. 보다 더 형식적이거나 문어적인 용어는 성서나 미쉬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어형 구문론에서의 2격 구문들은 성서의 구속(bound, 拘束)형 그리고 미쉬나적 불변사 šel(Berman 1978)를 지닌 더 분석적인 버전 양자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다양함은 모국어 화자들의 첫 세대들의 부모들(압도적으로 Slavic과 Yiddish)에 의해 말해진 다른 언어들로부터 그리고 1948년 후의 이스라엘로 이주한 자들의 커다란 언어적 변화(inflexed)에 의해서 파생된다. 현대 히브리어의 돌출에 관한 특별한 사회-역사적인 상황들은 그것을 특히 상승 강화된 변화의 과정들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이것들은 사회언어학적인 긴장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말해지는 용법과 쓰여진 용법의 보수적인 규범들 사이의 구조적인 두 가지 언어 사용(diaglossia)으로 이끌고 가는 강한 규범주의적 전통에 의해 저항에 직면한다(Cooper, 1983). 사회적 방언(sociolectal)의 다름들은 언어교사들에 의해 준수되는 극단적인 순수함과 확정된 히브리어와 자신들의 자아-의식적인 쓰여진 용법이 그들의 일상어와 표시나게 다른 교육받은 자국어 화자들의 표준언어와 그리고 덜 교육받은 그리고 반(semi, 半)-문명화된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표준 하위적인 용법을 포함한다(Berman 1985).

#### 4-2) 음성학.

일반적인 'Israeli Hebrew'(Blanc 1957)의 음소학적인 목록은 초기에 그리고 인증적인 전통들(Morag 1971)에서 포착된 많은 구분들을 중성화시킨다. **모음체계**는 그

세기의 전환점을 배경으로 한 Arabic/Judezmo의 화자들의 Sephardi 읽기 발음으로 부터 채용됐다. 그것은 높은 전설(high front, 前舌) **i**와 후설(後舌) **u**, 중간 전설(mid front) **e**와 후설 **o**, 그리고 낮은(low)—주요모음들과 밀접하게 발음되는 **a** 등 다섯 모음들을 포함한다. 음성이 나오는 경과음(Offglides, 經過音)들은 이중모음 **ay oy uy**에서 발생한다. 역사적인 ‘shwa mobile’은 보통 **e** 또는 심지어 **i**로 발음된다. 짧은 대(vs. 對) 긴 또는 홑 또는 쌍(geminate) 자음들 또는 모음들 사이의 음성학적인 대조는 있지 않다. 그러나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들 사이의 역사적인 구분은 어떤 어형음성론적인 변이와 관련된다: gamad ‘dwarf’, 역사적인 gāmmād, pl.

TABLE 1. Israeli Hebrew Consonants

	Labial	Apical	Palatal	Velar	Glottal
<b>Stops</b>					
Voiceless	p	t		k	ʔ
Voiced	b	d		g	
<b>Affricate</b>					
Voiceless		c			
<b>Fricatives</b>					
Voiceless	f	s	ʃ	x	h
Voiced	v	z			
<b>Nasals</b>	m	n			
<b>Vibrant</b>				r	
<b>Lateral</b>		l			
<b>Semivowel</b>			y		

gamadim, gamal ‘camel과 함께, 역사적인 gāmāl, 복수 gmalim에서의 [엑센트가 어떤 단어의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오는] 페널티적인 모음 감소와 함께. 좌측 표 1에서 펼쳐진 것처럼 자음체계는 크게 동부유럽과 중앙유럽으로부터 온 Ashkenazi 유대인들의 용

업을 반영한다.

그래서 말해지는 히브리어의 주요 방언은 유형적으로 셈어적인 인두음(pharyngeals, 咽頭音)들(각 각 연구개음 x와 후음 파열음 또는 zero에 중성화된, 정서법으로 쓰면 chet와 ayin)과 그리고 이차적 연구개적 조음을 지닌(emphatic)것들(정서법적인 qof, tet, 그리고 tsade는 각 각 연구개음 k과 치음 t와 파찰음 ts로 발음된다)을 배제한다. 마찰적인 음소들의 부류는 예를들어 아랍어 ħizbat ‘tale’ 또는 영어 ĵip ‘jeep’와 같은 차용어들로 확장됐다. 후음 alef와 heh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zero로 발음된다. 여섯 개의 본디 폐쇄-기식음적인 변이(alternations, 變異)들 중에서 p b k는 마찰음적인 짝들 f v x를 지닌다. 그러나 t d g는 어떤 마찰음 짝도 지니지 않는다. 자음체계에서의 이런 역사적인 변이들의 평균화(levelings)는 다음 쪽 도표 2에서 묘사된다.

TABLE 2. Hebrew Alphabet and Pronunciation

Name	Letter	Pronunciation	
		Historical	Current
alef	א	ʔ	θ or ʔ
bet, vet	ב	b-v	b-v
gimel	ג	g	g
daled	ד	d	d
heh	ה	h	θ, ʔ, h
vav	ו	w	v
zayin	ז	z	z
chet	ח	ḥ	x
tet	ט	ṭ	t
yod	י	y	y
kaf, chaf	כ	k-x	k-x
lamed	ל	l	l
mem	מ	m	m
nun	נ	n	n
samech	ס	s	s
ayin	ע	ʕ	θ-ʔ
pe, fe	פ	p-f	p-f
tsade	צ	ṣ	c
kof	ק	q	k
resh	ר	r	r
shin, sin	ש	š, ś	š, s
tav	ת	t	t

분절적인 구분들의 그리고 이중화와 기식화와 같은 과정의 중성화는 한 편으로 역사적인 변이들의 단순화를 생산했으며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음성학적으로 동기지워지지 않는 환경들 속에서 두드러지 형태음성학적인 애매함과 다양함을 생산했다(Berman 1985, Schwaerzwald 1981). 공식적인 방침과 표준 용법 사이의 계속 진행되는 논쟁 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ㄱ) 낮은-모음들을 비(non, 非)-인두음적인 환경들로까지 확장.
- ㄴ) 모음길이 또는 자음중첩에 의해 본디 방해받는 곳에서의 모음 줄임(reduction)
- ㄷ) 역사적인 ayin, alef, 또는 heh와 더불어 확인되는 열린음절들의 어미에 있어서의 어간-마지막 모음들의 재분석.
- ㄹ) 다른 역사적인 환경들에 있어서 폐쇄음들과 이 폐쇄음들의 변이들 사이의 변동(Fluctuation, 變動).
- ㅂ) 규범적이지-않은 낱말-첫 자음 군(clusters, 群) 또는 쉼의 사용.

단어 강세들은 Sephardi 읽기 전통을 따른다. 어떤 폐쇄된 ('segolate', 쉼골화된) 명사들 예를들어 성서의 mélex 'king', 현대어 méser 'message'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단어 강세는 *마지막 음절*에 놓인다. 예를들어 akadémiya, instalátor와 같은 차용어들도 예외들이다. 일상어적인 용법은 고유명사들과 어린이들의 놀이들의 경우 페널트에 강세가 놓이는 Ashkenazi-류형을 따른다. rexovót 'streets' vs. the city of Rexóvot, shirá 'singing' vs. Sjíra(a girl's name), 또는 kláfím 'cards' vs. kláfím (a children's game)을 비교하라.

#### 4-3) 쓰기 체계.

윗 쪽 표 2에 주어진대로 현대 히브리어 정서법은 페니키안으로부터 성서히브리어에 받아들여졌던 스물 두 개 자음 문자들을 지닌다. 모음들은 성서나 시나 아동문학이나 학교초급독본이나 제2언어학습교재 등을 제외하면 보통 표기되지 않는다. 이런 교재들에서의 모음들은 9 세기 경 Tiberian(디베라사람들의) 체계에서 확립된 구별발음부호들(diacritic marks)에 의해 가리켜진다. 이것들은 긴모음과 짧은 모음들, 여섯 과열음 모두의 기식과 폐쇄 버전들, 그리고 현행의 발음에 있어 구분되지 않는 다른 범주들의 차이들을 나타낸다. 이런 전통적인 형식의 모음 찍기(niqud, 'vowel pointing')를 숙지하기 위한 특별한 연구가 요구된다. 글쓰기의 plene 체계는 i e와 u o를 각 각 a로부터 구분하기 위해 역사적인 반모음(glides, 半母音)들 y w을 사용한다. 예를들어 본디 세 자음 문자들로만 이루어진 <spr>의 경우 다음의 낱말들처럼 부분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내어질 수 있다: <sypr> = siper 'told'; <sypwr> = sipur 'story'; <swpr> = sofer 'writer' 그리고 수동 동사 supar 'was told' (마찬가지로 차용어 super 'supermarket'); <swprwt> = sofrot 'female writers'; <sprwt> = sifrut 'literature'; saparut 'hairdressing' (from a different root), 그리고 sfarot 'numgers'. 자음들만의 <spr>는 역사적으로 구분된 어근들로부터 sapar 'barber'와 sfar 'border'

뿐만 아니라 낱말들 séfer ‘book’과 safar ‘counted’을 나타낸다. 그래서 정서법은 크게 보수적인채로 남아있다. 말의 자음 요소만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을 가공처리하기 위해서는(to process) 문법적인 구조와 사전에 관한 얇이 히브리어 독자들에게 필연적이다.

#### 4-4)형태론.

현대 히브리어는 전통적으로 썸어에서 파생된 형태론을 지닌다. 자음 어근들은 대부분의 그 내용 어휘들을 위한 형태론적이고 의미론적인 토대를 구성한다. 주여 낱말-형성의 메카니즘은 (일상적으로 세) 이런 자음들에게 붙는 패턴들의 배정이다. 예를들어 어근 gdl은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동사 형들을 위한 토대이다.

1)3인칭과거	gadal	grow	타동사
	gidel	grow, raise	
	higdil	enlarge	
	gudal	be raised	수동
	hugdala	be enlarged	
2)형용사	gadol	big	
	megudal	(over) grown	
	mugdala	enlarged	
3)명사	gidul	growth, tumor	
	gódel	size	
	gdula	greatness	
	gdila	growing, growth	
	migdala	tower	
	hagdala	enlargement	

기준이 되는 어근 더하기 덧붙히는 패턴의 연결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 확장된다:

ㄱ)차용어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문자 어근들의 사용—예를들어 sibsed ‘subsidize’, rifer ‘refer’와 같은 동사들.

ㄴ)어간-외적인 접사첨가(affixation, 捷詞添加)—예를들어 ben- ‘inter-’, xad- ‘mono-, uni- ’와 같은 접두사를 가지고; 또는 명칭(denominal, 名稱)적인 형용사들을 형성하기 위한 -i 그리고 동작의 주체 명사를위한 -an 과 같은 접미사들을 가지고.

ㄷ)두 개의 어휘소(lexemes, 語彙素)들과 몇몇 음성학적인 중첩으로 이루어진 혼성어(blends, 混聲語). 예를들어 midraxa ‘sidewalk’와 rexov ‘street’로부터 온 midr(e)xov ‘(pedestrian) mail’

새로운 어근(radicals, 語根)들도 마찬가지로 덧붙여지는(affical) 요소들로부터 흔히 파생된다. 명사의 경우 xašiva ‘thinking’, xišuv ‘calculation’, xašav ‘comptroller’—역사적인 ḥšb를 le-maxšev ‘to computerization’, memuxšan ‘computerized’, mixšuv ‘computerization’를 형성하기 위해 명사 maxšev ‘computer’로부터 파생된 동시대적인 mxšv와 또는 le-hitxašben ‘to settle accounts with’, mexušban ‘calculating(사람의 유형)’, hitxašbenut ‘settling-up’에서처럼, xešbon ‘account’로부터 온 xšbn과 비교해 보라.

어휘목록(lexicon, 語彙目錄)은 동사들과 그리고 다른 사전적 범주들 사이의 전통적인 이중성(duality, 二重性)을 준수한다. 사전(dictionary, 辭典)들에서의 동사들은 자음 어근이 실려진다. 그러나 다른 목록들은 어근이든 접두적이든 낱말의 첫 자음에 의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실려진다. 새로운 낱말 형성들에 있어서 동사들은 단지 자음 어근 더하기 **binyanim** 이라 불리우는 일곱 동사 패턴들 중의 하나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명사들과 형용사들은 토속어적이지-않는 형식들을 지닐 수 있거나 어간들에 외부적인 접사들을 덧붙힐 수 있다.

현대 히브리어는 부유한 격 변화 형태론을 지닌다. 명사들과 형용사들은 (어떤 명사들에는 생산적이지-않는 쌍수적 접미사들이 붙는) 단수 또는 복수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한정된 것을 표시하는 부호들을 지니며 동사들은 수와 성과 인칭을 표시한다:

4ㄱ) Ha-argaz ha-gadol ha-ze nafal.  
the-crate the-big the-this fell  
‘This big crate fell.’

4ㄴ) Ha-kufsa ha-gdol-a ha-zot nafal-a.  
the-box the-big-FEM the-this.FEM fell-FEM  
‘This big box fell.’

4ㄷ) ha-argaz-im ha-gdol-im ha-éle nafal-u  
the-crate-PL the-big-PL the-those fell-PL  
‘Those big crates fell.’

명사들은 자유형과 구속, 계속형(construct, 소유격) 양자를 지닌다—예를들어 séfer ‘book’ vs. sifr- 예를들어 sifr-i ‘book-1st = my book’, sifr-ey-mofet ‘book-PL-model = classics’에서처럼. 동사들은 부정법(infinitive, 不定法)이나 명령법이나 직설법에서 발생한다. 직설법은 (인칭 표시 접미어들을 지닌) 과거시제와 (인칭표시접두어들을 지닌) 미래시제와 그리고 현재 또는 분사형들을 구분한다. 동사의 시상(aspect, 時相)을 표시하는 어떤 문법적인 것도 있지 않다. 말해진 용법은 소유격과 4 격을 위한 분석형들을 선호한다:

- 5) ha-séfer šel-o ‘the-book of-his’  
vs. sifr-o ‘his book’  
6) la-harog oto ‘to-kill him’  
vs. le-horg-o

1격이- 아닌 대명사들은 격 표시하는 전치사와 다른 것들 뒤에 강제적으로 용법의 수준에서 붙혀진다:

- 7) lsg. ani ‘I’ vs. acc. oti, dat. li, gen. šeli, iti ‘with me’,  
bishvili ‘for me’, alay ‘on me’, elay ‘to(ward) me’

**4-5) 구문론.** 근본 낱말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다. 비록 동사 주어가 발생하기는 해도 말이다. 주어/동사 일치와 격-표시하는 전치사(주어명사구에서는 예외)들은 화용론적인의도에서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재-배치하는 두드러진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대명사의 복사(copy, 複寫)있이 또는 없이 유형화된 목적어들과 보어들을 문장-첫 위치에 놓음을 포함한다(왼쪽-위치바꿈, 전통적으로는 yihud ‘particularizing’). 현대 히브리어는 동사-첫 유형론과 연합하는 속성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격관계들과 부사적인 것들이 전치사에 의해 표시된다. 양상적이며 시상적인 동사들은 matrix 동사들에 선행한다.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구들은 동사 뒤에 온다. 그 언어는 유형적으로 head-initial(첫-머리)적이다. 예를들어 모든 명사들은(량화사를 제외하면) 머리에 놓인 명사(head noun)를 따른다.

- 8) šney sifrey-mofet éle šel Ronen še iyanti bahem  
two books-model those of R. that looked. 1st at. them  
‘those two classics of Ronen(’s)that I looked at’

많은 null-주어 구문들이 있다: 비인칭 구문들은 허사적인 주어를 허락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또는 미래 시제 일인칭과 이인칭 변화 할 때



주어대명사없이 동사들이 발생할 수 있다(Berman 1980, Borer 1984). ‘지니다’(have) 동사는 있지 않다: 존재적인 것들과 위치적인 것들과 소유적인 것들은 문장-첫 존재적 불변화사 *yeš*(יש)를 취하거나 또는 여격의 소유명사구와 함께하는 동사 *hyy* ‘be’의 어떤 형을 취한다:

9) *Yeš sfarim ba-aron.*  
be books in-the-closet  
‘there ar books inthe closet.’

10) *Haya le-Ron hrabe sfarim.*  
were to-Ron many Books  
‘Ron had lots of books’

계사문장들은 동사 *hyy*를 취한다:

11) *Ron haya talmid šeli*  
‘Ron was my student’

예외는 소위 ‘명사문장’이 어떤 표층 동사형과도 나타나지않는 현재시제이다:

12) *Ron talmid šeli*  
‘Ron (is) my student’

주어와 계사의 보어들 사이의 보충적인 대명사를 일상어적인 용법이 때로는 수와 성의 일치로 중성화시키면서 선호한다. 그래서 *samim ze be’aya* ‘drugs it problem’ vs. 더 형식적인 *samim hem be’aya* ‘Drugs are a problem’ 대신에 ‘drugs they problem’. 덧붙혀 일치는 자주 소유구문과 다른 동사 주어 구문에서 위반된다:

13) *Hata le-Ron kol miney be’ayot.*  
was to-Ron all kinds-of problems  
‘Ron had all kinds of problems.’

마지막으로 그러한 구문에서의 4격 불변사 *et*의 사용은 소유 명사의 1격 상태 (*status*, 狀態)의 약해짐을 반영한다:

14) *Haya le-Ron et ha-séfer.*  
was to-Ron Acc the-book’  
‘Ron had the book.’

동사 패턴의 binyan 체계는 타동성과 태를 표시하는 형태론적 수단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근 pth는 세가지 다른 패턴들에서 다음과 같은 형들을 산출한다:

- 15) 타동사 능동:  
 Ron pitéax et ha-ra'ayon  
 Ron developed ACC the-idea
- 16) 수동:  
 Ha-ra'ayon putaz (al-ydey Ron)  
 The-idea was-developed (by Ron)
- 17) 중간태:  
 ha-ra'ayon hitpatéax.  
 the-idea developed.

이런 일곱 패턴들은 마찬가지로 상호성과 재귀성과 사역성과 그리고 다양한 정도의 생상성을 지닌 기동상(inchoativeness, 起動相)을 목록화한다: 그래서 어근 lš의 경우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닌다.

- 18) Ron lavaš et ha-me'il.  
 Ron wore(=put on) ACC the-coat
- 19) Ron haya lavuš (ba-me'il)  
 Ron was dressed (in-the-coat)
- 20) Ron hitlabeš (ba-me'il)  
 Ron got-dressed (in-the-coat)
- 21) Ron hilbiš et ha-yeled (ba-me'il)  
 Ron dressed ACC the-boy (in-the-coat)
- 22) Ha-yeled hulbaš (al-ydey Ron).  
 the-body was-dressed(by Ron)

동격구문들은 기본 접속사 ve 'and'을 가지고, 영어에서처럼 아주 많이 형성된다. 종속절들은 일반적으로 še- 'that'을 가지고 표시된다. 예를들어 아래 23으로부터는 보어들로, 24는 관계사로, 25는 부사들로:

- 23) Ron yada še-ze naxon.  
 Ron knew that-it (was) right.
- 24) ha-talmid šd-yada et ze  
 the-student that-knew ACC it
- 25) mipney še-Ron yada  
 because that-Ron knew

관계적인 명사 구의 대명사 복사는 그것이 직접 목적어를 지닌 사격(oblique, 斜

格)적이고, 선택(optional, 選擇)적일 때 강제적이다:

- 26) ha-talmid še-Ron diber it-o  
the-student that-Ron talked to-him
- 27) ha-talmid še-Ron limed (ot-o)  
the-student that-Ron taught (him)
- 28) ha-talmid še-yada  
the-student that-knew

이것은 예를들어 왼쪽 오른 쪽 위치 바꿈에 있어 그리고 계사 보어와 이중 소유격에서와 같은 대명사 복사를 위한 그 언어의 일반적인 성향에 그리고 그것의 첨부(dangling, 添附) 전치사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일관적이다.

**4-6)Directions.** 현대 히브리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말해지는 자국어로 고대 역사적인 재원들이 다시 돌출함에 따른 변화의 과정과 그러한 고대역사적 재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이것은 ‘유럽화’ 또는 ‘재-자국화’(re-nativization, 自國化)의 암시로서 평가됐다-그리고 헐뜯어지거나 환영됐다. 학교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서 언어에 노출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국어 화자들은 아주 쉽게 삼천년 전에 쓰여진 텍스트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할아버지들이 이미 히브리어 자국 사용자들인 언어 하나만을 말하는 자들이다. 그 언어의 재 탄생 시기 동안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던 입력(input) 언어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표현 상 다른 형식들의 역사적인 근원들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보면 히브리어 화자(speakers, 話者)들은 동시대의 문법과 어휘에 동일하게 의지하며 그리고 다른 현대 언어의 어느 화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해진** 그리고 **쓰여진** 용법의 다양한 수준들에 의지한다. (Ruth Q. German) //.

## 히브리어 차례

- 1) 이름, 히브리어 ..... 21
  - 1-1) 이스라엘과 히브루 ..... 21
  - 1-2) 언어이름으로서의 히브루 .... 23
- 2) 히브리어의 역사 ..... 25
  - 2-1) 초기역사 .... 25
    - 2-1-1) 역사이전 .... 25
    - 2-1-2) 철기시대 ..... 25
      - 2-1-2-1) 이스라엘 히브루 ..... 26
      - 2-1-2-2) 유대 방언 ..... 26
    - 2-1-3) 페르시아와 헬레니스틱 ..... 28
      - 2-1-3-1) 헬레니스틱 .... 28
  - 2-2) 고대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와 포에니어 ..... 29
    - 2-2-1) 고대 히브리어 .... 29
    - 2-2-2) 페니키아어와 포에니어 ..... 30
  - 2-3) 바빌론 유수 그 이전과 이후 ..... 32
    - 2-3-1) 가나안어-히브리어 .... 32
    - 2-3-2) 그 유수 이전 .... 33
    - 2-3-3) 시적인 히브리어 .... 34
    - 2-3-4) 그 유수 이후 ..... 37
  - 2-4) 성서히브리어의 질들 ..... 39
  - 2-5) 유수 이후의 발전 .... 40
  - 2-6) 고대 방언
    - 2-6-1) 고대 히브리어 ..... 42
    - 2-6-2) 고대 관련언어들 ..... 43
    - 2-6-3) 방언들 ..... 45
      - 2-6-3-1) 그 다양함들 ..... 46
  - 2-7) 미쉬나 히브리어 ..... 47
  - 2-8) 중세와 현대히브리어 ..... 51
    - 2-8-1) 중세 ..... 51
    - 2-8-2) Elezer Ben—Yehuda와 히브리어의 재생 ..... 52

2-8-2-1)이스라엘과 시온니즘	..... 60
2-8-3)현대	.... 63
2-9)히브리어 문법의 역사적 고찰	..... 64
2-10)히브리어 역사 개설	.... 67
3)고대 히브리어	..... 69
3-1)글쓰기와 발음	.... 69
3-2)자음들	.... 77
3-3)모음들	.... 80
3-3-1)형태음소학	..... 82
3-3-2)맞소리학자들	.... 83
3-4)문법	.... 87
3-4-1)성과 수	..... 87
3-4-2)한정사들	..... 88
3-4-3)격과 state-형태론	
3-4-4)어근	..... 89
3-4-5)시제와 시상	.... 90
3-4-6)법	..... 93
3-4-7)Valence(동사패턴)	..... 93
3-4-8)구문론	..... 96
4)현대히브리어	..... 97
4-1)발전	.... 98
4-2)음성학	.... 98
4-3)쓰기체계	.... 101
4-4)형태론	.... 102
4-5)구문론	..... 104
4-6)그 추세	.... 107

## 히브리어 그림 도표 차례

- 1)아브라함의 여정 ..... 1
- 2)열 두 부족의 땅들 .... 2
- 3)다윗과 솔로몬 지도 ..... 3
- 4)이스라엘과 유다왕국 ..... 4
- 5)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유대 ..... 5
- 6)메카베 지도하의 팔레스타인 ..... 6
- 7)신약시대의 팔레스타인 .... 7
- 8)미쉬나탈무드시대의 로마 디아스포라 ..... 8
- 9)아랍 지배하의 이스라엘 ..... 9
- 10)십자군 지배하의 예루살렘 ..... 10
- 11)십자군 지배하의 예루살렘2 ..... 11
- 12)말록 지배하의 이스라엘 ..... 12
- 13)오토만 제국 지배하의 이스라엘 ..... 13
- 14)기원전 70~1947까지의 디아스포라 ... 14
- 15)영국령 팔레스타인 ..... 15
- 16)1946-1951년 의 유럽유대 디아스포라 ..... 16
- 17)1947 아랍과의 전쟁 1 .... 17
- 18)1947년 6일 전쟁 ..... 18
- 19)이스라엘 땅의 선포 .... 19
- 20)이스라엘의 현재 땅 ..... 20
- 21)실로암 비문 ..... 29
- 22)에리에제르 벤 예후다의 사진 ..... 52, 60
- 23)아람어-히브리어 발전 ..... 71
- 24)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음역 ..... 76
  - 24-1)히브리어 알파벳 2 ..... 77
  - 24-2)히브리어 알파벳 3 .... 78
- 25)디베랴 히블어 알파벳 4 ..... 80
  - 25-1)디베랴 모음부호 ..... 81
  - 25-2)디베랴 형태음소학 변이들 ..... 83
- 26)히브리어 이전의 모음읽기전통 ..... 82

- 27)히블리어 읽기전통의 분류 ..... 83
- 28)맛소라 이접적 또는 접속적 엑센트들 ..... 84-85
- 29)약변화 어근들 ..... 90
- 30)역동적/정적인 대립 ..... 91
- 31)시제/시상의 쓰임새 ..... 92
- 32)성서히브리어의 Binyanim ..... 93
- 33)Valence(동사변화패턴) ..... 94
- 34)현대히브리어 자음들의 분류 ..... 99
- 35)현대히브리어 알파벳과 발음 ..... 100